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비구 자공 까윗사라 편역

가장 오래된 불교 최초 경전인 숫따니빠따에서 찾는,
피로움을 넘어서 행복에 이르는 길

가장 오래된 불교 최초 경전인 숫따니빠따에서 찾는,
괴로움을 넘어서 행복에 이르는 길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 붓 다사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그분께 귀의합니다



■저자

비구 자공 까윗사라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했다. 1999년 개인사업 정리하고 수행자 생활 시작, 2006년 미얀마에 있는 찬메이 센터에서 우 자나까 사야도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출가)했다. 2008년 (사단법인)‘붓다와 함께’ 설립, 2011년 경남 하동에 수행처인 ‘신월정사’를 건립하였다. 2021년 테라와다 비구들과 상가를 이루어, ‘신월정사’ 명칭을 ‘아리아승원’으로 변경해 불교수행에 더욱 더 정진하고 있다.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비구 자공 까윗사라 편역

조선판 사람과 나무

머리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는 하나의 개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리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일 것이고 이 의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모두 다 ‘사성제(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하나의 주제에 모아져 있고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에 관한 내용들 역시 모두 사성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성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숫따니빠따는 불교의 빠알리 삼장(경·율·논) 중에서 그 성립 연대가 가장 오

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장인 쿛따까 니까야(소부경전)에 수록되어 있고, '경전의 모음'이라는 뜻에서 경집(經集)으로 한역 되었다.

필자가 약 25년 전 쯤에 처음으로 숫따니빠따를 읽었을 때 그때에 가슴에 와 닿았던 그 신선한 충격과 감명과 감동은 지금도 퇴색됨 없이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그때에는 그 내용과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감명과 감동이 필자가 그 뒤에 출가를 하게 되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동안 출가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염두에 두어온 숙제 중 하나는, 불교 최초의 경전인 숫따니빠따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로 분류 및 정리하여 책 한 권을 만들어 항상 곁에 두고 삶의 나침반으로 그리고 나를 경책하는 훌륭한 도반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숙제작업을 시작한 지 이런저런 사유들로 오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니 큰 보람을 느낀다.

숫따니빠따에 수록된 모든 경들과 계송들의 내용은 모두 다 사성제의 주제 안으로 포괄되고 그 내용들 역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저 언덕 즉 피안으로 가고자 함을 그 목표로 삼고 있음으로, 본서에서는 원전의 경과 계송들을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1부 사성제, 제2부 교리와 수행, 제3부 괴로움 넘어 행복으로로 나누어 분류한 후에 각 부에 다시 장과 절을 그 내용에 따라 세분화 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경과 계송들을 재분류 및 배치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숫따니빠따에 수록된 1149개의 계송 속에 담긴 심오한 부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서술 형태의 문장과는 달리, 우리들에게 특별한 영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주옥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인 원전의 계송들을 독자들이 마음에 새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고유한 감흥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필자의 설명은 간략하게 하였고, 독자들의 이해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

분에 대한 설명들은 되도록 경전(니까야와 아함경)에 수록된 부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준 담마가라와님께 이 지면을 빌려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공덕으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살아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세계, 피안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2023년 10월 아리아 승원, 만월당에서

비구 자공 까윗사라 합장

목차

머리말	… 6
일러두기	… 12

제1부 사성제

… 15

제1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四聖諦)]	… 18
제1절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苦聖諦)]	… 42
제2절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集聖諦)]	… 46
제3절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滅聖諦)]	… 52
열반에 관하여	… 60
제4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道聖諦)]	… 70

제2장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 [팔정도(八正道)]

… 78

제1절 바른 견해 [정견(正見)]	… 88
제2절 바른 사유 [정사유(正思惟)]	… 107
제3절 바른 말 [정어(正語)]	… 111
제4절 바른 행위 [정업(正業)]	… 116
제5절 바른 생계 [정명(正命)]	… 121
제6절 바른 노력 [정정진(正精進)]	… 123
제7절 바른 사띠 [정념(正念)]	… 128
1) 몸 관찰(身念處) … 138	2) 느낌 관찰(受念處) … 141
3) 마음 관찰(心念處) … 143	4) 법 관찰(法念處) … 146
제8절 바른 삼매 [정정(正定)]	… 149

제2부 교리와 수행	… 153
제1장 교리(教理)	… 156
제1절 부처님에 관한 내용	… 157
1) 부처님의 탄생	… 157
2) 부처님의 출가	… 162
3) 부처님의 정진	… 165
4) 부처님의 전법과 이교도들의 귀의	… 169
제2절 업과 과보	… 203
선(善)과 불선(不善, 惡)	… 214
제3절 연기	… 218
제4절 윤회	… 227
제5절 삼보 예찬	… 233
제2장 수행(修行)	… 238
제1절 수행자	… 239
1) 도반	… 261
2) 출가와 재가	… 264
3) 출가 수행자	… 269
4) 수행 일반 사항	… 276
제2절 수행법	… 279
1) 보시 수행	… 280
2) 인욕 수행	… 292
3) 자애 수행	… 295
4) 부정관, 시체관 수행	… 299
5) '지각을 닦음' 수행	… 301
6) 감각기관 단속	… 309
제3부 괴로움 넘어 행복으로	… 313
제1장 세간과 출세간	… 316
제2장 범부와 범부의 삶	… 322
제3장 성인과 성인의 삶	… 335
제4장 피안으로 가는 길	… 351
부록 원전의 경을 본서에서 찾기	… 387

일러두기

1. 본서에서 사용한 용어인 ‘경전’과 ‘원전’은 다음을 뜻한다.

‘경전’은 ‘초기불교 경전’을 말한다. 즉 빨리어로 편찬되어 남방으로 전래된 ‘5부 니까야’와, 한문으로 번역되어 북방으로 전래된 ‘4부 아함경’ 전부를 말한다.

‘원전’은 ‘숫따니빠따’를 말한다.

2. 본서에 표기된 아래 문자표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 ☞ : 원전의 경이나 계송의 수록을 안내할 때
- ◎ : 원전에 있는 하나의 경 전체를 수록할 때
- : 원전의 경 속에 있는 일부 계송만을 수록할 때
- * : 편역자의 설명에 경전의 일부를 인용할 때

3. 숫따니빠따 편역 작업에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다.

- 슷타니파타 : 법정스님 옮김, 도서출판 이레
 - 슷타니파타 :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슷따니빠따 : 일아스님 옮김, 불광출판사
 - Suttanipāta : N.A. Jayawickrama, 영역본
 - The Suttanipāta : Bhikkhu Bodhi, 영역본, Wisdom Publications
- 상기 문헌들이 없었다면 본서의 편역은 불가능 하였으리라 믿으며, 번역을 해주신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4. 편역자의 설명 부분에 인용한 경전내용은 아래 문헌을 참고하여 엮었으며, 인용한 경전들은 편의상 아래와 같은 괄호 안의 약호로 표기하였다.

- 앙굿따라 니까야(AN) : 대립스님 옮김, 초기불전 연구원
- 디가 니까야(DN) : 각목스님 옮김, 초기불전 연구원
- 맞지마 니까야(MN) : 대립스님 옮김, 초기불전 연구원
- 상웃따 니까야(SN) : 각목스님 옮김, 초기불전 연구원
- 상웃따 니까야(SN) : 전재성 옮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아함경 : 김윤수 역주, 한산암

초기불교경전 공부하는 이 분들의 역작이 있었기에 가능하며, 이러한 훌륭한 역작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와 감사를 전한다.

5.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역자가 문구를 첨가할 때에는 괄호[]를 사용하였다.

6. 원전의 경 번호(혹은 계송 번호)로 그 경이나 계송을 본서에서 찾을 경우에도움이 되도록, 그 경이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 일람표를 부록으로 실었다.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 제1부

사성제

제1부 사성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과 부처님의 가르침(불교)은 한 마디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경이롭고 명쾌한 대답이 있으니, 그것은 ‘사성제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두 사성제 안에 있고 어떤 불교 교리나 수행에 관한 내용들도 모두 다 사성제로 귀결된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며, 이 진리는 이전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하여 이 진리를 직접 깨달으시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계에 출현하시어 사성제를 설하신 목적은,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이다’라고 말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이다’라고 해도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사성제의 네 번째 항목

인 ‘도성제’가 팔정도이며, 팔정도의 첫 번째 항목인 ‘바른 견해’가 사성제이기 때문이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항목의 구성 방식과 설명을 전개하는 방식에 각각 다소의 차별과 특징이 있어 본서 ‘제1부 사성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제1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四聖諦)]

제2장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팔정도(八正道)]

따라서 원전인 숫따니빠따의 경과 계송들도 상기 두 개의 장으로 각각 분류하여 해당 장에 수록하였다.

제1장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四聖諦)]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하신 최초의 설법이, 다섯 비구에게 설하신 <초전법륜 경>인데, 이 경전에 수록되어 있는 사성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성제]이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과 죽음이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五取蘊]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②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집성제]이다.

그것은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생겨나게 하고, 즐김과 탐욕[의 성품]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에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

애[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無有愛]가 그것이다.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완전히 버려져야’ 한다.

③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멸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④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도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뉘어져야’ 한다.

SN56:11 <초전법륜 경>

그리고 사성제를 관통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다음 네 가지의 내용을 모아 보았다.

* 누가 말하기를, ‘나는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SN56:32 <아카시아 경>, SN56:44 <뽕족지봉 집 경>

* 비구들이여, 수명이 백 년인 사람에게 누가 와서 제안하기를, ‘그대가 하루에 세 번씩, 한 번에 백 자루의 창으로 찢리면서 백 년을 살고 나면 사성제를 관통하게 될 것이요.’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남자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SN56:35 <백 자루의 창 경>

* 비구들이여,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꿩똥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

와 그대들은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DN16 <대반열반 경>

* 사성제의 진리를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최대로 일곱 번만 더 치달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SN15:10 <인간 경>

이러한 말씀들에 의거하여, 우리는 사성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생의 삶은 그 자체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애로서, 이 갈애를 남김없이 소멸시키면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즉 팔정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이미 일어난 갈애는 즉시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갈애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갈애를 소멸 시켜 나가면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저 언덕(피안,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또한, “팔정도를 닦아서 탐욕과 갈애를 여윈 자에게는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에 태어남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다.

SN22:2 <데와다하 경>

네 가지 진리의 각 항목에 대한 각각의 고찰은 다음에 이어지는 제1장의 1절, 2절, 3절, 4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또한 사성제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기(緣起, 십이연기)를 철저히 알아야 하는데, 연기에 관한 내용은 본서 제2부의 1장 3절에 수록하였다.

☞ ‘사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원전(숫따니빠따)의 경, 넷

- 1)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 2)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 3)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승 경>
- 4)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동원에 있는 미가라마뚜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보름날의 포살일 밤에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밖에 앉아 계셨다. 세존께서는 고요히 침묵하고 있는 비구 승가 대중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고 고귀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1. 사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균건하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결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든가(아라한,
아니면,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윤회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른길로 잘 가신 분(선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24)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모르며,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된 상태를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

(725) 그들에게는 마음에 의한 해탈(심해탈)도 없고,
지혜에 의한 해탈(혜해탈)도 없다.
그들은 [윤회를] 끝낼 수가 없어, 참으로 태어남과 늙음을 계속 겪는다.

(726)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알고,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된 상태를 알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아는 사람들,

(727)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을 갖추게 되고,
지혜에 의한 해탈도 갖추게 된다. 그들은 [윤회를] 끝낼 수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태어남과 늙음을 겪지 않는다.”

[2. 재생의 토대]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재생의 토대[우빠데]를 조건으로 하여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재생의 토대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결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든가(아라한,
 아니면,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윤회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른길로 잘 가신 분[선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28) “세상에 있는 갖가지 형태를 지닌 모든 괴로움은,
 재생의 토대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재생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어리석은 자는,
 반복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재생의 토대가 괴로움의 발생과 그 근원임을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재생의 토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3. 무명(無明)]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무명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합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29)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되풀이하여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 무명에 있다.

(730) 이 무명이란 커다란 어리석음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4. 형성(行)]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형성(行, 상카래을 조건으로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형성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합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31)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든, 그것은 모두 형성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형성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732) 괴로움은 형성이 원인이므로,
그 위험함을 알아서, 모든 형성을 그치고, 지각(慧, 산내을 중지하면,
괴로움은 부서지고 만다.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733)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라[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새로운 존재를 받지 않는다.”

[5. 식(識)]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식(識, 원내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식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34)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든, 그것은 모두 식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식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735) 괴로움은 식을 조건으로 일어나므로,
비구는 그 위험함을 알아서, 식을 고요히 가라앉혀, 갈망 없이,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6. 접촉(觸)]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접촉(觸, 觸)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훬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36) “접촉에 이끌려 다니고, 존재의 흐름에 휩쓸리며,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박(束縛)을 끊기 어렵다.

(737) 그러나 접촉을 확실히 이해하고, 두루 잘 알아서,
접촉을 부수어 버린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기뻐하며,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7. 느낌(受)]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느낌(受, 웨다내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느낌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협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38)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혹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739)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알고,

‘허망한 것으로서 부서지기 마련인 것’임을 알아,

느낌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의 사라짐을 보아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들을 부수어,

비구는,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8. 애(愛)]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갈애(愛, 탄해)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40) “갈애를 벗 삼는 사람은,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41) 괴로움은 갈애로 인해 생김으로, 그것의 위험함을 알아서, 비구는,
 갈애를 버리고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9. 집착(取)]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집착(取, 우빠다내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집착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42)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有, 바와)가 생긴다.

존재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743) 그러므로 바른 지혜를 가진 현자들은,
태어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
집착을 소멸시켜,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10. 동기(動機)]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동기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동기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협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44) “어떠한 괴로움도 모두 동기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동기가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45) 괴로움은 동기로 인해 생긴다는 위험을 알아,
모든 동기를 놓아버리고,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탈한다.

(746) 존재에 대한 갈애를 끊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한 비구는,

거듭되는 태어남을 종식시켜, 더 이상 새로운 존재를 받지 않는다.”

[11. 자양분(滋養分)]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자양분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자양분을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훤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47) “어떠한 괴로움도 모두,

[불선법을 키우는] 자양분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자양분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48) 괴로움은 자양분으로 인해 생긴다는 그 위험을 알고,

모든 자양분들을 두루 잘 이해하여,

어떤 자양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749) 번뇌를 완벽하게 부수었을 때의 건강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찰하며, 담마에 확고하게 서서

최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헤아림[평개의 그 너머에 있다.”

[12. 동요(動搖)]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동요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동요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소멸시켜 버리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협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50) “어떠한 괴로움도 모두, 동요를 조건으로 하여 생긴다.

동요가 그치게 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751) 괴로움은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그 위험을 알고,

순간적 충동을 버리고, 형성[업 지음]을 멈추고,

비구는, 충동 없이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13. 의지함]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공포나 불안의] 떨림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떨림이 없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합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52)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떨림이 없다.

그러나 의지하는 사람은 집착하게 되어, 이 세상의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로 전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53) 의지함 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그 위험을 알아,

비구는, 의지함 없이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14. 물질계와 비물질계]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형태 없는 비물질계가, [형태 있는 물질계보다 더 고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소멸은 비물질계보다 더 고요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합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54) “물질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과, 비물질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

그들은 모두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755) 그러나 물질[의 영역을] 잘 알고,
비물질의 상태에도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소멸 가운데에서 해탈하여, 죽음에서 벗어난다.”

[15. 진리와 거짓]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천신들과 마라와 범천의 세계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천신들과 인간들 속에서,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거룩한 분들은
‘이것은 허망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천신들과 마라와 범천의 세계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천신들과 인간들 속에서, ‘이것은 허망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거룩한 분들은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56) “보라! 신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명색[名色, 마음과 몸]에 집착되어 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757)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일시적이며 변하는 것은 그 본성이 원래 허망하기 때문이다.

(758) 그러나 열반은 그 본성이 허망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분들은 이것을 진리로 안다.

그들은 진리를 꿰뚫어 이해하기 때문에, 갈애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

[16. 행복과 괴로움]

“비구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가?’

하고 누가 묻거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라.

‘천신들과 마라와 범천의 세계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천신들과 인간들 속에서,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거룩한 분들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천신들과 마라와 범천의 세계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천신들과 인간들 속에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거룩한 분들은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두 번째 관찰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결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든가(아라한,

아니면,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윤회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른길로 잘 가신 분(선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759) “형상, 소리, 맛, 냄새, 감촉, 현상(法, 마음의 대상, 이들[여섯 감각 대상]은, ‘이것들이 있다’[‘이것들은…이다’]라고 말하는 한, 모두가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 된다.

(760) 이런 것들을 천신이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761) 그러나 거룩한 분들은, 존재의 무더기를 소멸시키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762)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는 것을 거룩한 분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을 거룩한 분들은 ‘행복’이라고 안다.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를 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763)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서 [환히] 보인다.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는

진리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764) 존재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존재의 흐름에 떠내려가며,
마라의 수렁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

(765) 거룩한 분들 말고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바르게 알면, 번뇌 없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리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세존의 그 말씀에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법이 설해졌을 때, 육십 명 비구들의 마음은 집착을 떠나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766) 인간이 감각적 쾌락을 원할 때에, 그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기쁘다.

(767)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 감각적 쾌락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768)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적 쾌락을 피하는 사람은,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애착[갈애]을 극복한다.

(769) 논밭과 토지, 황금, 소와 말, 노비와 하인, 여자, 친척,
그 밖에 여러 가지 감각적 쾌락을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사람은,

(770) 나약한 것들이 그를 압도하고, 위험과 재난이 그를 짓눌러 부순다.
그러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부서진 배에 물이 스며들듯이.

(771) 그러므로 언제나 사띠를 확립하고, 감각적 쾌락을 피해야 한다.
그것들을 떨쳐버리면, 마치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고 피안에 도달하듯,
[윤희의] 거센 물결을 건너게 되리라.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개송 경>

(772) [자신의 동굴에] 집착하고, 온갖 [혜로운 것들로] 뒤덮여 있고,
미혹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멀리 벗어남'과는 거리가 멀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버리기란 어렵다.

(773) 욕망에 기반을 두고,
존재의 즐거움에 묶여있는 그들은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래나 과거에 관하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금이나 또는 이전의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고 있다.

(774)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열중하는 사람들은,
미혹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든다.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면 슬픔으로 비탄해 한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면서.

(775)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한다.
세상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은 짧은 것이라고 현자는 말하지 않았던가.

(776) 세상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갈애에 빠져서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저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갈애를 떠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해 울고 있다.

(777)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물이 말라 가는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취하지 말고,
존재들에 대한 집착을 만들지 말라.

(778)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의 작용(觸, 觸)을 잘 알아서 탐내지 않으며,
스스로 책망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779) 지각(識, 識)을 철저히 이해하면, 거센 물결을 건너리라.
성인은, 소유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뽑아 버렸고,
방일함 없이 유행하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35) [세존] “공포는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생긴다.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라. 나는 말하리라, 나의 절박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절박감에 의해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936) 물이 말라가는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들을 보고,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났다.

(937)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영원한] 실체는 없었고,
어느 방향이나 모두 흔들리고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안전한] 처소를 찾았지만,
[괴로움에 점령되지 않은 어떤 장소도 나는 보지 못했다.

(938) 마지막까지도 적대하는 그들을 보고, 나의 마음은 편찮았다.
그러자 나는 여기에서, 보기 어려운 것을 보았다,
심장마음에 편안히 자리 잡고 있는 화살을.

(939) 그 화살을 맞은 지는 온 방향으로 치달린다.
그러나 그 화살을 뽑아 버리면, 그는 치달리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다.

(940)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배움[학습]이 암송된다.
‘세상에 어떤 속박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감각적 쾌락들을 꿰뚫어 보고, 오직 자신의 열반을 위하여 배워 익혀라.’

(941) 그는 진실해야 하고, 오만하지 않아야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성냄이 없이 탐욕과 인색의 사악함을 건너야 한다.

(942) 마음이 열반으로 향해있는 사람은,
졸음과 해태와 혼침을 극복해야 하며,
방일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거만을 부려서도 안 된다.

(943)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물질[형생]에 애착을 갖지 말라. 아만심을 철저히 알고, 무모하지 말라.

(944) 지나간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좋아함을 만들지 말라.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잡아끄는 [갈애]에 붙잡히지 말라.

(945) 탐욕은 거대한 홍수이고, 갈망은 빠른 물살이며 근거지이고,
넘기 어려운 감각적 쾌락의 높이라고 나는 말한다.

(948)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속박인 감각적 쾌락을 뛰어넘고,
[윤회]의 흐름을 끊고, 얽매임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949)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은 완전히 말려 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만약 중간[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하게 유행하리라.

(950) 명색[정신과 물질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다.

(951)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는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952) 동요함이 없는 사람에 관하여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의 훌륭한 공덕은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거칠지 않고, 탐내지 않으며, 충동적이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하다.’라고.

(953) 충동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위적 행위도 없다.
그는 유위적 행위를 삼가므로, 모든 곳에서 평안을 본다.

(954) 성인은 자신이, 동등한 자 속에, 열등한 자 속에,
또는 우월한 자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평온하고 관대하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제1절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고성제(苦聖諦)]

앞의 <초전법륜 경>에 기술되어 있듯이, 부처님께서서는 ‘괴로움’을 여덟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① 태어남 ② 늙음 ③ 병 ④ 죽음 ⑤ 싫은 것과 만남 ⑥ 좋은 것과 헤어짐 ⑦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⑧ 요컨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자체라고 하셨다.

위 8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경전 DN22 <대념처 경>과 MN141 <진리의 분석 경>을 참조 바라며, ⑧번 항목에 대하여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섯 가지의 무더기 즉 오온인데, 이 오온 자체는 무상(無常)한 것으로서 항상 생멸하며 변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온을 ‘나’라고 알고 거기에 취착할 때의 오온[내]을 오취온이라 하며, ‘오취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말은, 매사에 ‘나’라는 의식에 취착하면서 욕망갈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고성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오취온 자체가 왜 괴로움인지, 또한 그 괴로움 자체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우선 명확하고 철저하게 알아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있고, 그리해야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 괴로움이라는 진리는, 사성제의 네 가지 진리가 다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이나 개념이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직접 알고 보아야만, 즉 교리와 수행을 배우고 닦아서 모든 현상을 통찰하여 그 실상을 증득해야만 이 진리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계의 삶을 ‘괴로움’이라고 천명하시면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 지고의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이다.

☞ ‘고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 되어있는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61) ‘이것은 속박이다.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적고 만족은 없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라고 분명히 알아, 현명한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3품 8경 <화살 경>

(574) 죽기 마련인 인간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짧으며 괴로움으로 묶여있다.

(575) 태어난 존재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늦게 되어있고,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들의 운명은 이렇하다.

(576) 익은 과일은 결국에는 떨어진다. 이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죽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38)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혹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739)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알고,
‘허망한 것으로서 부서지기 마련인 것’임을 알아,
느낌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의 사라짐을 보아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들을 부수어,
비구는,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766) 인간이 감각적 쾌락을 원할 때에, 그 욕구가 이루어지면,
그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기쁘다.

(767)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 감각적 쾌락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승 경>

(774)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열중하는 사람들은,
미혹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든다.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면 슬픔으로 비탄해 한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면서.

(776) 세상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갈애에 빠져서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저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갈애를 떠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해 울고 있다.

• 제4품 6경 <늡음 경>

(804) 아! 참으로 짧구나, 인간의 생명이며. 백 년도 못 살고 죽으니.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늡어서 죽는 것을.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3) [세존] “아지따여, 세상은 무명으로 덮이어 있다.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
갈망이 세상을 더럽힌다고 나는 말하며,
괴로움이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다.”

• 제5품 11경 <갹빠의 질문>

(1092) [갹빠] “아주 위험한 홍수가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늡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존자님, 의지할 수 있는 ‘섬[피난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섬에 대해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제5품 17경 <뺽기야의 질문>

(1120) [뺽기야] “저는, 늡고 기력도 없고 용모도 바랬습니다.
눈은 잘 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기로(岐路)에서 헤매다가 이대로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늡음을 버리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제2절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집성제(集聖諦)]

앞에서 기술했듯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갈애 때문이고, 갈애란, ‘다시 태어남을 생겨나게 하고, 즐거움과 탐욕[의 성품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라고 정의 된다.

갈애가 일어나는 곳과 갈애가 자리잡는 곳에 대하여, 경전DN22〈대념처경〉에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 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갈애는 일어나고 그곳에서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눈·귀·코·혀·몸·마노의 여섯 감각기관[六根], 여섯 감각대상[六境], 여섯 식[六識], 그리고 이들[18界]의 감각접촉[三事化合, 팻사], 느낌, 지각, 의도 등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으로서, 그곳에서 갈애는 일어나고 그곳에서 자리 잡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집성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완전히 버려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갈애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버려져야 되고 포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갈애이지만, 이 갈애는 무명을 조건으로 일어남으로,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집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 하나

제2품 5경 〈수짚로마 경〉

◎ 제2품 5경 〈수짚로마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가야에 있는 땅끼따만짜에서 수절로마라는 야차의 집에 계셨다. 그때 야차 카라와 야차 수절로마가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야차 카라가 야차 수절로마에게 말했다. “이분은 사문이다.” “아니다. 그는 사문이 아니다. 그가 사문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 그는 엉터리 사문이다.” 그래서 야차 수절로마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와서 세존께 몸을 구부렸다. 그때 세존께서는 몸을 피하셨다.

“그대는 나를 두려워하는 군요, 사문이어.”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벗이여. 그러나 그대의 부딪침은 좋지 않다.” 야차 수절로마가 말했다.

“사문이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당신의 심장을 찢거나, 또는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내 심장을 찢거나,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그러나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 보라.” 야차 수절로마는 세존께 계승으로 여쭙었다.

(270) “욕망과 미움이 일어나는 근원은 어디입니까?

즐거움과 불쾌함과 소름 끼치는 전율들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갖가지 마음의 생각들[마노 위딱개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일어납니까?”

(271) [세존] “욕망과 미움이 일어나는 근원은 여기[자기 자신]이고,

즐거움과 불쾌함과 소름 끼치는 전율들도 여기에서 일어난다.
마치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갓가지 마음의 생각들도 여기에서 시작하여 일어난다.

(272) 벵골보리수 가지에서 싹이 움터 뻗어나간 것처럼,
그것들은 애정에서 생겨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치 칙덩굴이 숲속으로 퍼져나가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얽매어 있다.

(273)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근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한다.
야차여 들어라,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건너기가 무척 힘들고 또한 이전에 건넌 적이 없는,
그 거센 흐름을 건넌다.”

☞ ‘집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계송들

• 제1품 2경 <다니아 경>

(34) [세존]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은 슬픔을 가져오므로,
‘집착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36) 서로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생기고,

애정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살펴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0) 참으로 감각적 쾌락들은, 현란하고 감미로우며 즐거워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 속에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9경 <혜마와따 경>

(169) [세존] “혜마와따여,
세상은 여섯 가지[여섯 감각 장소]로 인하여 생기며,
이 여섯 가지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에 집착하며,
이 여섯 가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30) 안과 밖으로,
고통의 뿌리인 희론과 명색(名色)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또한 고통의 뿌리인 속박[갈애]에서 벗어난 자,
그런 사람은 그 때문에, ‘잘 아는 자’라 불리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의 경>

(740) “갈애를 벗 삼는 사람은,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41) 괴로움은 갈애로 인해 생김으로, 그것의 위험함을 알아서,

비구는, 갈애를 버리고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승 경>

(776) 세상 사람들이,

존재에 대한 갈애에 빠져서 떨고 있는 것을 나는 본다.

저열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존재에 대한 갈애를 떠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해 울고 있다.

• 제4품 6경 <늪음 경>

(805) 사람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소유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겪는다. 그러나 영원한 소유란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

집에서 안주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라.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6) [세존] “지혜로운 자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애들이라도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자신을 수련하여야 한다.”

• 제5품 5경 <멧따구의 질문>

(1050) [세존] “멧따구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물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형태의 괴로움들은

집착을 인연하여 생겨난다.

(1051) 집착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하여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발단이며 발생 원인임을 통찰하여,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 제5품 6경 <도따까의 질문>

(1068) [세존] “도따까여,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세상에서의 묶임[속박]이라고 알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키지 말라.”

• 제5품 17경 <뺱기야의 질문>

(1123) [세존] “뺱기야여,
사람들이 갈애에 빠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늡음에 짓눌려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러므로 뺱기야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갈애를 버리도록 하라.”

상기한 계송들 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들로서, 재생의 토대·무명·형성·의식·접촉·느낌·갈애·집착·동기·자양분·동요·의지함·존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원전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본서 제1장, 페이지21)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제3절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滅聖諦)]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는,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을 말한다. 그러면 이 갈애는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디에서 소멸되는가? 갈애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집성제 참조]에서 없어지고 그곳에서 소멸된다고 하셨다.

멸성제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실천·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서는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다.

갈애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를 열반이라 하며, 열반에 도달한 사람을 아라한이라 한다. ‘열반’에 대하여는, 열반과 관련있는 원전의 계송들을 취합하여서 뒤에(페이지 60) 자세히 살펴보겠다.

☞ ‘멸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둘

- 1) 제1품 1경 <뱀 경>
- 2) 제2품 12경 <왕기사 경>

◎ 제1품 1경 <뱀 경>

(1)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약초로 제거하듯이,

치솟는 분노를 제거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2) 연못 속에 들어가 연꽃과 줄기를 모두 꺾듯이,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린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3) 급류의 흐름을 말려 버리듯,
갈애를 뿌리째 뽑아버린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4) 거센 물결이, 약한 갈대로 만든 다리를 부수어버리듯,
아만(我慢)을 남김없이 부수어버린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5) 무화과나무에서 꽃을 구해도 찾을 수 없듯이,
존재들 가운데서 어떠한 실체도 찾아내지 못하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6) 안으로 성냄이 없고,
존재의 이런저런 형태들을 초월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7) 사유(위딱끼)를 불살라 없애고,

안으로 완벽하게 절제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8)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모든 희론(戲論)을 초월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9)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아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0)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고,
탐욕(貪, 로바)에서 벗어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1)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고,
욕망(라가)에서 벗어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2)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고,
성냄(瞋, 도사)에서 벗어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3)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는 것을 알고,
어리석음[癡, 모하]에서 벗어난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4) 잠재적 성향이 전혀 없고,
해롭고 불선한 뿌리를 뽑아버린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5)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고뇌에서 생긴 것들’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6) 존재에 속박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욕망에서 생긴 것들’을 조금도 갖지 않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17) 다섯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 고뇌 없이 의혹을 넘어서,
[괴로움의] 화살을 뽑아버린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목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 제2품 12경 <왕기사 경>

[세존께서 알라위에 있는 악갈라와 사당에 머무실 때에, 존자 왕기사의 스승인 니그로다깍빠 장로가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에 왕기사는, '나의 스승은 완전한 열반에 드신 것일까? 아니면 완전한 열반에 드시지 않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세존께 나아가 여쭙는다.]

(343) [왕기사] “최상의 지혜를 가지시고,
바로 이번 생에서 모든 의혹을 끊으신 스승께 여쭙니다.
잘 알려지고, 명망 높고, 안으로 완전히 고요해진 비구가
악갈라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44) 세존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니그로다깍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존께 귀의하고,
해탈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어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353) 가장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알고 계시며,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이 미혹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이,
저는 당신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354) 존자 깍빠가 지녔던 청정한 삶의 목적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혹은 그는 소멸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존의 근원을 남겨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355) [세존] “그는 이 세상에서, 명색(名色)에 대한 갈애를 끊어 버렸다.

오랜 세월 잠재하던 악마의 흐름을 끊고,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
다섯을 갖추어 뛰어난 분이신 세존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다.

(356) [왕기서] “뛰어난 선인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357) 붓다의 제자인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여,
사람들 속이는 악마가 견고하게 펼쳐놓은
죽음의 그물을 찢어 버렸습니다.

(358) 세존이시여,
깜빠 존자는 집착이 발생하는 근원(뿌리)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깜빠 존자는 가장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세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 ‘멸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12경 〈성인 경〉

(211)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며,
매우 지혜롭고, 여러 사물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며,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한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361) 비구가 인간계와 천상에 대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재를 초월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2) [무명의] 덮개를 제거한 청정한 승리자,
가르침에 통달하고, 피안에 이르러, 마음의 충동이 없고,
형성(行, 상카라)의 소멸에 대한 앎에 능숙하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4) 진리를 꿰뚫어 알고, [각각의] 단계를 이해하여,
모든 집착의 제거로 번뇌가 버려짐을 확실하게 본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 제3품 5경 <마가 경>

(495) 참으로 갈애에 사로잡히지 않고,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
'내 것'이라는 지각없이 세상을 유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30) 안과 밖으로,
고통의 뿌리인 희론과 명색(名色)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또한 고통의 뿌리인 속박에서 벗어난 자, 그런 사람은 그 때문에,
'잘 아는 자'라 불리오.

• 제3품 8경 <화살 경>

(593) 화살을 뽑아버리고,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
모든 슬픔을 뛰어넘으면, 슬픔 없는 자로서,
평온[열반]에 이를 것이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49) [세존] “죽기 전에 갈애를 없애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선호할 것이 없다.

(856) 그에게는 ‘의존함’이 없다.

담마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존재에 대한 갈애도,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도 없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48)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속박인 감각적 쾌락을 뛰어넘고,
[윤회의] 흐름을 끊고, 얽매임이 없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 제5품 3경 <뗏목 뗏메이아의 질문>

(1042) [세존] “그는 양쪽 끝을 곧바로 잘 알고,
지혜로써,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갈애를 초월해 있다.”

• 제5품 5경 〈뗏따구의 질문〉

(1060) [세존]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한 자로서, 여러 형태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갈애가 없고, 고뇌도 없고, 원함도 없으며, 태어남과 늙음을 벗어났다고 나는 말한다.”

열반에 관하여

멸성제는 열반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멸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열반(涅槃)이란 용어는 빠알리어인 ‘nibbāna(닙바나)’를 음역한 한자어로서 ‘불이 모두 꺼져버린 상태’를 뜻한다. 즉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갈애가 완전히 소멸 되었다.’는 뜻이다.

경전에서는 ‘열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탐욕의 멸진·성냄의 멸진·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한다.

SN38:1, SN39:1 〈열반 경〉

* 탐욕·성냄·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하여, 일체의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한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이름 한다.

잡아함경 490 〈염부차 경〉

*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다.

SN12:68 〈꼬삼비 경〉

또한 열반을 이룬 아라한들은, ‘태어남은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 해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안다고 한다.

참고로, 열반의 동의어로는, 피안(彼岸), 평온(平穩), 적정(寂靜), 지복(至福), 적멸(寂滅) 등이 있다.

‘열반’과 관계되는 원전의 계송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모아 보았는데, 하나는 ‘열반’을 표현한 계송들이고, 또 하나는 ‘열반’이란 용어가 사용된 계송들이다. 이 계송들을 숙독하면 열반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리라 믿는다.

☞ ‘열반’을 표현한 계송들

• 제1품 11경 <승리 경>

(204) 여기, 몸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비구는, 불사(不死)와 평안을 누리는 부동의 경지인, 열반에 도달한다.

• 제2품 1경 <보배 경>

(235) 과거는 부서져 버렸고, 새로운 시작은 짓지 않으며, 그 마음은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번뇌의 종자를 부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이렇게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이른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 제3품 4경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경>

(467) 모든 감각적 쾌락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열반을 성취하여, 호수의 물처럼 맑고 시원한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 제3품 5경 <마가 경>

(499) 평안을 얻어,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 태어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2)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며,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14) [세존] 사비야여,
스스로 길을 닦아 완전한 열반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넘어,
존재도 비존재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존재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를 ‘비구’라 하오.

(517)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와,
모든 정신적 허구들을 잘 살펴서, 티끌 없이 더러움 없이 청정하여,
다시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깨달은 분’이라 하오.”

(522) 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도 짓지 않고,
모든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해탈한 사람,
참으로 이런 사람을 ‘코끼리’라고 부르오.

(537) 위, 아래, 옆, 혹은 중간 어디에서나,
괴로움의 과보가 생기는 어떠한 행위도 피하며,
완전한 이해와 함께 유행하며,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명색을 끝장내어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
그를 ‘유행자’라 부르오.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15) 집착이 없고, [윤회의 흐름을 끊은 비구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55) 그러나 물질[의 영예]을 잘 알고,
비물질의 상태에도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소멸 가운데에서 해탈하여, 죽음에서 벗어난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61)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며 취하지 않고,
무엇이 없다고 하여 애태우지도 않고, 어떤 일들에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평온한 분’이라 불린다.

• 제4품 13경 <큰 전열 경>

(914) 그는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으로부터,
또한 모든 현상들로부터 초연해 있다.
성인은 모든 짐을 내려놓았고 해탈하였다.

그는 [정신적] 허구에 빠지지 않고,
그만두어야 할 일도 없으며, 갈망할 것도 없다.

• 제5품 4경 <뽀나까의 질문>

(1048) [세존] “뽀나까여,
세상에 있는 높고 낮은[별고 가까워] 모든 것들을 통찰하여,
세상 어디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하고, 연기[피워] 없이, 고뇌 없이, 어떤 원함도 없는 사람,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했다고 나는 말한다.”

• 제5품 7경 <우빠시와의 질문>

(1074) [세존] “우빠시와여,
마치 거센 바람의 힘에 의해 꺼져버린 불꽃은,
소멸되어서, [무엇이라] 헤아려지지 못하듯,
정신적 무리로부터 해탈한 성인은,
소멸되어서, [무엇이라] 헤아려지지 못한다.”

(1075) [우빠시와] “그러면 소멸해 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원래대로 영원히 있는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진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076) [세존] “우빠시와여,
소멸해 버린 자에게는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그를,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모든 현상들이 끊어지면,
모든 언어의 길도 또한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 제5품 9경 <혜마까의 질문>

(1086) [세존] “혜마까여,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감지된 것, 지각된 것들과,
또한 즐겁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 제5품 10경 <또테이야의 질문>

(1088) [또테이야] “어떤 감각적 욕망도
[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갈애도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의 해탈은 어떤 것입니까?”

(1089) [세존] “또테이야여,
어떤 감각적 욕망도 [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갈애도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 더 이상의 해탈은 없다.”

• 제5장 11경 <깎빠의 질문>

(1094) [세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지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섬’이다.
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종식이다.”

위 계송들 이외에 ‘열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앞에 수록한 원전의 제1품 1경 <뱀 경>(페이지 52)의 계송 전부와, 본서 제3부 3장 <성인과 성인의 삶>(페이지 338)의 내용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 ‘열반’이란 용어가 사용된 계송들

• 제1품 5경 <쫓다 경>

(86) [세존] “의혹을 넘어서고,
번뇌의 화살을 벗어나고, 열반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탐욕도 없이,
신들을 비롯한 이 세상을 안내하는 사람,
붓다들은 그를 ‘길의 승리자’라고 말한다.”

•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186) [세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라한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으며 주의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 제2품 1경 <보배 경>

(233) 이른 여름의 첫더위에 우거진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우듯,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이 되는 열반에 이르는
오묘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훌륭한 보배는 붓다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67) 부지런히 정진하며, 청정하게 살고,
거룩한 진리를 통찰하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365) 말과 생각과 행위에 어긋남이 없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 제3품 3경 <잘 설해진 말씀 경>

(454) [왕기사] “열반의 성취를 위하여,
괴로움의 종식을 위하여,
세존께서 설하신 안온한 말씀은,
참으로 모든 말씀 중에서 으뜸입니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35) [세존] “괴로움은 식(識)을 조건으로 일어나므로,
비구는 그 위험함을 알아서, 식을 고요히 가라앉혀, 갈망 없이,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758) “그러나 열반은 그 본성이 허망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분들은 이것을 진리로 안다.
그들은 진리를 꿰뚫어 이해하기 때문에,
갈애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

• 제4품 7경 <뗏목 밧배이야 경>

(822) 오로지 홀로 떨어져 수행하라.

이것은 모든 거룩한 이들에게 으뜸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최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워져 있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5) [질문자] “태양족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께,

홀로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는 일과,

평안의 경지에 대해 여쭙니다.

비구는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반을 이룹니까?”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40)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배움[학습]이 암송된다.

‘세상에 어떤 속박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감각적 쾌락들을 꿰뚫어 보고,

오직 자신의 열반을 위하여 배워 익혀라.

(942) 마음이 열반으로 향해있는 사람은,

즐음과 해태와 혼침을 극복해야 하며,

방일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거만을 부려서도 안 된다.

• 제5품 6경 <도따가의 질문>

(1062) [세존] “그렇다면, 도따가여, 열심히 노력하라.

사려 깊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사띠를 지니도록 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는 자신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 제5품 11경 <갑빠의 질문>

(1093) [세존] “갑빠여,
아주 위험한 홍수가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의 가운데에 서있는 사람들,
그리고 늡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섬’에 대하여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1094)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지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섬’이다.
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늡음과 죽음의 종식이다.”

• 제5품 14경 <우다야의 질문>

(1108) [우다야] “세상은 무엇에 의해 속박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림으로써 ‘열반’이라고 말해집니까?”

(1109) [세존] “세상은 즐거움[즐김]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갈애를 버림으로써 ‘열반’이라고 말해진다.”

제4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道聖諦)]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닦아야 하는데, 그 길은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팔지성도] 즉 팔정도를 말하며, 그것은, 바른 견해·바른 사유·바른 말·바른 행위·바른 생계·바른 노력·바른 사띠·바른 삼매의 여덟 가지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도성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은 닦아져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 뜻은, 우리가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 시키려면, 모든 현상과 사물의 실상(本相)을 있는 그대로 보고(如實之見) 이들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해 나가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 시켜야 가능해 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여덟 가지 항목을 실천·수행해야만 된다는 말씀이다.

원전(숫따니빠따)에는 ‘팔정도’라는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모두 이 여덟 가지 항목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팔정도에 관하여는, 본서 제1부 제2장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에서 별도의 장으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 ‘도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알라위국에 있는 야차 알라와까의 처소에 계셨다. 그 때 야차 알라와까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들어가셨다.

두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들어가셨다.

세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주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나가셨다.

“사문이여, 들어오시오.” “좋다, 친구여.” 세존께서는 들어가셨다.

네 번째에도 야차 알라와까가 말했다.

“사문이여, 나가 주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더 나가지 않겠다. 그대가 할 일이나 하라.”

야차 알라와까가 말했다.

“사문이여,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또는 당신의 심장을 찢거나, 또는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지겠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친구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세계에서, 그리고 사문, 바라문,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내 심장을 찢거나, 두 다리를 붙잡아 갠지스강 건너로 내던질만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노라. 친구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물어 보라.”
야차 알라와까는 세존께 시로써 여쭙었다.

(181) [야차 알라와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행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입니까?”

(182) [세존] “믿음이 사람에게 으뜸가는 보물이다.
담마[가르침]를 잘 실행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진실은 맛 중에서 실로 최고의 맛이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말한다.”

(183) [알라와까] “사람은 어떻게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건넵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184) [세존]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며,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바다를 건넌다.
노력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하며,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해진다.”

(185) [알라와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슬픔이 없습니까?”

(186) [세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라한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으며 주의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187) 합당한 것을 행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된다.
진실로써 명성을 얻고,
베풀어서 이로움을 주게 되면 친교를 맺게 된다.

(188) 신심(信心) 있는 재가자가,
네 가지 덕성 즉 진리, 담마, 굳은 결의, 베품을 갖추면,
그는 저 세상으로 가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189) 만일 이 세상에서,
진리, 자제(自制), 베품, 그리고 인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널리 사문들과 바라문들에게 물어보라.”

(190) [알라와께] “무엇 때문에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앞으로의 삶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91) 붓다께서 알라위에 오셔서 머무르심은,
진정 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베풀면 위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2) 온전히 깨달으신 분과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예경 드리면서,
저는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두루 다니겠습니다.”

도성제와 관련된 계송들로는, 원전 제5품 <피안으로 가는 길 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들은 본서 제3부 제4장 <피안으로 가는 길>에 그 경 전체를 실었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몇 계송들을 모았다.

☞ ‘도성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3품 8경 <화살 경>

(591)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 버리듯이,
단호하고 지혜롭고 능숙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일어난 슬픔을 즉시 날려 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 버리듯이.

(592)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비탄과 한탄[불만]과 실의를 날려 버려라.
[괴로움의] 화살을 뽑으라.

•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771) 그러므로 언제나 사띠를 확립하고, 감각적 쾌락을 피해야 한다.
그것들을 떨쳐버리면, 마치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고 피안에 도달하듯,
[윤희의 거센 물결을 건너게 되리라.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6) [세존] “지혜로운 자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애들이라도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자신을 수련하여야 한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49)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은 완전히 말려 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만약 중간[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하게 유행하리라.

• 제5품 5경 <멧따구의 질문>

(1055) [세존] “멧따구여,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에 대한 즐김과 애착을 몰아내라.
[그러하면 식(識, 윈나)은 존재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1056) 이와 같이 머물고, 사띠를 지니고,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건너서,
바로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 제5품 7경 <우빠시와의 질문>

(1070) [세존] “우빠시와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통찰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없다’에 의지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라.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밤낮없이 갈애의 소멸을 살펴보라.”

• 제5품 12경 <자뚜간니의 질문>

(1098) [세존] “자뚜간니여, ‘버림[포기]’을 안온으로 보아,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버리도록 하라.
그대에게는, 어떤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도록 하라.

(1099) 과거에 속한 것은 말려 없애고,
미래에 오는 것은 어떤 것도 주워 담지 말라.
중간[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온하리라.”

• 제5품 13경 <바드라우다의 질문>

(1103) [세존] “바드라우다여,
위나 아래나 또는 중간 어느 곳에서나,
갖고[얻고] 싶어 하는 갈애를 제거하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악마[마래]가 그를 뒤쫓게 된다.

(110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꿰뚫어 알고, 사띠에 머무는 비구는, 일체의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얻는 것에 빠져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죽음의 영역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관찰하면서.”

• 제5품 14경 <우다야의 질문>

(1106) [세존] “우다야여, 두 가지의 버림, 즉 감각적 욕망과 고뇌,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그리고 해태를 쫓아 버리고, 회한을 품지 말며,

(1107) 평정심과 사띠에 의해 청정해지고, 담마에 대한 탐구에 의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지혜에 의한 해탈’이고, ‘무명을 부숩’이라고 나는 말한다.”

• 제5품 17경 <뺱기야의 질문>

(1123) [세존] “뺱기야여, 사람들이 갈애에 빠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늙음에 짓눌려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러므로 뺱기야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갈애를 버리도록 하라.”

제2장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

[팔정도(八正道)]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의 정확한 표현은 ‘팔지성도(八之聖道)’이고 흔히 줄여서 팔정도라고 하는데, 본서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팔정도’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사성제라 할 수 있듯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로 팔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앞의 제1장 4절 도성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서는, 최초의 설법인 <초전법륜 경>에서 다섯 비구에게 팔정도를 설하셨으며, 그 이후 45년간 항상 팔정도를 강조하셨고, 입멸(무여열반)하시기 직전에 수뱃다라는 장자에게도 최후의 설법으로 팔정도를 설하셨다.

(DN16 <대반열반 경>)

그만큼 부처님께서서는 언제나 팔정도를 중심에 두고 가르침을 설하셨다.

팔정도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하신 경이 SN45:8 <분석 경>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비구들이여, 무엇이 여덟 가지 성스러운 도인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이다.

1)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 ① 괴로움에 대하여 아는 것
- ②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아는 것
- ③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아는 것
- ④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2)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 ① 출리를 사유하고
- ② 악의 없음을 사유하고
- ③ 해침 없음을 사유하는 것이다.

3)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 ① 거짓되게 하는 말을 삼가고
- ② 이간질 하는 말을 삼가고
- ③ 거친 말을 삼가고
- ④ 잡담 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다.

4)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 ①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삼가고
- ②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삼가고
- ③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다.

5)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활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6)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 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 ② 이미 일어난 해로운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 ③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선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 ④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이다.

7)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 ①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관찰(身隨觀)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앎(삼빠잔나)과,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머문다.
- ② 느낌에서 느낌을 따라가면서 관찰(受隨觀)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앎(삼빠잔나)과,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머문다.
- ③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면서 관찰(心隨觀)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앎(삼빠잔나)과,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머문다.
- ④ 담마에서 담마를 따라가면서 관찰(法隨觀)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앎(삼빠잔나)과,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머문다. 이를 일러 바른 사띠라 한다.

8)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 ① 감각적인 욕망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 멀리 벗어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으로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 ②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된 상태가 되어,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으로 두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 ③ 기쁨도 사라진 후, 사띠와 분명한 앎을 지니고, 평정함에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니,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함과 사띠를 지닌 자는 행복하게 머무른다.’라는,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 ④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그 이전에 희열과 고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정심으로 사띠가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그와 같이 붓다께서 설하시자, 비구들은 기쁨에 넘쳐 붓다의 그 말씀에 크게 환희하였다.

SN45:8 <분석 경>

팔정도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경전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DN22 <대념처 경>, MN141 <진리의 분석 경>,

MN117 <위대한 마흔 가지 경>

팔정도는, 여덟 가지 닦아야 할 실천 덕목으로서, 항목 하나하나가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모두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불완전하게 닦으면 나머지 일곱 항목 전부도 불완전하게 되어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팔정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교학과 수행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닦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숫따니빠따에는 팔정도를 주제로 하여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서술한 별도의 경은 없다.

하지만 원전(숫따니빠따) 제5품 <피안으로 가는 길 품>에는 ‘도성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계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송들은 여기에 신지 않고, 본서 제3부 4장 ‘피안으로 가는 길’에 원전 제5품 전부를 실었다.

여기서는 팔정도에 관한 전반적이며 개괄적인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래 두 개의 경을 모았다.

☞ ‘팔정도’와 연관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 둘

- 1) 제1품 9경 <헤마와따 경>
- 2) 제2품 9경 <계행이란 무엇인가 경>

◎ 제1품 9경 <헤마와따 경>

(153) [야차 사따기라] “오늘은 십오일 보름, 포살(布薩) 날, 신성한 밤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신 고타마를 뵈러 가자.”

(154) [야차 헤마와따] “그의 마음은 일체의 중생들에 대하여 잘 기울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잘 절제하고 있을까?”

(155) [야차 사따기라] “그의 마음은 일체의 중생들에 대하여 잘 기울어져 있다. 또한 그는,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잘 절제하고 있다.”

(156) [야차 헤마와따] “그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하는가?

그는 방일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까?

그는 선정을 버리고 있지 않을까?”

(157) [야차 사따기라] “그는 주어지지 않는 걸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한다.

그는 방일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붓다는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158) [야차 헤마와따]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말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잡담을 하지 않을까?”

(159) [야차 사따기라]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친 말을 하지도 않으며, 또한 이간질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 되고 유익한 것을 말한다.”

(164) [야차 사따기라] “성자의 말씀은 말과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자, 우리는 밝은 지혜와 바른 덕행을 갖추신 고타마를 뵈러 가자.”

(165) [야차 헤마와따] “시슴의 정강이처럼 야위었으나

강건하고, 적게 드시며, 탐내는 일 없이,

숲속에서 수행하시는 성인, 우리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166) 감각적 욕망을 거들떠보지 않고,

마치 사자나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분께 가서,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쭙어보자.”

(167) [야차 사따기라, 야차 헤마와따]
“담마를 가르치시고 해설하시는 분,
모든 현상의 저 언덕[피안]에 도달하신 분,
증오와 두려움을 뛰어넘으신 분이,
그분 고타마께 우리는 여쭙어보자.”

(168) [야차 헤마와따] “세상은 무엇에서 생겼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친교가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169) [세존] “헤마와따여,
세상은 여섯 가지[여섯 감각 장소]로 인하여 생기며,
이 여섯 가지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에 집착하며,
이 여섯 가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170) [야차 헤마와따]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집착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71) [세존] “세상에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과

여섯 번째인 마음[마노]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172) 이제,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여실히 설명하고 제시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천명하나니,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173) [야차 헤마와따] “이 세상에서

누가 거센 물결을 헤치고 건너갑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큰 바다를 건너갑니까?

의지할 곳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174) [세존] “항상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안으로 성찰하고,

사피를 지니고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다.

(175)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지각[慧]에서 벗어나고,

모든 족쇄에서 벗어나, 존재에 대한 욕구를 소멸시킨 사람,

그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는다.”

(176) [야차 헤마와따]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과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나 해탈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仙人)을 보라.

(177) 최상의 명성을 가진 분, 미묘한 뜻을 보며,
지혜를 가르쳐 주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매우 지혜로운,
거룩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178) 참으로 우리는 오늘 멋진 광경을 보았고,
상쾌한 아침, 훌륭한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거센 물결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온전히 깨달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79) 여기 저희 일천의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성도 갖고 있지만, 모두가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위없는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180) 온전히 깨달으신 분과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예경 드리면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두루 다니겠습니다.”

◎ 제2품 9경 <계행이란 무엇인가 경>

(324) 어떤 계행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하며,
어떤 행위를 닦아야만, 사람이 바르게 정립되고
또 최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325) 순위 어른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들을 찾아뵙는 적당한 때를 알아야 한다.

법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면

잘 설해진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라.

(326) 거만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적합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가르침과 그 의미와, 자제와 청정한 삶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를 실천하라.

(327) 가르침 속에서 기뻐하고, 가르침과 함께 기뻐하며,

가르침에 확고히 머물고, 가르침의 참 뜻을 알고,

가르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하게 설해진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라.

(328) 웃음, 농담, 비탄, 성냄, 허위, 사기, 탐욕,

오만, 격분, 폭언, 더러움, 탐닉을 버리고,

허망 됨 없이, 자신의 내면을 확고히 하여 살아가라.

(329) 이해가 되는 내용은 훌륭히 설해진 말씀의 핵심이며,

삼매는, 배우고 이해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방일하면 배움도 지혜도 자라나지 않는다.

(330) 거룩한 분께서 가르치신

진리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뛰어나다.

평온과 온화와 삼매에 안주하면서,

그들은 배움과 지혜의 핵심에 도달한다.

제1절 바른 견해 [정견(正見)]

바른 견해란, '괴로움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아는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성제의 내용 전체를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것이 바른 견해이다.

한편 경전(MN117 <위대한 마흔 가지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상기한 바른 견해 이외에, 세간적인 바른 견해도 설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시의 공덕이 있고, 재계의 공덕이 있으며, 선행과 악행이 있고, 선행·악행의 과보가 있으며,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며, 부모가 있고, 중생의 태어남이 있으며, 세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있다.'라고 아는 것이다.”

불교를 공부할 때는 항상 바른 견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팔정도의 나머지 일곱 항목이 모두 샅된 길로 가게 되어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확고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성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하고 자주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견해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숫따니빠따에는 바른 견해에 관한 단독 경은 없지만, '견해'라는 주제의 본질에 관하여 심도 있게 설하신 내용으로 아래 일곱 개의 경이 있다.

☞ '견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일곱

- 1) 제4품 3경 <사악한 생각에 대한 여덟 계송 경>
- 2) 제4품 4경 <칭정에 대한 여덟 계송 경>
- 3) 제4품 5경 <최상에 관한 여덟 계송 경>
- 4) 제4품 8경 <빠수라 경>
- 5) 제4품 9경 <마간디아 경>
- 6) 제4품 12경 <작은 전열 경>
- 7) 제4품 13경 <큰 전열 경>

◎ 제4품 3경 <사악한 생각에 대한 여덟 계송 경>

(780)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불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남을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남을 비방한다.
 그러나 성인은 일어난 토론(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어디에서도 장애가 없다.

(781) 욕망에 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안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견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782)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행과 준수를 말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선한 분들은, 그를 두고, 천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783) 마음이 평안하고 완전히 고요해진 비구는,

자신의 계행에 대해, '나는 이리하다' 하면서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다.
선한 분들은, 그를 두고,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한다.

(784)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구성하고 개선하고 선호하는 자는,
자신을 위한 이득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안정한 평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785) 견해에 대한 집착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여러 교리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택했으므로
[그 견해를] 강하게 움켜잡는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집착들에 근거하여,
그는 교리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786) 청정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서든
존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하여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
위선과 교만을 버려 청정해진 그가, 또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가,
어찌 잘못된 길로 가겠는가?

(787) [견해에] 속해있는 사람은 교리들에 관한 논쟁에 휩쓸린다.
그러나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무엇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겠는가.
그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는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 모든 견해들을 떨쳐 버렸다.

◎ 제4품 4경 〈청정에 대한 여덟 계송 경〉

(788) ‘나는, 지극히 건전하고 청정한 사람을 본다.
사람은 그가 본 것에 의해 완전한 청정함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서 (그는), ‘이것이 최고의 청정이다’,
‘나는 청정을 보는 자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지식을 최고의 견해라고 믿는다.

(789) 만일 사람이, 본 것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면,
또 지식에 의해 괴로움을 버릴 수 있다면,
집착의 대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길 이외의 다른 길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견해라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를 드러내 보인다.

(790) 지혜로운 이는,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계행이나
준수나 지각한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청정함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공덕과 악행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취한 것을 놓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업]도 짓지 않는다.

(791) 이전 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동요하는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집착을 뛰어넘을 수 없다.
마치 나뭇가지를 붙잡았다가 놓아 버리는 원숭이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붙잡았다가 놓아 버린다.

(792) 자기 스스로 발원을 세우고,
[자신의 인식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저기로 간다.
그러나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은,
지혜에 의해 진리를 이해하므로, 여기저기로 가지 않는다.

(793) 그는 보거나 듣거나 지각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것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러한 통찰과 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를 [어디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794) 그들은 [이론을] 만들지 않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지도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청정'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결박되어 있는 모든 집착의 굴레를 풀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갈망을 만들지 않는다.

(795) 경계를 뛰어넘어, 알고 [또한] 보는 거룩한 분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욕망에도 탐착하지 않고,
욕망을 떠났다는 것에도 탐착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최고'라며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 제4품 5경 <최상에 관한 여덟 계송 경>

(796) 여러 견해들 중에서 자신의 견해가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면서,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긴다.
그는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797) 본 것, 들은 것, 계행과 준수, 그리고 지각한 것,
이러한 것들 속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이든 유익함이 있다고 보면,
그는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본다.

(798)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속박이라고, 선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비구는,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
또는 계행과 준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799) 지식이나 계행이나 준수에 의거하여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
자신을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다 열등하다거나,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800) 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식에 조차도 특별히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일이 없고,
결코 어떤 견해도 빠지지 않는다.

(801) 이 세상의 양극단에 대해서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여러 존재에 대해서도, 그는 원하는 바가 없다.

그는 여러 교리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안주하는 일이 결코 없다.

(802)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지각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소한 개념도 만들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성인을,
이 세상에서 어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는가.

(803) 그들은 [견해를] 세우지 않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지도 않으며,
교리들마저도 취하지 않는다.

또한 계행이나 준수들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분은 피안에 이르러,
다시는 [윤회하는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 제4품 8경 <빠수라 경>

(824) 그들은 ‘이것만이 청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가르침 가운데는 청정함이 없다고 말한다.
자기가 따르고 있는 것만을 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진리에 고착되어 있다.

(825) 그들은 토론[논쟁]을 좋아하고,
집회에 나가 서로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비방한다.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며,
논쟁에서 이겨 칭찬을 받고자 스스로를 달인이라 자칭한다.

(826) 집회에서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지고, 이기고자 애를 씌므로, 그는 불안한 상태가 된다.
그의 주장이 논파당하면 그는 굴욕을 느낀다.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 흥분하여 상대방의 흠집을 찾는다.

(828) 이러한 논쟁이 수행자들 사이에 일어나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다.
이것을 보고 살펴, 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칭찬을 받는 것과 이겼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829) 그렇지만, 대중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것으로 칭찬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바라던 이득을 얻었으므로,
쾌감의 전율을 느끼고 아만심으로 우쭐해진다.

(830) '아만심이 고통의 근본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부심과 교만심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 살펴,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선한 분들은,
이것에 의해서 청정함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831) 그것은 마치, 왕의 녹을 먹고사는 용사가
포효하며 달려와 적의 병사를 찾아 돌진해 보지만,
거기에는 애초부터 싸울 것이 없었던 것과 같다.

(832)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며,
'이것만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대는 그들에게 말하라.
'논쟁이 일어나면, 여기에는,
그대를 상대해 줄 적병이 없소.'라고.

(833) 그러나 멀리 벗어나 살며,
한 견해로 다른 견해들과 대항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최상이라고 집착하지 않는 그들로부터,
빠수라여,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834) 그대는 지금, 마음속에
순이론적인 견해들을 궁리하면서 사색(추론)에 빠져있다.
그리고 청정한 분과 맞서려고 하고 있지만,
그대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 제4품 9경 <마간디아 경>

[마간디아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황금빛 나는 아름다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세존께
아내로 삼아 달라는 권유를 하자, 이에 세존께서 하신 설법이다.]

(835) [세존] “나는 [예전에], [악마의 세 딸들인] 탄하[갈애], 아라띠[혐오],
라가[탐욕]를 보고 성적 행위에 대한 어떤 욕망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줌과 똥으로 가득 찬 이것을 내가 왜 [원한단 말인가].
나는 두 발로조차 그녀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836) [마간디아] “만약 당신이 여러 왕들이 원했던,
여자나 보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어떠한 견해, 어떠한 계율이나 준수에 의한 삶,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의 다시 태어남을 천명하십니까?”

(837) [세존] “마간디아여, 교리의 근본들 중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나는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견해들을 잘 살피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깊이] 성찰하여,
내 안의 평화를 본 것이다.”

(838) [마간디아] “성인이시여, 당신께서는,
‘만들어진 이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의 평화’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다른 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천명하는지요?”

(839) [세존] “마간디아여, 청정이란,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 또는 계행이나 준수들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 또는 계행이나 준수들이 없어도
[청정해진다고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놓아버리고, 이들 중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평화롭고, 의지하는 바 없이, 존재를 갈구하지 말아야 한다.”

(840) [마간디아] “만약, 청정이란,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 또는 계행이나 준수들에 의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 또는 계행이나 준수들이 없는 것에 의한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혼란스러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해에 의해 청정해집니다.”

(841) [세존] “마간디아여, 그대는 자신의 견해에 의지하여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것들에 강하게 집착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내가 말한 바를] 어렵듯이라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대는 그것을 아주 혼란스럽다고 생각한다.

(842)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그런 생각 때문에 논쟁에 말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차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는 ‘동등하다’든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843) 그런 거룩한 분이 무엇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며,
누구와 논쟁을 하겠는가?
‘동등하다’거나 ‘동등하지 않다’거나 하는 분별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와 논쟁을 벌이겠는가?

(844) 집을 버리고 거처 없이 유행하면서,
성인은 마을 사람들과 친교를 갖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떠나고, 어떤 것을 선호함이 없는 그는,
결핍하면 말다툼이 되는 그런 대화를 사람들과 하지 않는다.

(846)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견해나 의견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행위나 들은 것에 의해 이끌리지 않으며,
집착하는 삶 속으로도 끌려가지 않는다.

(847) 지각[인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속박이 없다.
지혜로 해탈한 사람에게는 미혹이 없다.
그러나 지각과 견해에 붙잡힌 사람들은,
마찰[불쾌]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한다.”

◎ 제4품 12경 <작은 전열 경>

(878) [질문자]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논쟁하며,
다양한 주장들을 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879) 그들은 이렇듯 다투고 논쟁하며,
‘저 사람은 어리석고 달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야말로 달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 중 누구의 주장이 진실한 것입니까?”

(880) [세존] “만약 상대방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그가 어리석고 무식하고 지혜가 뒤떨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지혜가 뒤떨어진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각자의 견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881) 또 만약 자기의 견해로 인해 깨끗해지고,
청정한 지혜를 가진 자, 진리를 터득한 자, 슬기로운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견해는 그런 점에서 똑같이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혜가 뒤떨어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882) 그들은 서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견해를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883) [질문자] "어떤 사람들이 '진리이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거짓이다, 허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 다투고 논쟁합니다.
어째서 사문들은 하나로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884) [세존] "진리는 하나일 뿐, 두 번째 것은 없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는 일이 없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진리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사문들은 하나로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885) [질문자] "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어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실제로 진리는 많고 다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추론을 따르는 것입니까?”

(886) [세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못 지각(인식)된 것들을 제외하면, 진리는 절대 많거나 다양하지 않다. 다만 그들은 여러 가지 견해의 관점에서 추론을 고안하여, ‘이것은 진리’, ‘이것은 거짓’이라는 두 가지를 주장한다.

(887) 본 것이나 들은 것, 계행과 준수, 그리고 지각한 것,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 남을 경멸한다. 독단에 입각하여 상대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888) 상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간주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달인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한다.

(889)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로 우쭐대고, 교만에 도취해 있고, 자기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히 그는 자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왕위에 즉위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완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890) 만약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말에 따라 열등한 자가 된다면, 상대방의 하나인 그 자신도, 같은 이치로,

지혜가 열등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자신이 스스로를,

지식에 통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시문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891) ‘이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은

청정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교도들은 각각 달리 말한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견해에만 집착하여

홍분하고 있는 것이다.

(892) 그들은 ‘여기에만 청정이 있고

남의 가르침에는 청정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교도의 무리들은 오직 자신들의 길만을

완고하게 내세운다.

(893) 자신의 길만을 완고히 주장하면서,

어떤 상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를 어리석고 청정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다툼을 초래할 것이다.

(894) 독단에 의거하고, 자신을 판단의 척도로 삼아,

그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논쟁에 빠져든다.

그러나 모든 독단을 버리고 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툼을 만들지 않는다.”

◎ 제4품 13경 <큰 전열 경>

(895) [질문자]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며,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도 합니까?”

(896) [세존] “이것[칭찬]은 보잘것없어서, 평안을 얻는 데 충분치 못하다.
논쟁의 결과는 두 가지 [칭찬과 비난] 뿐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논쟁이 없는 경지를 안온으로 알아,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897) 일반 사람들이 갖는 세속적인 견해들이 어떠한 것이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가까이하지 않는다.
보이고 들려진 것에 이끌리지 않고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여하겠는가?

(898) 계행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칭정함은 자기 절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계율을 받아 지니고는 그것에 헌신한다.
‘이렇게 수행하자, 그러면 칭정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윤회하는] 존재 속으로 끌려간다.

(899) 만약 그가 계행이나 준수할 사항을 깨뜨리게 되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못 지켰기 때문에 두려워 떴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그는 청정함을 갈망하고 동경한다.
마치 길을 잃은 여행자가 [낙타] 대상을 찾기를 갈망하듯이.

(900) 그러나 모든 계행과 준수를 버리고,
비난받을 행위나 비난받지 않을 행위나 모두 버리고,
청정함도, 청정하지 못함도 구하려 하지 말고,
평화를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어떤 것에도 얽매임 없이 머물러야 한다.

(901) 금욕생활이나 고지식함,
혹은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의존해서,
그들은 목소리 높여 계속 청정함을 부르짖는다.
여러 형태의 존재들에 대한 갈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902) 원하고 구하는 이에게는 갈망이 따르고,
계획을 세워놓은 일들에 대하여는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사람,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을 구하고자 갈망할 것인가?

(908) '나는 안다, 나는 본다, 이것은 바로 이리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견해를 통한 청정에 빠진다.
비록 그가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올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
다른 길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909) ‘본다’라고 할 때, 보는 사람은 명색만을 보는 것인데,
보고 나서는 오직 그것들만을 알게 될 것이다.
많게 보든 적게 보든 그것은 그의 몫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칭정함은 그러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910) 고집스레 [자신의 독단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견해만을 선호하므로, 그를 인도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신이 의존하는 것에만 선(善)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칭정을 말하는 사람,
그는 모든 사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

(911) 현명한 사람은
[바르게 성찰하여 허구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견해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식에 기대지도 않는다.
범속한 모든 세속적인 견해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집착하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한다.

(912) 성인은, 이 세상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산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집착함 없이, 평화롭게 머문다.

(913) 지나간 번뇌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않으며,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독단을 주장하는 일도 없다.
사색적인[순이론적인] 견해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책할 일도 없는 현자는,
이 세상에 의해서 물들여지지 않는다.

(914) 그는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으로부터,
또한 모든 현상들로부터 초연해있다.
성인은 모든 짐을 내려놓았고 해탈하였다.
그는 [정신적] 허구에 빠지지 않고, 그만두어야 할 일도 없으며,
갈망할 것도 없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 ‘바른 견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8경 <자애 경>

(152) 사된 견해 갖지 않고, 계행들을 잘 지키며, 통찰력을 갖추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제거되어,
다시는 윤회하는 태중에 들지 않으리.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38) [사비야] “사문들이 논쟁과 명칭과
개념적 지각에 의존하는 예순세 가지 이설(異說)[사된 견해]을 제압하고,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다.

제2절 바른 사유 [정사유(正思惟)]

바른 사유란, ‘출리를 사유하고[탐욕 없는 사유], 악의 없음을 사유하고[악의 없는 사유], 해치지 않음을 사유하는 것[해침 없는 사유]’이라고 했다.

출리를 사유한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 등의 탐욕이 없는 사유를 말하며, 악의 없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성냄·불만·미워함 등의 적의(敵意)가 없는 사유를 말하며, 해침 없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애와 연민[慈悲]의 마음에서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짓는 세 가지 업, 즉 신업(身業)·구업(口業)·의업(意業) 중에서, 바른 사유는 마음으로 짓는 업 즉 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일어나는 생각을 잘 관찰(사띠)하여 불선업(不善業)을 짓지 않도록, 항상 ‘바른 사유’를 실천해야 한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보살이었을 적에, 모든 사유(생각)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실천하셨는데, ① 바르지 못한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참으로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둘 모두를 해치며, 지혜를 사라지게 하고, 번거로우며 수고로움이 많아 열반을 증득하지 못한다.’라고 숙고하여 일어날 때마다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없었으며, ② 바른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참으로 나와 남과 둘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지 않으며, 통찰지를 증장시키고 곤혹스럽게 하지 않고 열반에 이마지 한다.’라고 꿰뚫어 알았고, 온 밤을 온 낮을 온 낮과 밤을 그것을 거둬 생각하고 거둬 고찰해도 그로 인해 어떤 두려움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둬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둬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고도 하셨다. (MN19 <두 가지 사유 경>)

나쁘고 해로운 사유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경전 MN20 <사유를 가라앉힘 경>을 참조 바란다.

원전에는, 경의 내용 전체가 ‘바른 사유’에 관련된 단독 경은 없고, 몇몇 계송들에서 ‘바른 사유’와 연관된 내용들을 모아 보았다.

☞ ‘바른 사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50) 참으로 감각적 쾌락들은, 현란하고 감미로우며 즐거워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 속에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1) 이것이 나에게는

불운이요, 중기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화살이요, 공포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1) ‘이것은 속박이다.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적고 만족은 없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라고
분명히 알아, 현명한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8경 <자애 경>

(145) 현자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며,
[늘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들이 안락하기를!

(148) 어느 누구도 남을 속이지 말고,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남을 경멸하지 않으며,
분노나 악한 생각으로,
남이 고통 받는 것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 제4품 9경 <마간디야 경>

(842)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그런 생각 때문에 논쟁에 말려들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차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는 ‘동등하다’든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35) [세존] “공포는 폭력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생긴다.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라.
나는 말하리라, 나의 절박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절박감에 의해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936) 물이 말라가는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들을 보고,
나에게 두려움이 생겨났다.

(944) 지나간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좋아함을 만들지 말라.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잡아끄는 [갈애]에 붙잡히지 말라.

(951)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는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 제4품 16경 <사리뵏따 경>

(969) 지혜를 앞에 세우고, 선(善)함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여러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외딴곳에 거처하면서 겪는 불만을 참아야 하고,
비탄의 원인이 되는 네 가지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970)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어젯밤 나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집 없이 유행하며 배우는 중에 있는 수행자(有學)는,
이러한 비탄을 야기하는 걱정들을 몰아내야 한다.

제3절 바른 말 [정어(正語)]

바른 말이란, ‘거짓되게 하는 말을 삼가고, 이간질 하는 말을 삼가고, 거친 말을 삼가고, 잡담 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라고 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과 갈애를 소멸시켜야 하는데, 무명을 키우는 자양분은 신(身)·구(口)·의(意) 세 가지 악업인바, 이들 중 입으로 짓는 불선업(不善業)을 짓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바른 말’을 실천·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바른말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탐과 성냄이라는 나쁜 잠재성향이 소멸되어 간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함으로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지 않게 되고, 편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말을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잘 살펴야 한다.

- ① 말을 하고자 할 때: 하려는 말이 해로운 것일 때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유익한 것일 때는 말을 해야 한다.
- ② 말을 하고 있을 때: 해로운 것일 때는 말을 즉시 중지해야 하고, 유익한 것일 때는 말을 계속해도 좋다.
- ③ 말을 하고 난 뒤: 한 말이 해로운 것일 때는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들에게 허물을 실토하고 밝히고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하며, 유익한 것일 때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문다.

(MN61 <암발라타까에서 라홀라를 교계한 경>)

또한 자신의 말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부합되는 것인지, 항상 반조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며 닦아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모이면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나니, 법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MN26 <성스러운 구함 경>)

라고 하셨다.

☞ ‘바른 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 하나
제3품 3경 <잘 설해진 말씀 경>

◎ 제3품 3경 <잘 설해진 말씀 경>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네 가지 특성을 갖춘 말은 잘 설해진 것이지 잘못 설해진 것이 아니며, 결집이 없어,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특성을 설하신다.]

(450) [세존] “훌륭하게 설해진 것은 최상이라고, 참된 분들은 말한다.

이것이 첫째다.

가르침만을 말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둘째다.

유쾌한 것은 말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셋째다.

진실한 것만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넷째다.”

그때 존자 왕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사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문득 시상이 떠오릅니다, 올바로 잘 가신 분(선세이시여).”

“그대에게 떠오른 것을 말해보라, 왕기사여.”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왕기사는 스승 앞에 나아가 적합한 계승으로 세존을 찬탄하였다.

(451)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말만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진실로 훌륭하게 설해진 말씀입니다.

(452)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유쾌하고 좋은 말만을 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생기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453) 진리는, 참으로 영원토록 남는 말입니다.
이는 불멸의 법칙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진리 속에 목표와 가르침이 굳건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454) 열반의 성취를 위하여,
괴로움의 종식을 위하여,
세존께서 설하신 안온한 말씀은,
참으로 모든 말씀 중에서 으뜸입니다.”

☞ ‘바른 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122)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기나 남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5)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그는 천신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도둑인 사람으로,
그야말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내가 그대에게 설명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천한 사람들이라 불린다.

• 제1품 9경 <해마와따 경>

(159) [야차 사따기라]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약담하지도 않으며, 또한 이간질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 되고 유익한 것을 말한다.”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389) 만일 제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비구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말해 주어라.
남을 이간시키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397) 모임에서나 집단에서나 또는 한 개인에게라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닌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 제3품 10경 <꼬갈리아 경>

(657) [세존]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찌는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50) 화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말을 함에 절제할 줄 아는 진정한 성인이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30) 또 비구는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며,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뻔뻔스러운 행위를 배워서 안 되며,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 된다.

(932) 사문이나 일반 사람들로부터
여러 말을 듣고서 화가 나더라도,
그들에게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양갓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73)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뿔을 지닌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바른 행위 [정업(正業)]

‘바른 행위’란, ‘살아있는 생명 해치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물건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라고 했다.

앞의 ‘바른 말’에서 서술하였듯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과 갈애를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몸[身]으로 행하는 나쁜 행위인 악업(身業)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른 행위’를 부단히 닦아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바른 행위를 함으로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지 않게 되고, 편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짐은, 앞의 ‘바른 말’의 경우와 동일하다.

행위를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잘 살펴야 한다.

- ① 몸으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 ②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 ③ 몸으로 행위를 하고 난 뒤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반조하고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는지는, 앞의 ‘바른 말’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 ‘바른 행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4품 7경 <뗏사 뗏떼이야 경>

◎ 제4품 7경 <뗏사 뗏떼이야 경>

(814) [뗏사 뗏떼이야] “스승이시여,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의 고난(苦難)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는 홀로 떨어져 살며
그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815) [세존] “땃떼이야여,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는
가르침을 잊어버림은 물론,
잘못된 길로 수행을 한다.
이것은 그의 안에 있는 비천한 요소이다.

(816) 지금까지는 혼자 순결하게 살다가
나중에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는,
길에서 벗어난 수레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한 범부라 부른다.

(817) 지금껏 그가 지녔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된다. 이러한 일을 잘 보고,
성행위를 버리도록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

(818) 그는 자신의 생각들에 압제당하여,
궁핍하고 불운한 사람처럼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남의 질책을 듣고 굴욕스러워진다.

(819) 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체면을 손상당하면,
[방어하는] 무기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어,
[결국] 거짓말쟁이로 타락한다.

(820) 홀로 순결을 지키고 있을 때는
지혜로운 분이라고 존경받던 사람도,
성행위에 빠지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게 된다.

(821) 성인은, 이 세상에서, 이전이든 이후이든
언제든지 이러한 재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
굳은 결의를 가지고 홀로 살며 [순결을] 지키고,
성행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822) 오로지 홀로 떨어져 수행하라.
이것은 모든 거룩한 이들에게 으뜸가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최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워져 있다.

(823) 성인이, 감각적 즐거움을 거들떠보지 않으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
온갖 감각적 욕망에 묶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넌 사람으로 부러워한다.”

☞ ‘바른 행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35)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해치지 말며,
자식을 바라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6경 <파멸 경>

(108)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어울리며,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자,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생명 있는 것을 해치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자비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19) 마을에 있거나 숲속에 있을 때,
남의 소유물을 나의 것이라 하며,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 제1품 9경 <해마와따 경>

(157) [야차 사따기라] “그[고따매]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한다.
그는 방일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붓다는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 제2품 2경 <비린내 경>

(242) [갓사빠 붓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때리고 자르며 결박하는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사기와 기만, 위선,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肉食)이 비린 것이 아니다.”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394)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존재에 대해 폭력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되며,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살해하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395) 그리고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어디에서라도, 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빼앗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갖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396) 지혜로운 사람은,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순결하지 못한 행위(음행)를 삼가해야 한다.
만일 순결하게 (독신으로)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제5절 바른 생계 [정명(正命)]

‘바른 생계’란, ‘삿된 생활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바르지 못한 생계는, ‘계락을 부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그릇된 생계이다(MN117 <위대한 마흔 가지 경>).’라고 했고, 대표적인 그릇된 생계로 도살업, 인신매매, 독약 장사, 무기 장사, 술 장사 등이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생계 수단으로 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어지러워져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선업은 모든 수행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 ‘바른 생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61) 많이 배우고, 바른 기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며, 선한 말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360) [세존] “길조(吉兆)의 점, 별자리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뿌리째 근절하고,

[길, 흙] 전조의 폐단을 완전히 버린 비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404) 올바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올바른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재가자는,
'스스로 빛이 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27) 주술, 꿈의 해몽, 징조를 점치거나
또는 점성술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제자는, 동물의 소리로 짐을 치거나,
임신을 시키는 술수나 치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929) 비구는 사고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어도 안 된다.
연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제6절 바른 노력[정정진(正精進)]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바른 노력’이란, 아래 네 가지 항목을 닦는 것인데, 이때에는, ‘열의를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정진으로 힘쓰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써야’ 한다. 네 가지 항목은 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② 이미 일어난 해로운 불선법을 제거하는 것 ③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 ④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을 지속시키고, 알아차려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더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바른 노력’에 관하여 부처님께서, “비구는 ‘피부와 힘줄과 뼈가 쇠약해지고 몸에 살점과 피가 마르더라도 남자다운 근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남자다운 분발로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을 때 까지 정진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였고(SN21:3 <통경>), 또한, “비구가 자신을 반조해서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알게 되면, 그는 그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퇴전과 정념·정지[사띠·삼빠잔내]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AN8:74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 경>)

바른 노력은, ‘불방일’과 ‘불퇴전’이라는 유익한 법들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노력은 팔정도의 나머지 일곱 항목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바른 노력’에 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2품 10경 <용맹정진 경>

◎ 제2품 10경 <용맹정진 경>

(331) 일어나라! 그리고 [수행을 위해] 앉으라!
잠을 잔다고 그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잠이 웬 말인가?

(332) 일어나라! 그리고 [수행을 위해] 앉으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배워 익혀라.
'죽음의 왕'이, 그대들이 방일에 빠진 것을 알고,
그대들을 손아귀에 넣어 미혹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

(333) 천신들과 인간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단단히 붙들고 있는 집착,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
기회가 그대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하라.
기회를 놓친 자들은 지옥에 도착하여 슬피한다.

(334) 방일함이 [번뇌의] 먼지이고, 먼지는 방일함에서 생긴다.
방일하지 않음에 의해, 명지(明智)에 의해,
자신에게 박혀있는 화살을 뽑으라.

☞ '바른 노력'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66)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五蓋]를 제거하고,
모든 정신적 오염들을 몰아내고,
의존함 없이, 애정과 미움 모두 끊어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8)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힘써 정진하며,
마음의 나태 없이 방일함 없이,
확고한 노력으로, 강한 힘을 갖추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0) 갈애의 소멸을 열망하고,
깨어있고 총명하며, 배워 익히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담마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힘차게,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4경 <까시 바라드와자 경>

(79) 노력은, 내 짐을 진 황소로서,
속박에서 평온으로 나를 인도해준다.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된다.

•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186) [세존]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라한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으며 주의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 제1품 12경 <성인 경>

(208) 이미 일어난 것(번뇌)은 뿌리째 잘라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여 키우지 않는다면,
그를 ‘홀로 사는 성인’이라 한다.
저 위대한 선인(仙人)은 평안의 경지를 본 것이다.

• 제3품 2경 <정진 경>

(432) [세존] “나에게는 믿음과 정진과 지혜가 있다.
이처럼 힘써 노력하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생명의 집착에 대한 것을 묻는가.

(433) [정진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능히 강물도 메마르게 할 것이니,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 제3품 6경 <사비아 경>

(531)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삼가고,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어, 힘써 노력하는 사람,
강건하고 용감하며, 열렬히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진하는 자’라고 불리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26)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 위선, 웃음, 오락, 성적 행위, 개인 장신구들,
이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933) 비구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성찰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수행하여야 한다.
고요함이 평안임을 알고,
고따마의 가르침에 방일하지 말라.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42) 마음이 열반으로 향해있는 사람은,
졸음과 해태와 혼침을 극복해야 하며,
방일을 일삼아서 안 되고, 거만을 부려서도 안 된다.

• 제5품 6경 <도따까의 질문>

(1062) [세존] “그렇다면, 도따까여, 열심히 노력하라.
사려 깊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사띠를 지니도록 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는 자신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제7절 바른 사띠 [정념(正念)]

‘사띠’는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일하고도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사띠’를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들로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새김, 주시, 마음지킴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한 단어로 ‘사띠’의 뜻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본서에서는 빠알리어 원어인 ‘사띠(sati)’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앞의 제2장 팔정도에서 서술하였듯이(페이지 80), ‘바른 사띠’란 ① 몸에서 몸을 ② 느낌에서 느낌을 ③ 마음에서 마음을 ④ 담마에서 담마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며 머물고,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앎(삼빠잔나, 正知)과, 사띠(正念)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앎’이란 용어는 ‘그때그때 행하는 모든 행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작용’을 말하며, ‘사띠’라는 용어는 ‘마음을 계속하여 한 대상으로 모으고 그 대상을 관찰하는 작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띠(正念)와 삼빠잔나(正知)는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동시에 같이 작용되어야 한다.

‘바른 사띠’를 수행하는 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담마(법, 현상)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놓치지 않고 관찰해 나가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의 본성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는 것[無常]이고 괴로운 것[苦]이고 그 속에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無我]을 통찰지혜로서 보게 되어, 그러한 현상들을 염오하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진다. 이러한 통찰지혜가 깊어짐에 따라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음이 빛바래게 되고 이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마음이 해탈하여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어 괴로움의 종

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념처 수행의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네 가지 주제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분석이나 판단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관찰만이 끊어짐 없이 지속되도록 하고, 이러한 관찰의 힘에 의해, 마음에 탐욕이나 고뇌 등의 불선한 법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려 이들을 단속하고 제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행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사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띠확립 수행(사념처 수행)’을 하여 그 요령과 본질을 체득해야 하는데, 사띠확립 수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전 DN22 <대념처 경>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이 수행은 선지식의 올바른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숫따니빠따에서 ‘사띠’라는 용어가 사용된 계송은 약 50개가 될 정도로, 부처님께서 ‘사띠’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다.

☞ ‘바른 사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45) 만일 그대가, 선한 삶을 살며 결의가 굳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런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띠를 지니고서, 그와 함께 가라.

(70) 갈애의 소멸을 열망하고,
깨어있고 총명하며, 배워 익히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담마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힘차게,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4경 <까시 바라드와자 경>

(77) [세존] “믿음이 씨앗이고, 고행[감각기관 제어]이 비[雨]이며,
지혜는 내 명에와 쟁기이다.
부끄러움[慚, 히리는 쟁기 자루]이며, 마음[마노]은 명에의 끈,
사띠는 쟁기 날과 [소몰이] 막대이다.”

• 제1품 9경 <해마와따 경>

(174) [세존] “항상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안으로 성찰하고,
사띠를 지니고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다.”

• 제1품 12경 <성인 경>

(212) 지혜의 힘이 있고, 계행과 덕행을 잘 갖추고,
마음이 집중되고, 선정[禪定]을 즐기며,
사띠를 지니고, 집착이 없고,
[마음의] 황무지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283) 언제나 사띠를 지닌 청정한 사람들은,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면 서로 화합하며 사려 깊게 [살게] 되어,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40)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며,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윤회하는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여 떠나라.]

• 제3품 1경 <출가 경>

(413) [아난다] 그분은 모든 감각을 제어하여 잘 다스리고,
'분명한 앞[삼빠잔네]'과 사띠를 지니고서,
차례로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에 발우를 채웠습니다.

• 제3품 2경 <정진 경>

(434) 피가 말라버리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른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나의 사띠와 지혜와 삼매는 [확고하게] 서 있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15)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평정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해치는 일이 없으며,
거센 물결을 건너 피안에 도달하고,
마음이 소란하지 않고 부풀림이 없는 사람,
그를 '온화한 분'이라 하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41) 괴로움은 갈애로 인해 생김으로,
그것의 위험함을 알아서, 비구는, 갈애를 버리고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751) 괴로움은 동요로 인해 생긴다는 그 위험을 알고,
순간적 충동을 버리고, 형성업 지위를 멈추고,
비구는, 충동 없이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768)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적 쾌락을 피하는 사람은,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애착[갈애]을 극복한다.

(771) 그러므로 언제나 사띠를 확립하고,
감각적 쾌락을 피해야 한다. 그것들을 떨쳐버리면,
마치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고 피안에 도달하듯,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너게 되리라.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55)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거만의 우쭐댐이 없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6) [세존] “지혜로운 자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애들이라도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자신을 수련하여야 한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64) 슬기로우며, 사띠를 지니고 절제된 행위를 하는
비구는, 다섯 가지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쇠파리, 날벌레[모기 등], 뱀, 사람과 마주침,
네 발 가진 짐승들이다.

(973)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띠를 지닌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974) 또한 세상에는 다섯 가지 티끌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띠를 지니고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

(975)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 마음을 잘 해탈시켜,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적합한 때에 담마를 올바르게 깊이 살피고,

마음을 통일시켜 어둠[무명]을 걷어내어야 한다.”

• 제5품 1경 <서시(序詩) 경>

(1026) [세존] “무명(無明)이 ‘머리’인 줄 아시오.
믿음과 사띠와 삼매와 열의(찬다)와 노력을 갖춘
명지(明智)가, ‘머리를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4) [아지따]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하여 흐름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1035) [세존] “아지따여,
이 세상에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도,
그 흐름들을 막는 방법은 ‘사띠’이다.
또한 그 흐름들을 제어하는 것 역시 ‘사띠’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뵤냐]’에 의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

• 제5품 3경 <땃사 땃떼이야의 질문>

(1041) [세존] “땃떼이야여,
감각적 쾌락의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갈애에서 떠나고, 항상 사띠를 지니며,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하여 열반에 도달한 비구,
그에게는 동요가 없다.”

• 제5품 5경 <멧따구의 질문>

(1055) [세존] “멧따구여,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에 대한 즐김과 애착을 몰아내라.
[그러하면] 의식은 존재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1056) 이와 같이 머물고,
사띠를 지니고,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건너서,
바로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 제5품 6경 <도따까의 질문>

(1062) [세존] “그렇다면, 도따까여, 열심히 노력하라.
사려 깊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사띠를 지니도록 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는 자신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 제5품 7경 <우빠시와의 질문>

(1070) [세존] “우빠시와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통찰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없다’에 의지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라.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밤낮없이 갈애의 소멸을 살펴보라.”

• 제5품 9경 <해마까의 질문>

(1086) [세존] “해마까여,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감지된 것, 지각된 것들과,
또한 즐겁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1087) 이것을 철저히 잘 이해하여,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평온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 제5장 11경 <깎빠의 질문>

(1094) [세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지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섬’이다.
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늡음과 죽음의 종식이다.”

(1095) 이것을 철저히 잘 이해하여,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들은 악마(마라)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며,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 제5품 13경 <바드라우다의 질문>

(110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꿰뚫어 알고,
사띠에 머무는 비구는,
일체의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얻는 것에 빠져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죽음의 영역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관찰하면서.”

• 제5품 14경 <우다야의 질문>

(1107) [세존] “평정심과 사띠에 의해 청정해지고,
담마에 대한 탐구에 의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지혜에 의한 해탈'이고,
'무명을 부숨'이라고 나는 말한다.”

(1110) [우다야] “어떻게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면,
식(識, 윈나네이) 멈추어집니까?
그것을 존귀하신 분께 묻고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1111) [세존]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 제5품 18경 <피안으로 가는 길 경>

(1143) [뻥기야] 저의 믿음과 희열,
그리고 마음(마노)의 사띠는
고따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어느 쪽으로 가시거나,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예경 올립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른 사띠의 네 가지 관찰 항목인 ① 몸 ② 느낌 ③ 마음 ④ 법의 관찰에 연관되어 있는 숫따니빠따의 경과 계송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몸 관찰(身念處)

우리의 몸(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관찰하여 그 본성을 꿰뚫어 아는 수행이다. 이 수행에 의해 우리는, 이 ‘몸’이란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無常]이고, 괴로운 것[苦]이고, 그 속에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無我]을 통찰지혜로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몸을 ‘나의 몸’ 또는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게 되어 몸에 대한 갈애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몸 관찰에는 호흡 관찰, 네 가지 자세 관찰, 행동 관찰[삼빠잔냐], 부정관, 사대 관찰, 시체 관찰 등이 있다. 몸 관찰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전 DN22 <대념처 경>에 잘 설명되어 있다.

☞ ‘몸 관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1품 11경 <승리 경>

◎ 제1품 11경 <승리 경>

(193)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굽히거나 펴기도 한다.
이것이 몸의 움직임이다.

(194)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피부와 살과 살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

(195) 위와 장, 간, 방광, 심장, 폐,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196) 콧물, 점액, 담, 임파액, 피, 관절액, 땀, 기름이 있다.

(197) 또한 아홉 구멍으로는 언제나 더러운 것이 흘러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198)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이나 가래를 뱉는다.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199) 그리고 머릿속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자는 무명(無明)에 끌리어,
이 몸을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안다.

(200) 죽어서 눕혀지면, 몸은 부풀어 오르고 검푸르게 되며,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1) 개와 여우, 늑대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와 술개,
그 밖의 것들이 이를 쪼아 먹는다.

(202) 여기,

지혜로운 비구는, 붓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203) ‘저 죽은 시체도 이 살아있는 몸과 같았고,

이 살아있는 몸도 저 죽은 시체처럼 될 것이다’라고 알아,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204) 여기,

몸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비구는,

불사(不死)와 평안을 누리는 부동의 경지인, 열반에 도달한다.

(205) 더럽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있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두 발 가진 이 몸을, 사람들은 소중히 가꾼다.

(206) 이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멸시한다면,

그는 통찰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 ‘몸 관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40)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며,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윤회하는]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여 떠나라.

(341) 욕망에 연결된 아름다운 감각 대상의
표상[모양, 니맛]을 취하지 말고,
‘부정(不淨)한 것’이라고 마음을 닦되,
마음이 한 곳으로 잘 집중되도록 하라.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16)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면도 칼의 칼날을 다루듯이,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누르고],
그리고 배[복부에 집중하여 힘써 자신을 다스려라.”

2) 느낌 관찰(受念處)

우리에게 일어나는 느낌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가 있다.

느낌 관찰 수행은, 이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면서 관찰하여 그 현상을 통찰지혜로서 꿰뚫어 아는 것이다. 즉 일어나는 느낌이 그 어떤 것이든 모두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 된 현상임’을 보게 되고 이러한 통찰지혜[사띠의 힘]에 의해 우리는 일어나는 느낌에 연연하거나 매이지 않게 된다. 일어나는 느낌에 연연하거나 그것에 매이게 되면, 세 가지 느낌 중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고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그것이 바로 ‘갈애’이자 ‘괴로움의 일

어남'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사성제의 진리이다.

☞ '느낌 관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빨 경>

(67)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도 버리고,
환희와 슬픔도 버리고, 청정하고 고요한 평정을 얻어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38)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혹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739)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알고,
‘허망한 것으로서 부서지기 마련인 것’임을 알아,
느낌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의 사라짐을 보아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들을 부수어,
비구는,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 제4품 6경 <늪음 경>

(811) 성인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유쾌한 것’ 혹은 ‘불쾌한 것’으로 분별하여 취하는 일이 없다.
마치 물이 잎에 달라붙지 않듯이,
그에게는 비탄이나 인색함이 달라붙지 않는다.

• 제4품 11경 <말다툼과 논쟁 경>

(869) [질문자] “유쾌, 불쾌는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성과 소멸이라는 현상에 관하여,

무엇에서 그것이 일어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870) [세존] “유쾌, 불쾌는, 접촉(觸, 팟새을 인연으로 일어난다.

접촉이 없으면 그것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현상들도

바로 그 접촉으로부터 생긴다고 나는 말한다.”

• 제5품 14경 <우다야의 질문>

(1111) [세존]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뭇를 지니고 유행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3) 마음 관찰(心念處)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생각)들의 진정한 본성(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꿰뚫어 알기 위하여,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수행을 말한다. 즉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따라가면서 관찰하여, 불선한 마음은 즉시 제거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선한 마음은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더욱 일어나도록 노력하여, 우리가 불선한 마음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악업은 항상 불선한 마음 상태에서 짓게 되고, 괴로움은 항상 불선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마음관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빨 경>

(50) 참으로 감각적 쾌락들은, 현란하고 감미로우며 즐거워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 속에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3) 눈은 아래로 뜨고, 주의 깊게 견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을 지켜 보호하며,
번뇌가 흘러나오거나, 번뇌의 불에 타는 일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2품 5경 <수절로마 경>

(270) [수절로마 야차] 욕망과 미움이 일어나는
근원은 어디입니까?

즐거움과 불쾌함과 소름 끼치는 전율들은 어디서 생깁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갖가지 마음의 생각들[마노 위딱깨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일어납니까?

(271) [세존] 욕망과 미움이 일어나는 근원은 여기[자기 자신이고,
즐거움과 불쾌함과 소름 끼치는 전율들도 여기에서 일어난다.

마치 아이들이 잡았던 까마귀를 놓아 버리는 것처럼,
갖가지 마음의 생각들도 여기에서 시작하여 일어난다.

• 제3품 8경 <화살 경>

(591) 집에 불이 난 것을 몰로 꺼 버리듯이,
단호하고 지혜롭고 능숙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일어난 슬픔을 즉시 날려 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털을 날려 버리듯이.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02)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먹든지 공경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설을 먹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 성내지 말며,
공경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717)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함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야 한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22) [세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에 쉽 없이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세간의 저속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맛에 탐착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가져서는 안 된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67)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물을, 자애의 마음으로 채워서 대하라.

마음이 혼란함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이 '악마의 패거리'라고 알아,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968) 분노와 교만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또 유쾌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모두 견뎌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정복해야 한다.

(975)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 마음을 잘 해탈시켜,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적합한 때에 담마를 올바르게 깊이 살피고,
마음을 통일시켜 어둠[무명]을 걷어내어야 한다.

4) 법 관찰(法念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관찰하여 그 현상들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수행을 말한다. 이 수행으로 얻어진 통찰지혜에 의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갈애를 소멸 시킴으로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법 관찰 수행에는, 다섯 가지 장애 관찰, 오온 관찰, 6입처 관찰, 7각지 관찰, 사성제 관찰이 있다. 법 관찰 수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경전 DN22 <대념처 경>을 참조 바란다.

☞ '법 관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빨 경>

(66)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五蓋]를 제거하고,
모든 정신적 오염들을 몰아내고, 의존함 없이,
애정과 미움 모두 끊어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0) 갈애의 소멸을 열망하고, 깨어있고 총명하며, 배워 익히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담마[法]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힘차게,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28) 세상에 있는 갖가지 형태를 지닌 모든 괴로움은,
집착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어리석은 자는,
반복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집착의 대상이 괴로움의 발생과 그 근원임을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집착의 대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759) 형상, 소리, 맛, 냄새, 감촉, 현상[法],
이들[여섯 감각 대상]들은,
'이것들이 있다.' [이것들은...이다]라고 말하는 한,
모두가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 된다.

(760) 이런 것들을 천신이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송 경>

(778)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의 작용(觸, 觸)을 잘 알아서,
탐내지 않으며, 스스로 책망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9) [세존]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마음이 혼탁해져서도 안 된다.
모든 담마(法)에 숙달하여,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제8절 바른 삼매 [정정(正定)]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모아진 것을 삼매라 하며, ‘바른 삼매’는 본서 제1부 2장(팔정도, 페이지 80)에서 설명한 네 가지의 선정, 즉 초선·2선·3선·4선을 말한다.

경전에는 삼매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삼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경전에서 아래와 같이 추려 보았다.

*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心一境性)이 삼매이고, 네 가지 사띠의 확립(사념처)이 삼매의 표상이며, 네 가지 바른 노력(사정근)이 삼매의 필수품이다.

MN44 <교리문답의 짧은 경> §12

*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삼매에 들지 못하면 법(담마)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SN55:40 <난디아 경>

* 지혜가 없는 이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을 행하지 않는 이에게 지혜는 없나니,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는 실로 열반의 가까이에 있다.

법구경 372

*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心一境性)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 MN117 <위대한 마흔 가지 경>

위 경전들에 서술되어 있듯이, 우리가 존재(현생)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통찰지혜를 개발해야 되고 이러한 통찰지혜의 개발은 반드시 삼매의 힘(기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삼매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

삼매와 선정의 상태는 수행을 통하여 직접 증득해야만 하는 경험의 세계이

며 수행 방법도 [가능하면] 올바른 스승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아야 됨으로, 여기서는 원전에 ‘삼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계송들을 모아 수록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 ‘삼매(선정)’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빨 경>

(69) 홀로 앉아 선사(禪思)하고
선정(禪定) 닦음에 게으르지 말며,
모든 일을 오로지 담마(법)에 따라 행하며 살고,
존재들 가운데에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9경 <헤마와따 경>

(157) [야차 사따기라] “그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하여 자신을 절제한다.
그는 방일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붓다는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 제1품 12경 <성인 경>

(212) 지혜의 힘이 있고, 계행과 덕행을 잘 갖추고,
마음이 집중되고, 선정(禪定)을 즐기며, 사띠를 지니고, 집착이 없고,
마음의 황무지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제2품 1경 <보배 경>

(225) 사까족의 성인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하신,
[갈애를 부숨, 욕망을 없앴, 그리고 죽음이 없는 숭고한 경지,
그 담마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담마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6) ‘위없는 스승 붓다께서 찬탄하신 청정한 삼매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삼매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담마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 제2품 9경 <계행이란 무엇인가 경>

(329) 이해가 되는 내용은 훌륭히 설해진 말씀의 핵심이며,
삼매는, 배우고 이해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방일하면
배움도 지혜도 자라나지 않는다.

(330) 거룩한 분께서 가르치신 진리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뛰어나다.
평온과 온화와 삼매에 안주하면서,
그들은 배움과 지혜의 핵심에 도달한다.

• 제3품 2경 <정진 경>

(434) [세존] “피가 말라버리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른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나의 사띠와 지혜와 삼매는 [확고하게] 서 있다.”

• 제3품 4경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경>

(471) 삼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최상의 탁월한 견해로서 진리를 알며,
번뇌를 소멸하여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만하오.

• 제3품 5경 <마가 경>

(503) 최상의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고,
사띠를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09) 선정에 전념하는 성실한 수행자는 숲속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하면서 스스로 더없이 만족해야 한다.

• 제4품 16경 <사리뻗따 경>

(972) 눈은 아래로 뜨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며,
선정[수행]에 전념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삼매를 개발하여 평정을 닦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후회하는 마음을 없애고,
생각하려는 경향[성행]을 잘라내야 한다.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 제2부

교리와 수행

제2부 교리와 수행

부처님 가르침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 ‘교리’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이 교리에 따라 직접 닦아서 체득해 나가는 행위가 ‘수행’이다.

교학(교리공부)과 수행은 항상 같이 닦아야 하는데, 수행이 뒷받침 되지 않는 교학은 이론적 논리적 사고에 의한 추론이 될 수 있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올바른 교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행은 수행의 향상이 더디며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덮고 있는 무명(어리석음)을 걷어내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혜를 닦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가능해진다. 지혜는 통상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개발할 수 있는데,

첫째가 ‘문혜(問慧)’로서, 교리에 대한 설법을 많이 듣고(혹은 경전을 자주 읽고) 얻는 지혜,

둘째가 ‘사혜(思慧)’로서, 법에 대하여 깊게 사유·숙고·고찰 하여 얻는 지혜,

셋째가 ‘수혜(修慧)’로서, 수행을 통하여 얻는 지혜를 말한다.

이와 같이 교리와 수행의 균형 있는 닦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혜의 힘[다섯 가지 힘(오력)인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중에서 지혜의 힘이 으뜸이라 힘]에 의해 우리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원전의 경과 계송들 중에서 사성제와 팔정도에 직접 연관된 항목들은 앞의 제1부의 1장과 2장에 각각 실었고, 여기 제2부에는 그 외의 불교 교리와 수행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는 경들과 계송들을 별도로 분류 및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정리한 항목들도 큰 범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포괄됨은 물론이다.

제1장 교리(敎理)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이치를 교리라 하며, 이 교리는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에 방대한 양으로 그 자세한 내용이 잘 수록되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받은 선물은 이러한 경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면서 경전을 자주 읽고, 바른 내용의 설법을 자주 들어서,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여 철저하게 믿고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아 나가야 한다. 교리에 대한 명철하고 올바른 이해와 이에 따른 부단한 실천 노력,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줄 유일한 길이라.

여기 제2부 1장에서는 이러한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원전의 경과 계송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 | | | |
|----------------|-----------|--------|
| 제1절 부처님에 관한 내용 | 제2절 업과 과보 | 제3절 연기 |
| 제4절 윤회 | 제5절 삼보 예찬 | |

제1절 부처님에 관한 내용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아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힘들고 긴 도정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특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본인이 교학과 수행을 닦아 스스로 보아 알고 또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알아나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여기에 수록된 원전의 내용 전체를 잘 숙독하고 이해하면 저절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정립되리라 믿는다.

숫따니빠따에는 부처님에 관한 내용으로 1) 탄생 2) 출가 3) 정진 4) 전법과 귀의에 관한 내용들이 몇몇 경과 계송들에 잘 정리되어 있고 또한 몇지게 묘사되고 있어 여기에 모아 보았다.

1) 부처님의 탄생

부처님의 탄생에 관하여는 여러 문헌들에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숫따니빠따에는 탄생 직전과 직후의 정황들이 특별한 내용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3품 11경 <날라까 경>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679) 아시따 선인(仙人)은 한낮의 휴식 때에,
깨끗한 옷을 입은 도리천[33천의 천신들이 기뻐하고
환희하며, 인드라 신[제석천]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손에 깃발을 들고 흔들며 엄청나게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680) 기쁨에 넘쳐있는 천신들을 보고, 선인은 경의를 표하며 물었다.
“당신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까?”

(681) 이수라와의 싸움에서, 천신들이 이기고 이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열광적으로 환희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무슨 경이로운 일이 있기에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682)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수미산(수메루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 주십시오.”

(683) [천신] “비할 데 없이 뛰어난 보배인 저 보살이,
사까족 마을 림비니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684)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으뜸가는 분,

가장 빼어난 분,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 위없는 분께서,
선인이라 불리는 숲에서 수레바퀴(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못 짐승들의 왕인 용맹스런 사자가 포호하듯이.”

(685) 선인은 그 말을 듣고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숫도다나 왕의 궁전에 가서 자리에 앉은 후에
사까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 번 뵙고 싶습니다.”

(686) 그리하여 사까족의 사람들은,
숨씨 좋은 금세공사가 만든 빛나는 황금처럼,
아름다움으로 반짝이는 거룩한 아기의 얼굴을
아시따 선인에게 보였다.

(687) 불꽃처럼 빛나고, 달과 같이 순수하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군주(君主)와 같이,
구름 한 점 없는 가을의 태양처럼 환한, 어린 왕자를 보고,
아시따 선인은 환희에 가득 차 몹시 기뻐하였다.

(688) 천신들은,
수많은 뼈대가 있고 천 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양산을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 자루가 달린 총채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689) 타래 머리를 한, 깎하시리(검은 피뿔라 불리는) 아시따선인은,
얼굴을 흰 양산으로 가리고 빨간 담요에 싸여 있는

황금 보물 같은 아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690) 관상과 지혜에 통달한 그는,
황소같이 훌륭한 사까족의 아기를 안고
그 남다른 상을 살피더니 환성을 질렀다.
“이 아기는 위없는 분,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합니다!”

(691) 그러더니 선인은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사까족의 사람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장애라도 있습니까?”

(692) 사까족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징표도 없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693) 이 왕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최상의 청정을 보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비로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덕행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694)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바 없이 큰 힘을 가진 이분의 가르침을 나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불행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695) 청정한 수행자 아시따 선인은
사까족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고 궁전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조카날라께를 불러,
견줄 데 없는 힘을 지닌 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696) [아시따] “네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붓다’라는 소리와,
‘온전히 깨달은 분이 최고의 진리를 펼치신다.’라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묻고,
그 존귀하신 분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697)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예견이
지극히 청정했던 [아시따]선인의 가르침에 따라,
날라까는 많은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감각기관을 수호하면서, 승리자를 기다리며 살았다.

(698)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따 선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날라까는] 그분께 가서,
인간 가운데 으뜸가는 성인을 보고 기뻐하며,
‘성인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여쭙었다.

이 계송 다음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계송들(계송번호 699에서 723)은, 그 내용이 성인과 성인의 삶에 관한 것이므로, 본서 제3부 3장 〈성인과 성인의 삶〉(페이지 341)에 수록하였다.

2) 부처님의 출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유와 출가를 하신 직후의 생활에 대한 단편상이 아래 제3품 1경 〈출가 경〉에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다.

☞ ‘부처님의 출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3품 1경 〈출가 경〉

◎ 제3품 1경 〈출가 경〉

(405) 눈[통찰력을 가진 분]부터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출가를 기뻐하셨는지,
나아난대는 그 출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406) ‘재가자의 삶은 얽매임이고 번잡하며
먼지가 쌓이는 곳이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출가하셨습니다.

(407) 출가한 다음에는 몸에 의한 악행을 버렸습니다.
말에 의한 악행도 버리고, 아주 청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408) 깨달은 분은 마가다국의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인
라자가하[왕사성]로 갔습니다.
뛰어난 모습을 가지신 분은 탁발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409)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는 궁전에 서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뛰어난 모습을 가지신 그분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10)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깨끗하며,
바른 행동을 갖추고, 멩에의 길이만큼만 앞을 본다.

(411) 그는 눈을 아래로 뜨고 사띠를 지니고 있다.
그는 천한 가문의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왕의 신하들이여, 그를 쫓아가라. 저 비구는 어디로 가는지.”

(412) 왕의 신하들은 그분을 따라가며 말했다.
‘저 수행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어디에 살고 있을까?’

(413) 그분은 모든 감각을 제어하여 잘 다스리고,
‘분명한 앞[삼빠잔네]’과 사띠를 지니고서,
차례로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에 발우를 채웠습니다.

(414) 성인은 탁발을 마치고, 도시 밖으로 나와,
‘여기에 머물 곳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뺨다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415) 그분이 자기 처소에 가까이 이르는 것을 보고,
왕의 신하들은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신하는 왕에게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416) “대왕이시여, 그 비구는 뺨다와 산 앞 동굴 속에
호랑이나 황소, 또는 사자같이 앉아 있습니다.”

(417) 신하의 말을 듣고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서둘러 뺨다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418) 왕은 수레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타고 간 다음,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419) 왕은 기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20) “그대는 어리고 젊습니다.
젊음의 봄을 맞은 청년입니다.
용모도 단정하고 수려하여 귀한 왕족 태생인 듯합니다.

(421) 코끼리 떼를 앞세운 날쌌던 군대를 정렬해서
그대에게 선물을 주고 싶소. 이를 받아주소.
나는 그대의 태생을 알고 싶으니 말해 주겠습니까?”

(422) [세존]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꼬살라국의 주민으로 재물과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423) 씨족은 ‘아딧짜[태양의 후예]’라 하며,
종족은 ‘사까족[석가족]’이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가문에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집을 나와 출가 한 것입니다.

(424) 감각적 쾌락에서 위험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기에,
나는 힘써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3) 부처님의 정진

부처님께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힘든 장애
들을 극복하셨는지, 또한 물러섬 없는 불굴의 노력으로 얼마나 열심히 정
진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래 제3품 2경〈정진 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

☞ ‘부처님의 정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 하나
제3품 2경〈정진 경〉

◎ 제3품 2경 〈정진 경〉

(425) [세존] 정진하기를 결심하고 네란자라 강가로 가서,
명으로부터 벗어난 평온을 얻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수행하는 나에게,

(426) 악마 나무찌[마라]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여위었고, 안색이 나쁘며,

죽음이 당신의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427)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은
천의 하나나 될까 말까 하오.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공덕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428) 청정한 생활을 하면서 성화(聖火)에 공물을 바치면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행에 힘쓴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9) 힘써 정진하는 길은 가기 어려운 길이고
행하기 어렵고 성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계송을 읊으면서 마라야마는 세존 앞에서 있었다.

(430) 마라가 그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이내 말씀하셨다.
“게으른 자의 친족이여, 악한 자여,
그대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가?

(431) 나는 세속의 공덕을 짓는 것을
티끌만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라여, 그대는 그러한 공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

(432) 나에게서 믿음과 정진과 지혜가 있다.
이처럼 힘써 노력하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생명의 집착에 대한 것을 묻는가.

(433) [정진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은
능히 강물도 메마르게 할 것이니,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몸의 피가
어찌 마르지 않겠는가.

(434) 피가 말라버리면 쓸개도 가래침도 마른다.
살이 빠지면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나의 사띠와 지혜와 삼매는 [확고하게] 서 있다.

(435) 내가 이와 같이 머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어떤 욕망도 없다.
보라, 이 존재의 청정함을!

(436) 너의 첫 번째 군대는 감각적 쾌락이고,
두 번째 군대는 혐오[불만]이며,
세 번째 군대는 굶주림과 목마름이요,
네 번째 군대는 갈애라 불린다.

(437) 그리고 다섯 번째 군대는 게으름과 수면이며,
여섯 번째 군대는 두려움이요,
일곱 번째 군대는 의심이고,
여덟 번째 군대는 위선과 고집이다.

(438) 이득, 칭찬, 존경과 그릇된 수단으로 얻은 명예,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439) 나무썬여, 이것들이 그대의 군대, 검은 악마의 공격군이다.
용기가 없는 자는 이를 물리칠 수 없지만
[용감한 자는] 이를 물리쳐서 평온을 얻는다.

(440) 나는 문자풀[文邪虜]을 걸치겠다.[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일인가.
패배하고 돌아가느니 차라리 싸워서 죽는 편이 낫다.

(441) 어떤 시문들과 바라문들은,
여기에서 [나의 군대에] 침몰하여,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고귀한 수행자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442) 군대가 사방을 에워싸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마라를 보았으니,
나는 이를 맞아 싸우리라.
너는 결코 나를 이곳에서 물려서게 하지 못하리라.

(443) 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너의 군대를 무찌를 수 없지만,
나는 지혜로서 그것을 격파하리라.
마치, 굽지 않은 흙 발우를 돌로 부수어 버리듯.

(444) 사유를 통제하고, 사띠를 잘 확립하여,
나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두루 유행할 것이다.

(445) 그들은 방일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며
내 가르침을 실천하여, 그대의 바람과는 다르게,

슬퍼함이 없는 경지로 가게 되리라.”

(446) 악마가 말했다.

“나는 칠년 동안이나, 존귀하신 분이 가는 곳마다
한 발 한 발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뭇을 확립하고 있는,
올바르게 깨달으신 분에게는 뛰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447) 마치 까마귀가, 기름 빛깔이 나는 반질반질한 바위를 맴돌며,
‘여기서 부드러운 것을 찾을 수 있겠지, 아마 맛 좋은 먹이가 있을 거야’
하며,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것과 같았습니다.

(448)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찾을 수 없어서 날아가 버린 까마귀처럼,
우리는 낙담하여 고타마를 떠납니다.”

(449) 슬픔에 잠긴 악마의 옆구리에서 비파가 뚝 떨어졌다.
그리고 상심하여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4) 부처님의 전법과 이교도들의 귀의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전법을 시작할 당시의 인도에는 여러 다양한 사상과 학설과 견해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였고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가르침들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인 부처님의 가르침(불교)은 과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었을 것이다.

불교 최초의 경전으로 알려진 숫따니빠따에는, 그러한 시대와 상황에서 불교의 전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교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불교

에 귀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잘 서술되어 있다.

☞ ‘전법과 귀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넷

- 1) 제1품 4경 <까시 바라드와자 경>
- 2) 제2품 7경 <바라문의 삶 경>
- 3) 제3품 6경 <사비야 경>
- 4) 제3품 7경 <셀라 경>

◎ 제1품 4경 <까시 바라드와자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다키나기리에 있는 에까날라라는 바라문 마을에서 마가다 사람들 사이에 계셨다.

그때 바라문 까시 바라드와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오백 개의 쟁기를 멩에 매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옷을 입고 밭우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바라문 바라드와자가 일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때 바라드와자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음식을 얻기 위해 한 쪽에서 계신 세존을 보고 말하였다.

“사문이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사문이며,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공양을 하시지요.”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그렇지만 우리는 그대 고타마의 멩에도, 쟁기도, 쟁기 날도, [소몰이] 막대도, 황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은 ‘바라문이며,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먹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바라문 까시 바라드와자는 계송으로써 세존께 여쭙었다.

(76) “당신은 밭가는 농부라고 자칭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밭을 가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밭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77) [세존] “믿음이 씨앗이고,
고행[감각기관 제에이 비[雨]이며,
지혜는 내 멩에와 쟁기이다.
부끄러움[慚, 히리는 쟁기 자루이며,
마음[마노]은 멩에의 끈,
사띠는 쟁기 날과 [소몰이] 막대이다.

(78)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며,
배에 알맞게 음식의 양을 절제하고,
진리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며,
온화함이 멩에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79) 노력은, 내 짐을 진 황소로, 속박에서 평온으로 나를 인도해준다.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된다.

(80) 이 발갈이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불사(不死)의 열매를 거두며,
이와 같이 발갈이를 하고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때 바라문 바라드와자는 큰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하나 가득 담아 세존
께 올렸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불사의 열매를 가져오는 발갈이를 하시는 분이니 이
우유죽을 드시옵소서.”

(81) [세존] “게송을 읊어서 얻은 것을 내가 먹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문이며, 이것은 [바르게 보는 이의] 도리가 아니다.

게송을 읊어서 얻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거절한다.

바라문이며, 도리에 따르는 것이 깨달은 자들의 생활 방도다.

(82) 할 일을 완전히 성취하고, 번뇌가 부서졌으며,

아쉬움이 없는 위대한 성인에게는,

다른 음식과 음료로써 공양 올리도록 하라.

이것은 공덕을 원하는 자의 복된 티전(福田)이기 때문이다.”

“고따마 존자님, 그러면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라문이며,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
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여래(如來)와 그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이 우
유죽을 먹고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바라문이며, 그 우유죽을 풀
이 적은 곳이나 미물이 없는 물속에 버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바라드와자는 그 우유죽을 미물이 없는 물속에 던져 버리니, 마
치 온종일 띄약벌에 달궈진 쟁기 날을 물속에 넣었을 때 부글거리며 거품
이 솟아나듯이, 그 우유죽은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바라문 까시 바라드와지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려움에 떨며 세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이어서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형색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취 주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존자 고타마님에게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하며 비구들의 모임승개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존자님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 까시 바라드와지는 세존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 그는, ‘태어남은 이제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 해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았다. 그리하여 까시 바라드와자 존자는 성인이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 제2품 7경 〈바라문의 삶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늙고 연로하고 노령에 이르러 만년에 도달한, 꼬살라국에 사는 여러 부유한 바라문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들은 세존께 가까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나눈 뒤에 한쪽에 물러앉았다. 그리고서 큰 부호인 바라문들은 세존께 여쭙었다.

“고따마시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의 바라문들이 지켰던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문들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옛날의 바라문들이 지켰던 바라문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따마시여, 괜찮으시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지켜 온 바라문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문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존자님.”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284) 옛날의 선인들은 자신을 다스렸고,
다스림에 엄격하였소. 그들은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수행하였소,

(285) 바라문들에게는 가축도 없었고, 황금도 곡식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매다 경전 공부하는 것을
재산과 곡식으로 삼아, 범천의 보고(寶庫)를 지켰던 것이요.

(286) 바라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
그런 음식들은 문간에 놓아졌고,
보시자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것들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소.

(287) 아름답게 물들인 옷가지와 침구와 주거를 가진
풍요로운 지방이나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 바라문들을 공경하였소.

(288) 바라문들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재물을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 없었소.
[탁발나온] 그들을, 가정집 문간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않았소.

(289) 그들은 사십팔 년 동안 독신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소.
예전의 바라문들은 지혜와 덕행을 추구하였소.

(290) 바라문들은 다른 계급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아내를 사지도 않았소. 다만 서로 사랑으로 결합하고 나서
서로가 합의하여 함께 살았소.

(291) 바라문들은, 아내의 월경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성 접촉을 갖지 않았소.

(292) 그들은 순결한 삶, 덕행, 정직, 온화함, 엄격한 수행, 품위, 자비,
그리고 인내를 칭송했소.

(293) 그들 중에서, 굳건하게 노력하는
으뜸가는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꿈속에서조차 성행위에 빠지지 않았소.

(294) 그의 행동을 본받아, 이 세상의 양식 있는 다른 사람들은,
덕행과 인내와 함께 순결한 삶을 칭송했소.

(295) 그들은 쌀, 침구, 의복, 그리고 버터와 기름을
올바르게 모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낼 때에 결코 소를 잡지 않았소.

(296) 부모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들은 우리들의 최상의 벗이오.
소들한테서는 여러 가지 약(藥)들이 생기오.

(297) 소들은 음식을 주고, 근력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또한 기쁨을 주오. 소한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오.

(298) 바라문들은 부드럽고 몸이 크며 용모가 단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관습에 따라서 할 일은 하고,
해서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소.
이러한 관습이 세상에 이어지는 한,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번영하였소.

(299)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점점 조금씩, 바뀌게 되었소.
왕의 부귀영화와, 곱고 화려하게 단장한 여인들을 보게 되고

(300)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인 준마가 이끄는 수레들,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잘 배치된
주택과 거처를 보기 시작하면서,

(301) 바라문들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서 화려한 미녀들에 둘러싸여
인간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싶은, 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소.

(302)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언들을 편찬하고,
저 옥까까 왕에게 가져가서 말했소.
'당신은 곡식도 재산도 풍부합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303) 그래서 전차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에 의해 설득되어,
말 희생제, 인간 희생제, 창을 던지는 제사,
소마[soma] 주식을 헌주하는 제사,
장애 없이 누구에게나 공양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바라문들에게 재물을 주었소.

(304) 소들과 침구와 의복,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
그리고 멋지게 수놓인 준마가 이끄는 훌륭한 수레들,

(305) 용도에 맞게 잘 설계된 쾌적한 주택들을,
여러 가지 곡식들로 가득 채워 바라문들에게 재물로 주었소.

(306) 이리하여 그들은 재물을 얻어서 저장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였소.
그들이 욕망의 지배하에 떨어지자, 그들의 갈애는 더욱 더 증장되어 갔소.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언을 편찬하여 다시 옥까까 왕을 찾아갔소.

(307) ‘물과 땅과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가는데 필수품이듯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많습니다.’

(308) 그래서 전차 위의 정복자인 왕은 바라문들에 의해 설득되어,
수백, 수천 마리의 소들이 제물로 도살 되었소.

(309) 소들은 다리나 뿔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소.
그들은 양처럼 유순하고, 향아리가 넘치도록 많은 젖을 주오.
그런데도 왕은, 소의 뿔을 잡고 칼로 소를 죽이도록 하였소.

(310) 칼로 소를 찌르자,
모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이수라, 나찰들은
‘옳지 못한 짓이다!’라고 소리쳤소.

(311) 예전에는, 탐욕과 굶주림과 늡음, 이 세 가지 병밖에는 없었소.
그런데 이러한 가축들의 도살로 인해 아흔여덟 가지나 되는 병이 생겼소.

(312) 이와 같은 폭력에 의한 옳지 못함은,
오래전 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소를 죽임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옳은 도리를 거스르고 있소.

(313) 이와 같이 예전부터 내려온 이 옳지 못한 관습은
지혜로운 이의 비난을 받아 왔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을 비난하게 되었소.

(314) 이렇게 법이 무너질 때, 노예와 평민이 둘로 나뉘었고,
여러 갈래로 왕족이 분열하였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게 되었소.

(315) 왕족들과 범천의 친족
그리고 그들의 종족에 의해 보호받아온 다른 사람들,
그들은 출생의 윤리를 팽개치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지배당하게 된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들 큰 부호인 바라문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이어서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형색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취 주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존자 고타마님
에게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하며, 또한 비구들의 모임(승가에
귀의합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재가 신자로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왕사성)의 대나무 숲에 있는 깔란다까니와빠(다람쥐 사육쟁)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유행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 옛날의 친척이었던 한 천신이 말했다. “사비야여,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그대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아라.”

유행하는 수행자 사비야는 그 천신에게서 그와 같은 질문들을 배워가지고, 사문과 바라문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였다.

그들은, 뿌라나 깃사빠, 막칼리 고살라, 아지따 께사감발리, 빠꾸다 깃짜야나, 산자야 벨랏티뻬따, 니간타 나따뻬따인데, 그들은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명성이 있는 교파의 창설자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라고 숭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유행하는 수행자 사비야에게서 질문을 받았지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화를 내고 증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도리어 사비야에게 반문을 했다.

그래서 사비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들 사문과 바라문들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교파의 창설자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질문을 받고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화를 내고 증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했다.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욕망이나 누릴까 보다.’

그러다가 사비야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사문 고타마도, 많은 제자들을 이끄는 단체의 스승이며 명성이 있는 교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성인이라 숭배받고 있다. 고타마를 찾아가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서 사비야는 이런 생각도 했다.

‘여기 있는 여러 사문과 바라문들은, 모두 장로이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출가한 지도 썩 오래되었고 교파의 창설자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증오와 근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으며, 내게 도리어 반문을 했는데, 어찌 사문 고타마가 내 물음에 똑똑히 답해 줄 수 있을까? 사문 고타마는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사비야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이 젊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보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사문이다. 그에게는 큰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나는 고타마에게 가서 물어보리라.’

그리하여 사비야는 라자가하로 유행을 떠났다. 점차 유행하여 라자가하의 대나무 숲에 있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거룩한 스승님을 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공손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앉아서, 세존께 계승으로 여쭙었다.

(510) [사비야]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법에 따라 분명하게 차례차례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511) [세존] “그대는 질문하기를 열망하면서 먼 데서 내게로 왔소.

그대를 위해 그것을 풀어 주리다.

그대가 물으면 차례차례로 법에 따라 분명하게 대답하리라.

(512) 사비야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물어보시오.

그대의 질문에, 법에 따라 하나하나 의문을 풀어 주겠소.”

그때 수행자 사비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내가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에게서는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사문 고타마께서는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는 기쁘고 만족하고 고양되어, 기쁨과 환희심으로 가득 차 세존께 여쭙었다.

(513) [사비야] “무엇을 얻으면 ‘비구’라 부릅니까?

어떤 사람을 ‘온화한 분’이라 부릅니까?

왜 ‘절제된 분’이라 부릅니까?

어째서 ‘깨달은 분’이라 부릅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14) [세존] “사비야여,

스스로 길을 닦아 완전한 열반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넘어,

존재도 비존재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존재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를 ‘비구’라 하오.

(515) 어떠한 것에도 마음이 평정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해치는 일이 없으며,

거센 물결을 건너 피안에 도달하고,
마음이 소란하지 않고 부풀림이 없는 사람,
그를 ‘온화한 분’이라 하오.

(516) 모든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자신의 감각기관을 잘 길들여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죽을 때에 대해 잘 준비되고 잘 수련된 사람,
그를 ‘절제된 분’이라 하오.

(517)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와,
모든 정신적 허구들을 잘 살피서,
티끌 없이 더러움 없이 청정하여, 다시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깨달은 분’이라 하오.”

그때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찬 마음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세존께 여쭙었다.

(518) [사비야] “무엇을 얻은 자를 ‘바라문’이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사문’이라 합니까?
왜 ‘목욕재계한 분’이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코끼리’라고 불릅니까?
세존이시여, 이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519) [세존] “사비야여, 모든 악을 물리쳐서 때 묻지 않고,
마음이 잘 집중되고, 내면이 확고히 정립되고,
윤회를 넘어서고, 완전한 자가 되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바라문’이라 부르오.

(520) 고요하며, 공덕도 악함도 버리고,
온갖 티끌을 떠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의 그 너머로 간 사람,
그를 ‘사문’이라 부르오.

(521) 모든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모든 악을 씻어 버리고,
정신적 허구에 매여 있는 신들과 인간들 속에 살면서도
정신적 허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를 ‘목욕재계한 분’이라 부르오.

(522) 이 세상에서 어떤 죄악도 짓지 않고,
모든 족쇄와 속박을 잘라버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해탈한 사람,
참으로 이런 사람을 ‘코끼리’라고 부르오.”

이때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또
다시 다음과 같이 세존께 여쭙었다.

(523) [사비야] “붓다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들판[세생을 이는 자]라 부릅니까?
무엇 때문에 ‘선하고 유능한 자]라 불립니까?
어찌하여 ‘현자]라고 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성인]이라고 불립니까?
스승이시여,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524) [세존] “사비야여, 천신의 들판과 인간의 들판,
그리고 범천의 들판 등, 모든 들판들을 분별하고,
또 모든 들판들의 근본 뿌리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때문에, ‘들판을 아는 자’라고 불리오.

(525) 천신의 곳간과 인간의 곳간,
그리고 범천의 곳간 등, 모든 곳간들을 분별하고,
모든 곳간들의 근본 뿌리인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때문에, ‘선하고 유능한 자’라고 불리오.

(526) 안과 밖으로, 투명한 영역의 양면을 분별하며,
청정함에 대한 지혜가 있고, 어둠과 밝음을 초월한 자,
이런 사람은 그 때문에, ‘현자’라고 불리오.

(527) 온 세상에서, 안으로 밖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본질을 알고, 묶임(집착)과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인간들과 천신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 하오.”

이때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다시 다음과 같이 세존께 여쭙었다.

(528) [사비야] “무엇을 얻은 자를 ‘지식에 통달한 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잘 아는 자’라 합니까?
어떻게 하여 ‘정진하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여 ‘태생이 훌륭한 자’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스승이시여,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529) [세존] “사비야여,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잘 살피고,
모든 감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 모든 지식마저 뛰어넘으면,
그는 ‘지식에 통달한 자’이오.

(530) 안과 밖으로,
고통의 뿌리인 희론과 명색(名色)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또한 고통의 뿌리인 속박에서 벗어난 자,
그런 사람은 그 때문에, ‘잘 아는 자’라 불리오.

(531)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삼가고,
지옥의 고통을 뛰어넘어, 힘써 노력하는 사람,
강건하고 용감하며, 열렬히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진하는 자’라고 불리오.

(532) 안팎으로 집착의 뿌리인 속박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얽매임의 뿌리인 속박에서 벗어난 자,
그런 사람은 그 때문에, ‘태생이 홀륭한 자’라 불리오.”

이때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기쁘고 만족하고, 환희심으로
가득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세존께 여쭙었다.

(533) [사비야] “무엇을 얻으면 ‘많이 배운 학자’라고 부릅니까?
무엇에 의하여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또 어떻게 하면 ‘행동이 바른 사람’이 됩니까?
어떤 수행자를 ‘유행자’라 부릅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설명해주십시오.”

(534) [세존] “사비야여,
세상에서 모든 현상을 배우고 이해하여,
비난받을 것이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정복한 사람,
혼란이 없는 자, 해탈한 자, 그리고 어디에서건 괴로움이 없는 자,
그를 ‘많이 배운 학자’라 부르오.

(535) 모든 번뇌와 집착을 끊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태에 들지 않소.
세 가지 지각(감각적 쾌락, 분노, 폭력)과 진흙을 털어버리고,
허구(망상, 분별)에 빠져들지 않는 자,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오.

(536) 이 세상에서 훌륭한 행동을 성취하고,
항상 선하고 유능하며, 담마를 알고 있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해탈하여, 성냄이 없는 자,
그를 ‘행동이 바른 사람’이라 부르오.

(537) 위, 아래, 옆, 혹은 중간 어디에서나,
괴로움의 과보가 생기는 어떠한 행위도 피하며,
완전한 이해와 함께 유행하며, 거짓과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명색을 끝장내어 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
그를 ‘유행자’라 부르오.”

이때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의 설법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환희심으로 가

득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상의를 걸치고, 합장하고 예의를 표하며, 세존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어울리는 게송으로 세존을 찬탄하였다.

(538) “사문들이 논쟁과 명칭과 개념적 지각에 의존하는
예순세 가지 이설(異說)을 제압하고,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거센 물결을 건너셨습니다.

(539) 당신께서는 괴로움 저 넘어 궁극으로 가신 분,
아라한, 올바르게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번뇌를 부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찬란히 빛나고, 이해가 깊고,
지혜가 충만하시며, 괴로움을 종식시킨 분이로서,
저를 [구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540) 당신께서는 저에게 의혹이 있음을 아시고
저를 의혹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예경 드립니다.
성인이시여, 성인의 길을 다하신 이여,
마음이 거칠지 않은 태양의 후예시여, 당신은 온화하십니다.

(541) 제가 지난날에 품어왔던 의문을
당신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눈[통찰지혜]을 가진 분이시며, 참으로 당신은 깨달은 성인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어떠한 장애들도 없습니다.

(542) 당신의 번뇌는 다 부서지고 그 줄기는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은 청량하고, 절제되어 있고, 견실하며,

진실로 정진하는 분이십니다.

(543) 코끼리 중에 코끼리이시며,
위대한 영웅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나라다 신과 뺨바따 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544)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예경 드립니다.
인간 가운데 위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께 예경 드립니다.
신들을 포함한 온 세상에서
당신과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45) 당신은 깨달으신 분, 붓다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를 정복한 성인이십니다.
당신은 잠재적 성향들을 끊고 스스로 [피안으로] 건넜으며,
또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546) 당신은 집착을 넘어섰고, 모든 번뇌를 부수었습니다.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난 사자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였습니다.

(547) 아름다운 흰 연꽃이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공덕과 죄악,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영웅이시여, 두 발을 내밀어 주십시오.
사비야는 스승님께 예경 드립니다.”

유행 수행자 사비야는 존귀하신 스승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절하고 나서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평마시여.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평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덜이어서 가려진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형색을 보리라’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취 주듯이, 존자 고평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비구들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세존 곁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존] “사비야여, 예전에 다른 교단에 있었던 사람이 이 가르침과 계율을 따라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한다면, 그는 닢 달 동안 시험 기간으로 살아야 하며, 닢 달이 지난 후 비구들이 흡족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 비구들은 그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비구임을 인정하는 비구계를 주오. 그러나 나는 이런 경우, 개인 간의 차별을 인정하오.”

[사비야]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만일 그러시다면 저는 닢 달 아니라 사 년 동안이라도

시험 기간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 년이 지난 후, 여러 비구들이 흡족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저에게 출가를 허락하시고 구족계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유행 수행자 사비야는 세존 앞에서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위엄

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 그는, ‘태어남은 이제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 해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았다. 그리하여 사비야 존자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 제3품 7경 <셀라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앙굿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라고 하는 앙굿따라빠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 이때 타래머리를 한 고행자 께니야는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

“사까족의 아들로서 사까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타마가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앙굿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라에 도착하셨다. 그 고타마 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널리 나 있다. 그 존귀하신 분은,

‘공양 받아 마땅하신 분[應供,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正等覺, 삼마삼붓대],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明行足],

피안으로 잘 가신 분[善逝],

세간을 잘 아시는 분[世間解],

가장 높으신 분[無上士],

인간을 잘 길들이시는 분[調御丈夫],

하늘[천신]과 인간들의 스승[天人師],

깨달으신 분[佛, 붓대], 존귀하신 분[世尊]’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들의 세계와 악마의 세계, 범천의 세계, 사문과 바라문을 포함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세상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

들도 알게 한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의미와 문장이 잘 갖추어진 담마를 가르치신다. 그는 완벽하고 청정한, 고귀한 삶을 보여주신다. 이제 그와 같은 아라한을 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리하여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할 만한 인사를 나누고는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세존께서는 고행자 께니야에게 담마에 의거하여 설법을 하시고, 분발시키고,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기쁘게 해주셨다.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으로부터 담마에 의거한 설법을 듣고, 분발되고, 영감을 받고, 기쁘게 되어 세존께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비구 승가 대중과 함께 내일 제가 드리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세존께서 고행자 께니야에게 말씀하셨다.

“께니야여, 비구 승가는 그 수가 상당히 많아 1,250명이나 되오. 뿐만 아니라, 그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소?”

두 번째에도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님, 비록 비구 승가 대중이 많아 1,250명이나 되고 또한 제가 바라문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비구 승가 대중과 함께 내일 제가 드리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고행자 께니야에게 말씀하셨다.

“께니야여, 비구 승가는 그 수가 상당히 많아 1,250명이나 되오. 뿐만 아니라, 그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소?”

세 번째에도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님, 비록 비구 승가 대중이 많아 1,250명이나 되고 또한 제가 바라문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비구 승가 대중과 함께 내일 제가 드리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이를 승낙하셨다. 그리하여 고행자 껌니야는 세존께서 승낙하심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암자로 돌아가서 친구와 동료, 그리고 친척과 가족들에게 말했다.

“친구와 동료, 그리고 친척과 가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 고타마를 비구 승가 대중과 함께 내일 공양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존자여.”

고행자 껌니야의 친구와 동료, 그리고 친척과 가족들은 그에게 답하고 나서, 어떤 이는 화덕을 파고, 어떤 자는 장작을 패고, 어떤 자는 그릇을 씻고, 또 어떤 자는 물병을 준비하며, 어떤 자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행자 껌니야 자신은 천막을 설치했다.

그때 아빠나에, ‘셀라’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 가지 베다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하여, 그 어휘, 의식, 음운론(音韻論), 어원론(語源論), 그리고 다섯 번째인 구전(口傳)에 능통하였다. 또한 관용구와 문법에 숙달하고, 자연철학과 위대한 인물의 특징에 관한 관상에 숙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삼백 명의 바라문 학인들에게 베다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무렵 타래 머리 고행자 껌니야는 바라문 셀라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바라문 셀라는 잠시 쉬기 위하여 삼백 명의 학인들에게 둘러싸여 이리저리 걷고 유행하다가 껌니야의 암자에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서 셀라 바라문은, 껌니야의 암자에 사는 타래 머리 고행자들이, 어떤 이는 화덕을 파고, 어떤 자는 장작을 패고, 어떤 자는 그릇을 씻고, 또 어떤 자는 물병을 준비하며, 어떤 자는 자리를 마련하고, 껌니야 자신은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다. 셀라가 이것을 보고 껌니야에게 물었다.

“존자 껌니야는 아들을 장가라도 보내는지요? 딸을 시집이라도 보내는지요? 아니면 큰 제사라도 지내게 되는지요? 아니면,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빔

비사라 왕과 그 군대를 내일 식사에 초대라도 하였는지요?”

“셀라 존자님, 저는 장가보내는 일도, 시집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빔비사라 왕과 그 군대를 내일 식사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큰 공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까족의 아들로써 사까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탓마가 1,25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앙굿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고탓마 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널리 나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분은,
‘공양 받아 마땅하신 분(應供,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正等覺, 삼마삼붓다),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明行足),
피안으로 잘 가신 분(善逝),
세간을 잘 아시는 분(世間解),
가장 높으신 분(無上士),
인간을 잘 길들이시는 분(調御丈夫),
하늘(천신)과 인간들의 스승(天人師),
깨달으신 분(佛, 붓다), 존귀하신 분(世尊)’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비구승가 대중들과 함께 내일 공양에 초대했습니다.”

[셀라] “붓다’라고 말했나요, 존자 께니야여?”

[께니야] “붓다’라고 말했습니다, 셀라 존자님.”

[셀라] “붓다’라고 말했나요, 존자 께니야여?”

[께니야] “붓다’라고 말했습니다, 셀라 존자님.”

그때, 바라문 셀라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붓다라는 이 소리는 이 세상에서 듣기 힘들다.

우리들의 성전 속에는, 위대한 인물의 32가지 특징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런 특징을 구비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그가 재가에 살면 그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법왕이요, 사방의 정복자로 국토와 백성을 안전케 하며, 일곱 가지의 보물을 소유한 왕이 된다. 즉 그에게는 수레바퀴 보물, 코끼리 보물, 말 보물, 보석 보물, 여자 보물, 신하 보물, 그리고 통치자 보물이다. 또 그에게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1,00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어 적군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지를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폭력 없이 무기 없이 담마(정법)로 정복하여, 다스린다.

그런데 그가 만약 집에서 나와 출가자가 된다면, 그는 아라한, 스스로 완전히 깨달은 자인 ‘붓다’가 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덮개를 걷어내게 될 것이다.’

[셀라] “존자 께니야여, 그러면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분, 그 고타마 존자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요?”

고행자 께니야는 오른팔을 들어 바라문 셀라에게 말했다.

“저기 작은 숲의 녹색 선이 있는 곳입니다, 셀라 존자님.”

그리하여 바라문 셀라는 300명의 학인들과 함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때 셀라 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 학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한 발 한 발 조심해 걷고, 조용히 따라오라. 여러 존귀하신 분들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으로 가까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문 고타마와 얘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바라문 셀라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공손한 인사를 나누고 한쪽에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라문 셀라는 세존의 몸 위대한 사람의 서른두 가지 특징이 있는지 살폈다. 이때 셀라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는 의심스럽고 당혹하여 마음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 두 가지란, 몸속에 씨우개로 감추어진 음부와 커다란 헛바닥이다.

이때 세존께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바라문 셀라는 내 몸에 있는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거의 보았지만, 다만 두 가지 특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의심스럽고 당혹하여 마음을 결정할 수 없었는데, 그 두 가지란, 몸속에 씨우개로 감추어진 음부와 커다란 헛바닥이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음부를 바라문 셀라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존께서는 반복하여, 헛바닥을 내밀어 양쪽 콧구멍과 양쪽 콧구멍에 닿게 하고 훔았고, 앞이마 전체를 헛바닥으로 덮었다.

그러자 바라문 셀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타마는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불완전함 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가 ‘붓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많은 연로하신 바라문들과, 스승들의 스승들에 의해 말해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즉, 아라한들, 온전히 깨달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찬탄을 받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알맞은 계승을 지어 고타마를 그의 앞에서 찬탄해 보리라.’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세존 앞에서 알맞은 계승을 지어 찬탄하였다.

(548) [셀라] “당신은 몸이 완전하여 찬란하게 빛나며,
태생도 훌륭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용모는 금빛으로 빛나며, 치아는 하얗고, 힘이 넘칩니다.

(549) 참으로 태생이 뛰어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위대한 사람의 상호로서, 당신의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550) 맑은 눈, 잘생긴 얼굴, 흰칠하고 단정하며, 위엄이 있어,
사문들의 대중 속에서 태양처럼 빛나십니다.

(551) 당신은 황금빛 같은 피부와 빼어난 용모를 지닌 비구인데,
무엇 때문에 고행[수행]자의 삶을 택하십니까?

(552) 당신은 전륜성왕이 되시어, 전차 위의 정복자,
사망에서 승리하는 잠부[인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553) 왕족과 지방의 왕들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따마시여, 왕 중의 왕으로서,
또한 인류의 제왕으로서 통치하십시오.”

(554) [세존] “셀라여, 나는 왕이지만, 더 없는 담마[진리의 왕이요.
그리고 담마로써 바퀴[法輪]를 굴리지요,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555) [셀라] “당신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고따마여, 당신은, ‘위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써 바퀴를 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56) 그러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당신의 상속자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에 의해 굴려진 이 진리의 바퀴를,

당신의 뒤를 이어 계속 굴릴 것입니까?”

(557) [세존] “셀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진리의 바퀴를,
사리뿔따[舍利佛]가 굴릴 것이오.
그는 여래의 자손[계승자]이오.

(558)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뉘어야 할 것을 이미 뉘었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소.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나는 붓다라오.

(559) 나에 대한 의혹을 버리시오, 바라문이여,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오.
올바르게 깨달은 분들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오.

(560) 나의 출현은 이 세상에서 또다시 얻기 어렵소.
나는 온전히 깨달은 사람, [괴로움의 화살을] 뽑아버린
최상의 사람[의사]이오.

(561) 나는 빼어난 존재로서 비길 데가 없으며,
마라[악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기쁨을 누리오.”

(562) [셀라가 제자들에게] “그대들이여,
눈을 갖춘 분의 말씀을 들어보라.
번뇌의 화살을 제거하신 분,
위대한 영웅께서 숲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신다.

(563) 지고의 존재로서, 비길 데가 없고,
악마의 세력을 무찌른 자를 보고 누가 믿지 않겠느냐.
비록 천한 태생이라 할지라도 믿을 것이다.

(564)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원하지 않는 자는 떠나거라.
나는 여기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께 출가하겠다.”

(565) [셀라의 제자들] “만일,
올바로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을 스승께서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께 여기에서 출가하겠습니다.”

(566) [셀라] “저희들 삼백 명의 바라문들은 합장하고 청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당신의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567) [세존] “셀라여,
청정한 삶은 잘 설해져 있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즉각적인 것이오.
그러므로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오.”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존 앞에서 출가를 허락받아,
구족계를 받았다.

한편, 타래 머리를 한 고행자 껌니야는 그날 밤을 지내고 자기 암자에서 맛
이 좋고 부드러운 음식을 마련해 세존께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고따마 존자님, 때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아침에,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비구 승가 대중
들과 함께 고행자 껌니야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

으셨다.

고행자 께니야는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들에게 손수 맛 좋고 부드러운 음식을 나르면서 맘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발우에서 손을 떼시자, 고행자 께니야는 한쪽 낮은 자리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어 고행자 께니야를 기쁘게 하셨다.

(568) “불의 헌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
사윗띠는 베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며,
바다는 모든 강 가운데 으뜸이니라.

(569) 달은 여러 별 가운데서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며,
공덕을 바라고 공양 올리는 사람들에게
승가는 [그중에서] 으뜸이니라.”

세존께서는 이러한 시구(詩句)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한편, 존자 셀라와 그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홀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굳건히 머물러, 오래가지 않아, 좋은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알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들은, ‘태어남은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 해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알았다.

그리하여 존자 셀라와 그 무리들은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셀라 존자와 그 무리들은 세존께 나아갔다. 다가가서 셀라 존자는 한 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세존께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세존께 말씀드렸다.

(570) [셀라] “눈뜬 분이시여,
오늘이 우리가 당신에게 귀의한 지 팔 일째입니다.
지난 칠 일 밤 동안 저희들은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571) 당신은 깨달으신 분, ‘붓다’이십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마라야매를 정복한 성인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잠재 성향을 제거하시고,
스스로 [거센 흐름을 건너시며,
또 사람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572) 당신은 집착을 초월하셨고,
모든 번뇌를 부수었습니다.
당신은 집착하지 않는 사자(獅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과 공포를 여의셨습니다.

(573) 여기 삼백 명의 비구들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발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들 코끼리들이 스승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전법은 인간계뿐만 아니라 윤회하는 세계인 비인간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아래의 계송들은 원전 제1품 9경 <헤마와따 경>에 나와 있는

비인간계의 존재인 야차들의 귀의에 관한 내용들이다. 제1품 9경 <해마와 따 경>의 전문은 본서 제1부 2장의 팔정도(페이지 82)에 수록되어 있다..

☞ ‘전법과 귀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

• 제1품 9경 <해마와 따 경>

(178) [야차 해마와 따] “참으로 우리는 오늘 멋진 광경을 보았고, 상쾌한 아침, 훌륭한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거센 물결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온전히 깨달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79) 여기 저희 일천의 야차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성도 갖고 있지만,

모두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위없는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180) 온전히 깨달으신 분과 그 가르침의 뛰어남에 예경 드리면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두루 다니겠습니다.”

제2절 업과 과보

‘업’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제따나)’를 말하며,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의도적 행위를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이라 한다. ‘과보’란, 우리가 지은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는데 이때 우리가 받는 결과를 과보라 한다.

경전에 나와 있는, ‘업과 과보’와 연관된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인용한다.

- *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나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AN10:205 <비뿔어집 경>
- * 의도적으로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그 과보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그 과보를 경험하지(받지) 않고서는 그것을 지울 수 없다. AN10:206 <의도 경>
- *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죽을 때 그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가노라. SN3:20 <무자식 경>
- * 모든 중생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업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악업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공덕 지은 중생들은 선처로 가리로다. SN3:22 <할머니 경>
- * 유익한 법들을 구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에 태어남이 예상된다. S22:2 <테와다하 경>

☞ ‘업과 과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들

- 1) 제3품 9경 <와셋타 경>

◎ 제3품 9경 <와셋타 경>

[어느 때 세존께서 잇차낭갈라에 머무실 때, 젊은 바라문 와셋타와 바라드와지는 산책하면서, '어떻게 하여 바라문이 되는 걸까?'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바라드와지는 혈통과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하고, 와셋타는 계행과 수행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고 각각 주장하여 서로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이에 두 사람은, 사문 고타마에게 가서 물어 보자고 합의하여 세존께 나아가 여쭙었다.]

(594) [와셋타] “저희 두 사람은 세 베다의 학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뽕까라사띠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따룩카의 제자입니다.

(595) 세 베다의 가르침을 우리는 완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베다의 어구(語句)와 문법에 정통하며 낭송은 스승과도 대등합니다.

(596) 고타마시여, 저희는 태생에 대하여 논쟁하였습니다.

바라드와지는 ‘혈통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 눈을 가지신이여, 이것이 우리의 논쟁이었음을 알아주십시오.

(597)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달으신 분으로 널리 알려진 존자님께 여쭙고자 여기 왔습니다.”

(600) [세존] “와셋타여, 살아있는 존재들의 출생의 구분을 차례로, 있는 그대로, 그대들에게 설명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생들이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601) 풀이나 나무들의 경우, 비록 그들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생겨날 때 이미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02) 나방이나 나비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개미들조차 생겨날 때 이미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03)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가진 짐승들도 생겨날 때 이미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07) 이처럼 여러 존재들은 출생에 따른 특징이 다양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출생에 따른 특징들이 없다.

(611) 각각의 인간들의 몸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인간들 사이에 있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이다.

(648)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나 가문은 이 세상에 있는 명칭일 뿐이다.
그것은 관습에 의해 만들어져 여기저기에 붙여지는 것이다.

(649)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견해가 오랫동안 잠재되어 왔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라고.

(650)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한다.

(651)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술자가 되며,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652)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에 의해 재판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653)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연기]을 보는 자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다.

(654) 세상은 행위에 의해 돌아가며, 인간도 행위에 의해 움직인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업에 묶여 있다,

마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축(軸)에 매여 있듯이.

(655) 수행에 의해, 청정한 삶에 의해,

감관의 수호와 자아 절제에 의해, 이것으로써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바라문이다.”

[이와 같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청년 바라문 와셋타와 바라드와지는 삼보에 귀의하여 재가 신자가 된다.]

◎ 제3품 10경 <꼬갈리아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따 숲, 아나따뻘디까 동산에 계셨다. 그때 비구 꼬갈리아가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예의를 갖추어 절한 뒤, 한쪽으로 물러앉아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존께서는 비구 꼬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꼬갈리아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비구 꼬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꼬갈리아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승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세 번째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꼬갈리아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에게 청정한 믿음을 가져라. 사리뵈따와 목갈라나는 선량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비구 꼬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하고 바른 쪽으로 돌아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자마자 그의 온몸에 겨자씨만 한 종기가 생겼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던 것이 차차 팔알만 해졌다. 팔알만 하던 것이 또 완두콩알만 해졌다. … 대추알만 해졌다. … 아말라까만 해졌다. … 덜 익은 칠엽수의 열매만 해졌다. … 익은 칠엽수의 열매만 해져서, 마침내 터져서 고름과 피가 되어 흘렀다.

꼬갈리아는 마침내 그 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사리뿔따와 목갈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卍두마 지옥)에 다시 태어났다.

그때 범천 사함빠띠가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 아름다운 얼굴로 제따 숲을 두루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 세존께 예를 갖추 인사를 드린 뒤, 한쪽에 물러서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비구 꼬갈리아는 죽었습니다. 비구 꼬갈리아는 사리뿔따와 목갈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죽어서 홍련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범천은 이렇게 말하며 스승님께 절하고 바른 편으로 돌아 사라졌다.

날이 밝자 붓다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어젯밤에 범천이 왔던 일을 말씀 하셨다. 그때 한 비구가 이렇게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비구여, 홍련지옥의 수명은 길다. 그것을 몇 년이라든가, 몇 백 년, 몇 천 년, 몇 만 년이라고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비유로써 설명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붓다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여, 이를테면, 꼬살라국의 말로 되어서 20카리(계량단위의 참깨 한 수레 분)이 있는데, 그것을 꺼낸다고 하자. 한 사람이 백 년마다 한 알씩 꺼내는 방법으로 20카리의 깨를 다 꺼낸다면, 그 기간은 1압부다지옥이다.

그리고 20압부다지옥은 1니랍부다지옥과 같다. 또 20니랍부다지옥은 1아바바지옥이며, 20아바바지옥은 1아하하지옥, 20아하하지옥은 1아따다지옥이며, 20아따다지옥은 1꾸무다[홍렌지옥과 같으며, 20꾸무다지옥은 1소간디까[백수렌지옥과 같으며, 20소간디까지옥은 1옴빠라까[청렌지옥, 20옴빠라까지옥은 1뽀다리까[백렌지옥, 20뽀다리까지옥은 1빠두마[홍렌지옥에 해당된다. 그런데 비구 꼬갈리아는 사리뽀따와 목갈라나에게 적의를 품었기 때문에 빠두마[홍렌지옥에 다시 태어났다.”

세존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른길로 잘 가신 분[선세, 스승께서는 계승으로 더 말씀하셨다.

(657) “사람이 태어날 때,
참으로 그 입안에 도끼가 생겨난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찌는다.

(658)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받을 사람을 비난하는 자, 그는 입으로 불운을 쌓고,
그 불운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659) 주사위[도박]로 재산을 잃은 자는,
비록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 불운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러나 바른길을 가는 성인들에게 악의를 품는 자의
불운은 참으로 큰 것이다.

(660) 악한 말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10만36니랍부다와 5압부다 지옥에 떨어진다.

(661)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또 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둘 다 똑같이 행동이 비열한 사람들이라,
죽은 후에는 저 세상에서 똑같이 된다.

(662) 죄악이 없고, 청정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을
중상하는 자에게는, 바람을 거슬러서 던진 먼지처럼,
반드시 그 악함은 그 어리석은 자에게 되돌아간다.

(664) 입이 험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여,
산 것을 죽이고 사악한 행위를 하는 자여,
비루하고 불량하고 비천한 자여,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말라.
그대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있나니.

(666) 어떤 업도 결코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오므로 행위자는 그것을 받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악을 짓고
저 세상에서 그 괴로움을 자신 속에서 보게 된다.

(667) 지옥에 떨어진 자는 쇠꼬챙이에 꿰이고, 날카로운 쇠창에 찢린다.
또한 불에 달군 쇠덩이 같은 음식을 [속세에서 지은 업만큼] 먹어야 한다.

(668) 지옥 문지기들은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상냥하지 않고, 의지가 되어 주지 않는다. 그는 숯불이 뿌려진 곳에 누워 불
붙는 화염 속에 들어가야 한다.

(669) [지옥 문지기들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그물에 몰아넣은 후 쇠팡치
로 내려친다. 그리고 철혹 같은 어둠 속에 가두는데, 그 어둠은 안개처럼 펼
쳐져 있다.

(670) 그리고는 펄펄 끓어오르는 구리로 만든 가마솥에 들어가야 한다.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삶기면서 몸은 뚝뚝 가라앉았다 한다.

(671) 또한 피와 고름이 가득 찬 솥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속에서 괴로
움을 당한다. 그는 어느 쪽으로 피신하든 괴고름 때문에 더럽혀진다.

(672)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물이 있어, 죄를 지은 자는 그 안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나오려 해도 붙잡을 것이 없다. 그 솥은 안으로 굽고 둘레가 모두
한결같기 때문이다.

(673) 칼날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 그 속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팔다리가 잘린다. 지옥의 옥졸들은 꼬챙이로 혀를 꿰어, 계속해서 난도질
하고 낚아채면서 괴롭힌다.

(674) 또한 예리한 칼날과 면도 칼이 놓여 있어서 통과하기 어려운, 웨따라
니 강에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곳에
떨어진다.

(675)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갈색 개, 점박이 개들이 그들을 뜯어 먹으며, 큰 까마귀와 굶주린 자칼들이 뜯어 먹고, 또한 매와 까마귀 떼들도 살을 쪼아 먹는다.

(676) 죄악을 지은 자가 가야 하는 지옥에서의 삶은 실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선행]을 충실히 하고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

(677) 지혜로운 사람들은, 홍련지옥에 떨어진 자의 수명을 수레에 실은 깨알의 수로서 헤아렸으니, 실로 5나유따 꼬띠에 1,200꼬띠를 합한 기간이다.

(678)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지옥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그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정하고 선량하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언어와 마음을 조심하여 잘 수호(守護)해야 한다.”

☞ ‘업과 과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136)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며,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 제2품 2경 <비린내 경>

(248)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 탐욕스럽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항상 [그런 일에 여념이 없는 자들은,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러, 머리를 거꾸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276) 논쟁을 즐기고, 어리석은 성품으로 덮여있는 비구는,
붓다가 친히 언명하며 가르치는 담마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277)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번뇌가 지옥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278) 타락한 곳에 태어나서는,
모태(母胎)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참으로 그러한 비구는 죽은 후에 괴로움을 겪는다.

• 제2품 10경 <용맹정진 경>

(333) 천신들과 인간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단단히 붙들고 있는 집착,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
기회가 그대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하라.
기회를 놓친 자들은 지옥에 도착하여 슬퍼한다.

• 제3품 4경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경>

(462) 태어난 가문을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숲에서 일어나듯이, 천한 집에서 태어난 자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제함이 확고하면,
지혜로운 성인이 되는 것이오.

• 제3품 8경 <화살 경>

(587)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죽어 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 생명 있는 존재들은, 여기에서, 죽음에 사로잡혀 떨고 있지 않는가.

(588)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세상에서] 떠남도 그와 같으니,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보라.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28) 세상에 있는 갖가지 형태를 지닌 모든 괴로움은,
집착의 대상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어리석은 자는,
반복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집착의 대상이 괴로움의 발생과 그 근원임을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집착의 대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선(善)과 불선(不善, 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업’을 쌓고 이에 따라 좋은 ‘과보’를 받아서 행복
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과 불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있어야 이

의 실천이 가능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간에서 말하는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경전에서는, 선(善)을 ‘열반으로 가는 데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10가지 선과 10가지 악을 설명하고 있다. (10선과 10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전 MN41 <살레야까 경>을 참조 바람)

여기에, 법구경(法句經, 담마빠다)에 있는 유명한 ‘칠불통계계’를 수록하여 선과 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제악막작(諸惡幕作) 어떠한 악행도 짓지 말고

중선봉행(衆善奉行)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며

자정기의(自靜其意)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는 것

시제불교(是諸佛教) 이것이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삼보에 귀의한 불제자들은 팔정도의 여덟 가지 실천 덕목을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것이 가장 뛰어난 선행이리라.

☞ ‘선과 불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6경 <파멸 경>

(94)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며,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겨 따르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 제1품 12경 <성인 경>

(215) [베틀의 북처럼 울곧게 자신의 내면을 확립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알아
모든 악한 행위에 넌더리를 내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64)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행을 행함에 방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279)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이 가득 차서 깨끗이 하기 어렵듯이,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참으로 깨끗하게 하기 어렵다.

(280)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삶에 집착하는 자이며,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악을 행하며, 악한 영역에 있는 자임을 알고서,

(281) 그대들은 모두 화합하여,
그런 자를 피하도록 하라.
그런 쓰레기는 던져 버려라.
그런 타락한 자는 쫓아내 버려라.

(283) 그리고는, 언제나 사띠를 지닌 청정한 사람들은,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면 서로 화합하며 사려 깊게[살게 되어,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399) 어리석은 자들은 술에 취함 때문에 악을 행하며,
또한 남들을 취하게 하여 역시 악을 저지르게 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즐겨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악덕의 원인을 피하도록 하라.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27) 온 세상에서, 안으로 밖으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본질을 알고,
묶임(집착)과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인간들과 천신들의 존경을 받는 '성인'이라 하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75)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한다.
세상에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은 짧은 것이라고 현자는 말하지 않았던가.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69) 지혜를 앞에 세우고, 선(善)함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여러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외딴곳에 거처하면서 겪는 불만을 참아야 하고,
비탄의 원인이 되는 네 가지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제3절 연기

‘무엇이 연기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아래에 인용하는 몇 가지 경전의 내용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세존]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도대체 어디서 늙음·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그러자 나는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요니소마나시까라)을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죽음이 있다.’라고 통찰지로서 관통하였다.”

DN15 <대인연경>

* 어떤 것이 연기인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老死)이 있다. 이것은 여래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되고 결정된 것이며, 조건 되는 성질이다. 여래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후에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이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SN12:20 <조건경>

*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형성(行)이, 형성을 조건으로 식(識)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名色)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六入)이, 여섯 감각을 조건으로 접촉(觸)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取)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有),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老死)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생긴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苦蘊)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하기 때문에 형성이 소멸하고, …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SN12:21 <십력경>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과 늙음·죽음에 이르는,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의 과정에 관계되는 열두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이 ‘12연기법’이며,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이 연기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체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기’와 연관된 내용이 추가 되어있는 원전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의 전문을 본서 제1부 1장 ‘사성제’에 배열하였으며, 여기 ‘연기’ 주제에도 그 계송 일부를 다시 배열하였다.

☞ ‘연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4품 11경 <말다툼과 논쟁 경>

◎ 제4품 11경 <말다툼과 논쟁 경>

(862) [질문자] “말다툼과 논쟁,
그리고 비탄, 슬픔, 인색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자만과 거만, 그리고 중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863) [세존] “말다툼과 논쟁은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일어나고,
비탄, 슬픔, 인색, 자만과 거만, 그리고 중상도 마찬가지이다.
말다툼과 논쟁은 인색함과 연계되어 있고,
논쟁이 일어나면 중상이 따른다.”

(864) [질문자]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에서 일어나며,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탐욕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갖는 갈망과 성취욕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865) [세존]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욕구[찬대]를 인연으로 일어난다.

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탐욕도 이것으로부터 일어난다.

또한 이것을 인연으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갖는

갈망과 성취욕이 일어난다.”

(866) [질문자] “그러면 욕구는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단정[판단]은 또한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 그 외에 사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일[현상]들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867) [세존] “욕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유쾌’와 ‘불쾌’, 그것에 바탕을 두고 일어난다.

물질[色]들이 ‘생성되는 것[존재]’과

물질[色]들이 ‘소멸되는 것[비존재]’을 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단정을 만들어낸다.

(868) 분노와 거짓말과 의혹,

이런 것도 [유쾌, 불쾌]에 두 가지가 있을 때 일어난다.

의혹이 있는 자는, 지혜의 길에서, 자신을 닦아나가야 한다.

사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다.”

(869) [질문자] “유쾌, 불쾌는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또 무엇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성과 소멸이라는 현상에 관하여,
무엇에서 그것이 일어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870) [세존] “유쾌, 불쾌는,
접촉[觸, 팻새을 인연으로 일어난다.
접촉이 없으면 그것들은 생겨나지 않는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현상들도
바로 그 접촉으로부터 생긴다고 나는 말한다.”

(871) [질문자] “접촉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소유욕[집착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무엇이 없을 때,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없어집니까?
또 무엇이 소멸하면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872) [세존] “접촉은 명색(名色)을 인연하여 일어난다.
모든 소유욕은 원함을 인연으로 일어난다.
원함이 없을 때는 ‘내 것’이라는 소유욕도 없어지며,
물질[색이 소멸하면 접촉은 일어나지 않는다.”

(873) [질문자] “어떻게 수행하는 자에게 물질[색이 소멸됩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은 어떻게 소멸되는지
제게 그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874) [세존] “지각(智, 산녀을 통하여 지각하지 않고,
잘못된 지각을 통하여 지각하지 않고,
모든 것에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 지각하지 않는,
이러한 경지를 얻은 사람에게 물질(物)은 소멸한다.
꼬리를 물고 증식하는 개념(概念)들은
지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875) [질문자] “우리가 물은 것을 당신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묻겠으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현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태가 존재의 가장 청정한 경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또 다르게도 말합니까?”

(876) [세존] “이 세상의 어떤 현자들은
이 상태가 존재의 가장 청정한 경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잔여 물질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877)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의존한 것’임을 알며,
그러한 의존의 속성을 알고, 깊이 성찰하는 성인은,
잘 알므로 해탈하여,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존재의 여러 가지 형태들과 만나지 않는다.”

• 제1품 9경 <혜마와따 경>

(168) [야차 혜마와따] “세상은 무엇에서 생겼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친교가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까?”

(169) [세존] “혜마와따여,

세상은 여섯 가지[여섯 감각 장쇠]로 인하여 생기며,

이 여섯 가지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섯 가지에 집착하며,

이 여섯 가지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 제3품 9경 <와셋타 경>

(653)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들은 조건적 발생[연게]를 보는 자로서,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다.

(654) 세상은 행위에 의해 돌아가며,

인간도 행위에 의해 움직인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업에 묶여 있다,

마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축[軸]에 매여 있듯이.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29)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되풀이하야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 무명에 있다.

(730) 이 무명이란 커다란 어리석음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731)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든,
그것은 모두 형성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형성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732) 괴로움은 형성이 원인이므로,
그 위험함을 알아서, 모든 형성을 그치고,
지각(慧, 산내을 중지하면, 괴로움은 부서지고 만다.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734) 어떤 괴로움이 생겨나든,
그것은 모두 식(識)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식이 소멸하면 괴로움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735) 괴로움은 식을 조건으로 일어나므로,
비구는 그 위험함을 알아서,
식을 고요히 가라앉혀, 갈망 없이,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

(736) 접촉에 이끌려 다니고, 존재의 흐름에 휩쓸리며,
그릇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속박(속쇄)을 끊기 어렵다.

(737) 그러나 접촉을 확실히 이해하고, 두루 잘 알아서,
접촉을 부수어 버린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기뻐하며,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738) 즐거운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혹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739)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알고,
‘허망한 것으로서 부서지기 마련인 것’임을 알아,
느낌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들의 사라짐을 보아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느낌들을 부수어,
비구는, 갈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온에 이르게 된다.

(740) 갈애를 벗 삼는 사람은,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41) 괴로움은 갈애로 인해 생김으로,
그것의 위험함을 알아서, 비구는, 갈애를 버리고 집착 없이,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742)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有, 바와]가 생긴다.

존재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743) 그러므로 바른 지혜를 가진 현자들은,

태어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

집착을 소멸시켜,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7) [세존] “아지따여, 그대가 질문한 이 물음,

‘어디에서 명색이 남김없이 종식되는가?’에 답하리라.

식[識, 윈나나]이 소멸될 때, 그때에 이것은 종식된다.”

제4절 윤회

‘윤회’라는 단어가 불교 핵심 용어 중의 하나이며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윤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아래에 인용한 몇 개의 경전과 원전(숫따니빠따)에서 모은 개송들을 잘 숙독 및 숙고하면 윤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갈애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SN15:10 <플과 나무 경>

* 이와 같이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DN15 <대인연 경>§22

* 어떤 것이 태어남(生, 자따)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이다.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짐, 희어짐,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觸)의 쇠퇴이다.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능(觸)의 끊어짐이다.

S12:2 <분석 경>

* “비구들이여,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꿩똥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긴 세월을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 사성제의 진리를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최대로 일곱 번만 더 치달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를 풀어서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 ‘윤회’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1경 <뱀 경>

(15)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고뇌에서 생긴 것들’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 제1품 2경 <다니아 경>

(29) [세존] “황소처럼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악취 나는 덩굴 풀을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는 모태(母胎)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 제1품 8경 <자애 경>

(152) 사된 견해 갖지 않고, 계행들을 잘 지키며, 통찰력을 갖추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제거되어, 다시는 윤회하는 태중에 들지 않으리.

• 제1품 9경 <해마와따 경>

(163) [야차 사따기라] “그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의 모든 번뇌는 소멸되었고,
그에게 다시 태어남은 없다.”

• 제2품 5경 <수절로마 경>

(273) [세존] “[괴로움에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근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거한다.
야차여 들어라,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건너기가 무척 힘들고 또한 이전에 건넨 적이 없는,
그 거센 흐름을 건넌다.”

•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278) 타락한 곳에 태어나서는, 모태(母胎)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참으로 그러한 비구는 죽은 후에 괴로움을 겪는다.

• 제3품 4경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경>

(474)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벗어남을 보며,
남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알려진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날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 제3품 5경 <마가 경>

(499) 평안을 얻어,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 태어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2)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며,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14) [세존] “사비야여,
스스로 길을 닦아 완전한 열반에 이르고,
의혹을 뛰어넘어, 존재도 비존재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존재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를 ‘비구’라 하오.

(517)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윤회와,
모든 정신적 허구들을 잘 살펴서, 티끌 없이 더러움 없이 청정하여,
다시 태어남을 부순 사람,
그를 ‘깨달은 분’이라 하오.

(520) 고요하며, 공덕도 악함도 버리고, 온갖 티끌을 떠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알고, 태어남과 죽음의 그 너머로 간 사람,
그를 ‘사문’이라 부르오.

(535) 모든 번뇌와 집착을 끊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태에 들지 않소.
세 가지 지각[감각적 쾌락, 분노, 폭력]과 진흙을 털어버리고,

허구[망상, 분별]에 빠져들지 않는 자,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24)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일어남을 모르며,
괴로움이 남김없이 소멸된 상태를 모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

(725) 그들에게는 마음에 의한 해탈[심해탈]도 없고,
지혜에 의한 해탈[혜해탈]도 없다.
그들은 [윤회를] 끝낼 수가 없어,
참으로 태어남과 늙음을 계속 겪는다.

(729) 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되풀이하여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근본 원인이 무명에 있다.

(730) 이 무명이란 커다란 어리석음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사람들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된다.

(742)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有, 바위가 생긴다].
존재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743) 그러므로 바른 지혜를 가진 현자들은,
태어남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
집착을 소멸시켜,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746) 존재에 대한 갈애를 끊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한 비구는,
거듭되는 태어남을 종식시켜, 더 이상 새로운 존재를 받지 않는다.

(752)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떨림이 없다.
그러나 의지하는 사람은 집착하게 되어,
이 세상의 존재에서 또 다른 존재로 전전하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754) 물질 속에 사는 존재들과, 비물질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
그들은 모두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755) 그러나 물질의 영역을 잘 알고,
비물질의 상태에도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소멸 가운데에서 해탈하여, 죽음에서 벗어난다.”

• 제5품 1경 〈서시(序詩) 경〉

(992) [천신] 바라문이며,
그분은 참으로 ‘온전히 깨달으신 분’으로서, 모든 현상에 통달해 있습니다.
모든神通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해로운 불선법(不善法)을 부수어서,
‘재생의 근거(우빠디)’가 완전히 소멸한 경지로 해탈하였습니다.

제5절 삼보 예찬

‘삼보’란, 부처님(佛)과 부처님의 가르침(法)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僧)의 세 가지 귀한 보물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삼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삼귀의’라 하며 불자는 승속을 막론하고 삼귀의가 기본이며, 재가자가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아지니면 재가 신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의지)은 오직 삼보뿐이며 그 외의 의지처는 모두가 형성된 것이고 무상하고 무너지기 쉽고 불안정 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보에 귀의하여 살아 갈 것을 강조하신다.

또한, 네 부류의 성인들 중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페이지 335참조)이 되는 조건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과 계율(팔정도의 ‘바른 말’과 ‘바른 행위’의 일곱 가지 항목)을 구족하는 것을 말씀 하시는데(§55:2 <깊이 들어감 경>),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 ‘삼보 예찬’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2품 1경 <보배 경>

◎ 제2품 1경 <보배 경>

(222) 여기 모인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땅에 있거나 공중에 있거나, 모두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음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라.

(223) 모든 존재들이여, 모두들 귀 기울이라.
밤낮으로 공양물을 올리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풀어라.
그리고 방일함 없이 그들을 보호하라.

(224)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이나
또는 천상의 어떤 훌륭한 보배라 할지라도,
참으로 여래와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붓다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5) 사까족의 성인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하신,
[갈애를] 부숨, 욕망을 없앴, 그리고 죽음이 없는 숭고한 경지,
그 담마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담마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6) ‘위없는 스승 붓다께서 찬탄하신 청정한 삼매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삼매이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훌륭한 보배는 담마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7) 선한 분들이 찬양하는,
네 쌍으로 이루어진 여덟 무리의 사람들[四雙八輩]이 있다.
이들은 ‘바른길로 잘 가신 분[善逝]’의 제자들로서
공양 받을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공양 올린 사람은 큰 결실을 얻으리라.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8) 확고한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고따마의 가르침에 따라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고, 불사(不死)에 뛰어들어,
평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9)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속 깊이 묻히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선량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0) 심오한 지혜를 가진 분이 잘 설해 놓으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설사 그들이 자주 방일하더라도,
여덟 번째의 존재를 받지 않는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1) [그게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세 가지가 버려진다.

즉 자아가 존재하다는 그릇된 견해, 의심, 그리고 계행과 준수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버려진다.

그는 네 가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여섯 가지 큰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2) 설사 그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한 행을 하였더라도, 그는 이를 감출 수 없다.
궁극(窮極)의 경지를 본 사람은 이를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3) 이른 여름의 첫더위에 우거진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우듯,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이 되는
열반에 이르는 오묘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훌륭한 보배는 붓다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4) 위없는 분, 위없는 것을 아시는 분,
위없는 것을 주고, 위없는 것을 가져오시는 분께서
위없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 훌륭한 보배는 붓다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5) 과거는 부서져 버렸고, 새로운 시작은 짓지 않으며,
그 마음은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번뇌의 종자를 부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이렇게 등불처럼 꺼져 열반에 이른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6)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여,
땅에 있거나 공중에 있거나,
신과 인간들이 다 같이 공경하는 여래,
그분 붓다께 예경 드리자. 행복하기를!

(237)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여,
땅에 있거나 공중에 있거나,
신과 인간들이 다 같이 공경하는 담마에
예경 드리자. 행복하기를!

(238) 여기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여,
땅에 있거나 공중에 있거나,
신과 인간들이 다 같이 공경하는 승가에
예경 드리자. 행복하기를!

제2장

수행(修行)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의 내용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겠다.

여기 제2장에 수록한 경들과 계송들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팔정도의 여덟 가지 실천덕목에 추가하여 수행자가 닦아야 할 몇 가지 ‘수행법’들에 관한 내용들이 명쾌하고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우리에게, ‘수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갖게 하고 환희심을 불러 일으켜 수행에 대한 열의를 고양시켜 준다.

이에 따라 제2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제1절 수행자

제2절 수행법

제1절 수행자

여기에 수록한 원전의 경들과 계송들에는, ‘수행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묘사되어 있고 그 분량도 방대하여, 수행자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수행자로서 알아야 할, ‘도반’에 관한 내용, ‘출가와 재가’에 대한 설명, ‘출가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수행 일반’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경과 계송들을 모아서 여기에 같이 실었다.

☞ ‘수행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여섯

- 1)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 2) 제1품 5경 <쫓다 경>
- 3) 제2품 4경 <큰 축복 경>
- 4) 제2품 8경 <나룻배 경>
- 5) 제4품 14경 <서두름 경>
- 6)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35)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고,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해치지 말며, 자식을 바라지도 말라,
하물며 친구이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36) 서로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생기고,
애정으로 인하여 괴로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살피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37)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면,
마음이 묶여서, 유익함을 저버리게 된다.
사킴에서 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살피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38)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가지가 뻗어 무성한 대나무가 엉켜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대나무 순은 서로 달라붙지 않듯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39) 묶여 있지 않은 사슴이 숲에서 목초지를 찾아,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찾아,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0) 동행이 있으면,
쉬거나 섰거나 걸어가거나 유행하는 중에, 항상 요구가 많다.
남이 탐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찾아,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1) 동행이 있으면 유희와 즐거움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애정은 더욱 커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싫다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2) 네 방향에 [속해] 있고, 적의가 없고,
얻은 것은 무엇이든 만족하며, 여러 장애들을 잘 참아내고, 두려움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3) 집에 사는 재가자들이 그러하듯이,
어떤 출가자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에 관심 두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4) 잎이 떨어진 꼬빌라라 나무처럼,
재가 생활의 특성들을 떨쳐 버리고,
용기 있는 자는 재가의 속박들을 끊고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5) 만일 그대가, 선한 삶을 살며 결의가 굳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런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띠를 지니고서, 그와 함께 가라.

(46) 그러나 만일 그대가, 선한 삶을 살며 결의가 굳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런 동반자를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7) 참으로 우리는, 뛰어난 교우관계를 찬미한다.
자기보다 낮거나 동등한 친구와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이러한 벼슬 얻을 수 없으면, 허물없이 살아가며,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8) 금 세공사(金細工士)에 의해
잘 만들어진 빛나는 두 개의 황금 팔찌가,
한쪽 팔에 있으면 서로 부딪치는 것을 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9) 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잔소리와 말다툼이 일어나리라.
장차 이런 두려움이 있음을 잘 살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0) 참으로 감각적 쾌락들은, 현란하고 감미로우며 즐거워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혼란시킨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 속에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1) 이것이 나에게는
불운이요, 중기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화살이요, 공포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2)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바람과 뜨거운 햇볕, 쇠파리와 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참아내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3) 육중한 잔등을 가진, 점이 있고 웅장한 코끼리가,
그 무리를 떠나서 마음껏 즐기며 숲에서 살아가듯,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4) 사교적 모임을 즐기는 사람은, 일시적 해탈에도 이를 수 없다.
태양의 후예가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5) '그릇된 견해의 왜곡에서 벗어나, 확실한 단계에 이르렀고,
바른길을 얻었으니, 나에게 지혜가 생겨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6) 탐욕 없이, 속임 없이, 갈망 없이, 위선 없이,
더러움과 미혹을 날려버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원함도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7) 이롭지 못한 것을 찾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사건에 빠져있는 자, 방일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8) 널리 배워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고,

탁월하고 고매한 친구와 사귀어라.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고, 의혹을 제거하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9) 세상에 있는 유희나 즐거움, 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이 없는 줄을 알아, 이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꾸밈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0)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과 곡식, 친척들,
그리고 감각적 쾌락의 한계까지 모두 버리고 떠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1) '이것은 속박이다.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적고 만족은 없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것은 낚시바늘이다'라고 분명히 알아, 현명한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2) 물속의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불이 다 타버린 곳으로는 [불에]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족쇄를 끊어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63) 눈은 아래로 뜨고, 주의 깊게 걷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을 지켜 보호하며,
번뇌가 흘러나오거나, 번뇌의 불에 타는 일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4) 잎이 떨어진 빠리찰따 나무처럼,
재가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5) 맛에 탐닉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부양할 사람 없이, 문전마다 [가리지 말고] 차례로 탁발하며,
이집 저집에 마음이 묶이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6)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五蓋]를 제거하고,
모든 정신적 오염들을 몰아내고,
의존함 없이, 애정과 미움 모두 끊어버리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7)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도 버리고,
환희와 슬픔도 버리고, 청정하고 고요한 평정을 얻어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8)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 힘써 정진하며,
마음의 나태 없이 방일함 없이, 확고한 노력으로, 강한 힘을 갖추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69) 홀로 앉아 선사(禪思)하고 선정(禪定) 닦음에 게으르지 말며,
모든 일을 오로지 담마(법)에 따라 행하며 살고,

존재들 가운데에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0) 갈애의 소멸을 열망하고, 깨어있고 총명하며, 배워 익히고,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담마를 확실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힘차게,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1)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3) 자애·평정·연민·같이 기뻐함[사무량심에 의한
해탈을 때맞추어 닦고, 모든 세상과 어떤 다툼도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4)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결박의 족쇄들을 부수고,
목숨이 끊어져 없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75)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과 사귀고 또 남을 섬긴다.
오늘날, 이익 없이 남과 사귀는 벗들은 보기 드물다.
자기 이익에만 밝은 자는 순수하지 못하니,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5경 <쭈다 경>

(83) 대장장이 아들 쭈다가 말했다.

“지혜가 충만하신 성인, 붓다(깨달으신 분), 진리의 주인,
갈애를 떠나신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인간을 길들이는 데 가장 뛰어나신 분에게 여쭙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문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84) [세존] “쭈다여, 네 종류의 사문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없다.

이제 그대의 물음에 분명히 답 해주겠다.

그것은, ‘길의 승리자’, ‘길을 안내하는 자’, ‘길에서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이다.”

(85) [쭈다] “붓다들께서는 누구를 ‘길의 승리자’라고 하십니까?

또, ‘길을 안내하는 자’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과 견줄 바가 없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사는 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86) [세존] “의혹을 넘어서고, [번뇌의] 화살을 벗어나고,

열반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탐욕도 없이,

신들을 비롯한 이 세상을 안내하는 사람, 붓다들은 그를

‘길의 승리자’라고 말한다.

(87) 이 세상에서 위없는 것을 위없는 것으로 알고,

담마(진리)를 설하고 분석하고, 의혹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난 성인, 그를 두 번째 비구로서,

‘길의 안내자’라 부른다.

(88) 잘 설해진 담마(가르침)의 길에서,
스스로 절제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허물없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 그를 세 번째 비구로서,
‘길에서 사는 자’라 부른다.

(89)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며, 오만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무모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자제하는 마음이 없고, 말이 많으며,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를
‘길을 더럽히는 자’라 부른다.

(90)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로운 재가(在家)의 성스러운 제자라면,
그들이 모두 이처럼 같지 않음을 알고 보아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가 어찌,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
칭정한 자와 칭정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볼 수 있겠는가.”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따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마침 어떤 천신이 날이 샅 무렵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 숲을 두루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다가와서 그 천신은 계송으로 여쭙었다.

(258)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축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최상의 축복에 관해 말씀하여 주소서.”

(259) [세존]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0)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어,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1) 많이 배우고, 바른 기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며, 선한 말로 의미 있게 말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2)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3)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척을 보살피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4)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행을 행함에 방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5)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6) 인내하고 온화하며,
수행자들을 만나고,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7) 부지런히 정진하며, 청정하게 살고,
거룩한 진리를 통찰하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8)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9) 이러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아가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행복하리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2품 8경 <나룻배 경>

(316)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서 알게 되었다면,
마치 여러 신들이 인드라 신(제석천)을 공경하듯,
그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배움이 깊은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밝혀 보인다.

(317)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여 부지런히 배우면,
그는, 많이 아는 자, 슬기로우 예리한 자,
지혜로우 기민한 자가 된다.

(318) 그러나 만약 그가,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찬 소인배나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어울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319) 마치, 사람이 거센 물결의 강물에 빠지면
사나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겠는가.

(320)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배운 이로부터 그 의미를 듣지도 않으며,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또 의혹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그런 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321) 그러나 견고하게 만들어진 배를 타고,
노와 키를 갖추고, 그것들을 잘 알고 능숙하며,
여러 방법들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게 할 수 있다.

(323) 그러므로 참으로 현명하고 많이 배운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의미를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서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는 평안을 얻게 되리라.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5) [질문자] “태양족의 후예이신 위대한 선인께,
홀로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는 일과, 평안의 경지에 대해 여쭙니다.
비구는 어떻게 보아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열반을 이룹니까?”

(916) [세존] “지혜로운 자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애들이라도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자신을 수련하여야 한다.

(917) 안으로든 밖으로든,
어떤 현상을 그가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분들은 그것을 ‘고요함’이라 부르지 않는다.

(918) 그러기 때문에, ‘나는 뛰어나다’, ‘나는 열등하다’
또는 ‘나는 동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919) 비구는 안으로 평온해야 한다.
밖에서 평온함을 찾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 평온한 사람은 취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버릴 것이 있으랴.

(920) 바다 한가운데는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듯이,
그처럼 동요함 없이 [고요해] 멈추어라.
비구는 어디에서든 파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921) [질문자] “눈을 뜨신 분께서는 직접 체험하신,
장애들을 제거하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수행법과 계율의 규정[빠띠목캐과
삼매에 대하여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922) [세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 없이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세간의 저속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맛에 탐착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가져서는 안 된다.

(923) 고통과 당면할 때에도, 비구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의 존재도 갈망해서는 안 되며,
두려운 상황에서도 떨지 말아야 한다.

(924) 음식과 음료, 그리고 먹을 만한 것들과

입을 옷을 언더라도, 그것들을 쌓아 두어서는 안 되며,
또 그런 것을 얻지 못했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925) 분주히 돌아다니는 자가 아닌,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게을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비구는 앉을 자리와 누울 곳이 있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

(926)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하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
게으름, 위선, 웃음, 오락, 성적 행위, 개인 장신구들,
이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927) 주술, 꿈의 해몽, 징조를 점치거나 또는 점성술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제자는, 동물의 소리로 점을 치거나,
임신을 시키는 술수나 치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928) 비구는 비난을 받더라도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서는 안 되며,
탐욕과 인색과 성냄과 중상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929) 비구는 사고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귀어도 안 된다.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930) 또 비구는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되며,
마음속에 동기를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뻔뻔스러운 행위를 배워서 안 되며,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 된다.

(931)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기만하는 어떠한 행위도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지혜,
혹은 자신의 계행과 준수 등으로 [자만하여]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932) 사문이나 일반 사람들로부터 여러 말을 듣고서 화가 나더라도,
그들에게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선한 사람들은 앙갚음하지 않기 때문이다.

(933) 비구는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성찰하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수행하여야 한다.
고요함이 평안임을 알고, 고탓마의 가르침에 방일하지 말라.

(934) 그는 패한 일이 없는 승리자이다.
그는,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를 보았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의 가르침에 방일하지 말고,
항상 가르침을 공경하고, 사띠를 확립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배워 익혀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 제4품 16경 <사리뵏따 경>

(955) [사리뵏따] “무리의 지도자로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어,
그와 같이 훌륭하게 설법하시는 스승에 대하여,
저는 아직까지 본 일도 없고 누구로부터 들은 적도 없습니다.

(956) 눈[통찰력]을 가지신 분께서,
천신들이 함께하는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모든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고
홀로 진리의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957) 집착 없이 결립 없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오신 붓다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958) 비구는 [번잡한 세간]을 싫어하여,
아무도 없는 곳이나 나무 아래, 혹은 묘지나
산골짜기의 동굴 속을 거처로 합니다.

(959) 고요한 거처에서 비구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여러 거처들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960)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장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런 외딴곳에 살면서 비구가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961) 그의 말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한 행동에 의지해야 합니까?
굳은 결의를 가진 비구에게 계행과 준수는 어떠해야 합니까?

(962) 마음을 통일시켜서 머물고, 사려 깊으며,
사띠를 지니는 그가, 어떠한 뉘음을 배워 익혀야,
마치 대장장이가 은의 때를 제거하듯이,
자신의 때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까?”

(963) [세존] “사리뿔따여, 싫어하여 떠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외딴곳에 기거하는 자에게,
무엇이 편안한 경지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담마에 따라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964) 슬기로우며, 사띠를 지니고 절제된 행위를 하는
비구는, 다섯 가지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쇠파리, 날벌레[모기 등], 뱀, 사람과 마주침,
네 발 가진 짐승들이다.

(965) 이교도들이 문제를 일으켜 괴롭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선(善)함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장애들도 모두 이겨내야 한다.

(966) 질병을 만나고 굶주림에 처하더라도 참아내야 하며,
추위와 무더위도 견뎌내야 한다.

저 집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머물러야 한다.

(967)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물을,
자애의 마음으로 채워서 대하라.
마음이 혼란함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이 '악마의 패거리'라고 알아,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968) 분노와 교만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또 유쾌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모두 견뎌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정복해야 한다.

(969) 지혜를 앞에 세우고, 선(善)함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여러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외딴곳에 거처하면서 겪는 불만을 참아야 하고,
비탄의 원인이 되는 네 가지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970)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어젯밤 나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집 없이 유행하며 배우는 중에 있는 수행자(有學尼),
이러한 비탄을 야기하는 걱정들을 몰아내야 한다.

(971) 적당한 때 음식과 옷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지키고, 마을에서는 조심스레 행동하고,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어도, 거친 말로 대꾸해서는 안 된다.

(972) 눈은 아래로 뜨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며,
선정[수행]에 전념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삼매를 개발하여 평정을 닦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후회하는 마음을 없애고, 생각하려는 경향[성행]을 잘라내야 한다.

(973)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띠를 지닌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974) 또한 세상에는 다섯 가지 티끌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띠를 지니고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

(975)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 마음을 잘 해탈시켜,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적합한 때에 담마를 올바르게 깊이 살피고,
마음을 통일시켜 어둠[무명]을 걷어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 ‘수행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41) 그는 진실해야 하고, 오만하지 않아야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성냄이 없이 탐욕과 인색의 사악함을 건너야 한다.

(942) 마음이 열반으로 향해있는 사람은,
즐음과 해태와 혼침을 극복해야 하며,
방일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거만을 부려서도 안 된다.

(943)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물질[형생]에 애착을 갖지 말라.
아만심을 철저히 알고, 무모하지 말라.

(944) 지나간 것에 즐거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좋아함을 만들지 말라.
사라져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잡아끄는 [갈애]에 붙잡히지 말라.

(949) 과거에 속해 있는 것은 완전히 말려 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만약 중간[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하게 유행하리라.

1) 도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서는,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은 청정 범행의 절반이 아니고 전부이다. 비구가 좋은 도반과 사귀면 그는 팔정도를 열심히 닦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S45:2〈절반 경〉과 S45:3〈사리뿔따 경〉) 수행자에게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리라.

☞ ‘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2품 3경〈부끄러움 경〉

◎ 제2품 3경 〈부끄러움 경〉

(253) 부끄러움(慚, 히리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싫어하여,
‘나는 그대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254) 여러 친구들에게,
행함이 없이 말만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그는 말뿐이지 실제로 실천하지 않을 자임을
현자는 잘 알고 있다.

(255) 항상 전전공공하며 경계하고,
사이에 금이 갈까 염려하면서도,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듯 그에게 의지하며,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256) 좋은 결실과 이로움을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기쁨을 낳고 찬탄 받는 행복을 가져오는 터전을 닦는다.

(257) '멀리 벗어남'의 맛을 누리고,
'고요한 평안함'의 맛을 누리는 사람은,
고뇌에서 떠나고 악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에서 희열을 누린다.

☞ '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45) 만일 그대가, 선한 삶을 살며 결의가 굳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런 동반자를 얻게 되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똘을 지니고서,
그와 함께 가라.

(46) 그러나 만일 그대가, 선한 삶을 살며 결의가 굳고
사려 깊고 현명한, 그런 동반자를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47) 참으로 우리는, 뛰어난 교우관계를 찬미한다.
자기보다 낮거나 동등한 친구와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이러한 벼를 얻을 수 없으면, 허물없이 살아가며,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7) 이롭지 못한 것을 찾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사건에 빠져있는 자, 방일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58) 널리 배워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고,
탁월하고 고매한 친구와 사귀어라.
유익한 길을 분명히 알고, 의혹을 제거하여,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59) [세존]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2품 8경 <나룻배 경>

(318) 그러나 만약 그가, 아직 진리를 보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찬 소인배나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어울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2) 출가와 재가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큰 의문과 갈등 중의 하나가 ‘출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이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나 해답을 얻기는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수많은 요인들, 예를 들면 본인이 처한 현재 주위의 상황, 본인의 과거 업,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향, 앞으로의 삶의 방향, 등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본인이 쌓아온 지혜의 힘이고 또 하나는 유용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참된 사람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리라.

다음에 수록하는 경에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으니, 출가와 재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출가와 재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2품 14경 <담미까 경>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담미까라는 재가 신도가 오백 명의 신도들과 함께 세존께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담미까는 세존께 다음과 같이 계송으로 여쭙었다.

(376) “지혜가 광대하신 고타마시여, 당신께 여쭙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은, 집을 나와 출가하는 것과,
집에서 믿는 재가 신도와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383)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서 설하신 이 진리는 오묘하며 또한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바라오니 저희들에게 설법해 주십시오, 위대한 붓다시여.

(384) 여러 비구들과 재가 수행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마치 여러 신들이 인드라 신의 이야기를 듣듯이,
티 없는 분이 깨달으신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385) [세존] “비구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대들에게 번뇌를 없애는 가르침을 말하겠노라.
그대들은 모두 이를 마음에 새겨서 잘 실행하라.
유익함을 보는 사려 깊은 사람은,
출가자에게 합당한 행동 방식을 닦아 행해야 한다.

(386) 비구는 때가 아닌 때에 돌아다니지 말라.

정해진 시간에 탁발을 위해 마을에 가라.
때가 아닌 때에 돌아다니면 집착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깨달은 분들은 적당치 않은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87) 갖가지 모양과 소리와 맛과 냄새와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정한 시간에 탁발을 위하여 마을에 들어가라.

(388) 그리고 비구는 바른 때에 탁발로 얻은 음식을
가지고 홀로 돌아와 외딴 곳에 앉으라.
내면을 응시하여, 마음이 밖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정신을 잘 가다듬어야 한다.

(389) 만일 제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비구와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말해 주어라.
남을 이간시키거나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390) 흔히 자기를 비난하는 말에 곧잘 적의를 품는다.
이처럼 웅졸한 자를 우리는 칭찬하지 않는다.
집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들러붙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깊숙이 말려들게 하기 때문이다.

(391) 지혜가 뛰어난 분의 제자는,
'바른길로 잘 가신 분'의 이 가르침을 듣고,

탁발 음식과 거처와 잠자리와 깔개,
그리고 가사의 때를 씻을 물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92) 탁발 음식과 거처와 잠자리와 깔개, 그리고 가사의 때를 씻을 물,
이러한 것들에 의해 비구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393) 다음은, 어떻게 행하여야 훌륭한 재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재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오로지 출가 비구에게만 주어지는 규정을,
소유의 번거로움이 있는 사람이 지킬 수는 없다.

(394)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존재에 대해 폭력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는 안 되며,
남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살해하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395) 그리고 제자는,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어디에서라도, 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시켜 빼앗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갖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396) 지혜로운 사람은,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순결하지 못한 행위(음행)를 삼가야 한다.

만일 순결하게 [독신으로]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397) 모임에서나 집단에서나 또는 한 개인에게라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닌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398)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술을 마서서는 안 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아,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며,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동의해서도 안 된다.

(399) 어리석은 자들은 술 취함 때문에 악을 행하며,
또한 남들을 취하게 하여 역시 악을 저지르게 한다.
어리석은 자들이 즐겨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이 악덕의 원인을 피하도록 하라.

(400)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순결치 못한 성적 행위를 삼가라.
밤에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

(401) 꽃다발을 갖거나 향수를 사용하지 말라.
땅바닥에 깔개를 깔거나 침상에서 자도록 하라.
‘이것이, 괴로움을 끝낸 붓다께서 가르치시는
여덟 부분으로 이루어진 우뽀사타[포살]’라고 그들은 말한다.

(402) 각 보름 기간[2주간의 제14일과 제15일과 제8일에,
그리고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덟 부분으로 된 완전한 형태의 우뽀사타를 행하고,

(403) 우뽀사타를 행한 지혜로운 자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비구 승가에 음식과 음료를 베풀어라.

(404) 올바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올바른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재가자는,
‘스스로 빛이 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3) 출가 수행자

부처님께서서는 설법을 듣는 대중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여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출가 수행자를 위해 설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경
세 개를 모아보았다.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해탈, 열반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출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 수록하는 경들의 말씀에서 그 명백한 답을 얻고 흔들림 없는 길을 갈 수 있으리라.

☞ ‘출가 수행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셋

- 1)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 2) 제2품 11경 <라홀라 경>
- 3)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 제2품 6경 <올바른 삶 경>

(274)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이를 최상의 보물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만약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가,

(275) 입이 거칠고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악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더러운 먼지로 오염시킬 것이다.

(276) 논쟁을 즐기고, 어리석은 성품으로 덮여있는 비구는,
붓다가 친히 언명하며 가르치는 담마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277) 그는 무명에 이끌려,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번뇌가 지옥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

(278) 타락한 곳에 태어나서는,
모태(母胎)에서 모태로, 암흑에서 암흑으로 전생(轉生)하며,
참으로 그러한 비구는 죽은 후에 괴로움을 겪는다.

(279) 마치 똥구덩이가 세월이 지나면
똥이 가득 차서 깨끗이 하기 어렵듯이,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참으로 깨끗하게 하기 어렵다.

(280)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삶에 집착하는 자이며,
악을 원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악을 행하며,
악한 영역에 있는 자임을 알고서,

(281) 그대들은 모두 화합하여,
그런 자를 피하도록 하라.
그런 쓰레기는 던져 버려라.
그런 타락한 자는 쫓아내 버려라.

(282) 그리고는, 수행자가 아니면서도 수행자인 체하는,
그런 왕겨들을 쓸어내 버려라.
악을 원하고, 악을 행하며, 악한 영역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날려 버리고,

(283) 언제나 사띠를 지닌 청정한 사람들은,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면 서로 화합하며 사려 깊게 [살게] 되어,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룰 것이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35) [세존] “라홀라야, 늘 가까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너는 어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햇불을 비취주는 분을
너는 존경하고 있느냐?”

(336) [라홀라] “저는 늘 가까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어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햇불을 비취주는 분을
저는 언제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337) [세존]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338) 선한 친구와 사귀라.
마을에서 떠나 한적하고 외떨어진 곳에 거처하라.
그리고 음식에 적당량(量)을 알라.

(339) 가사, 탁발 음식, 필수 의약품, 침구와 깔개,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라.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라.

(340)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며,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윤회하는]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여 떠나라.

(341) 욕망에 연결된 아름다운 감각 대상의
표상[모양, 니밋따]을 취하지 말고,
‘부정(不淨)한 것’이라고 마음을 닦되,
마음이 한 곳으로 잘 집중되도록 하라.

(342) 표상이 없는[無相] 경지를 닦아라.
아만(我慢)의 잠재적 성향을 버려라.
아만을 그치면, 고요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리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라훌라 존자에게
이러한 계송들로써 자주 가르치셨다.

◎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359) [질문자] “지혜가 충만하고, 거센 물결을 건너
피안에 도달하여 완전한 열반을 얻고, 자신을 바로 세운 성인께 여쭙니다.
집을 나와 출가하여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수행하는 비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할 수 있습니까?”

(360) [세존] “길조(吉兆)의 점, 별자리의 점,
해몽, 관상 보는 일을 뿌리째 근절하고,
[길, 휘] 전조의 폐단을 완전히 버린 비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1) 비구가 인간계와 천상에 대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가르침을 이해하고, 존재를 초월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2) 비구가 등 뒤에서 이간질하는 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유쾌함[만족]과 불쾌함[불만족]을 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3)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모두를 버리고,
그 무엇에도 집착을 갖지 말며,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4) 집착의 대상[우빠데]에는 어떤 실체도 없음을 알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함과 탐욕을 버리고,
의존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5) 말과 생각과 행위에 어긋남이 없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6) 비구가, '그는 나를 존경한다'라고 생각하여

의기양양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않으며,
남들로부터 많은 음식을 얻었다 해서 교만을 부리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7) 비구가, 탐욕과 [윤회하는] 존재를 버리고,
[생명체를] 자르거나 결박하여 해치는 것을 삼가고,
의혹을 넘어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69) 어떤 잠재적인 성향도 갖지 않고,
나쁜 뿌리들이 뽑혀서,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으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1) 믿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확고한 길을 보는 지혜로운 자가,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맹종하지 않으며,
탐욕과 증오와 분노를 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2) [무명의] 덮개를 제거한 청정한 승리자,
가르침에 통달하고, 피안에 이르러, 마음의 충동이 없고,
형성[行, 상카라]의 소멸에 대한 앎에 능숙하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3) 과거나 미래의 일들에 대한 헤아림을 뛰어넘고,
청정에 대한 지혜가 있어
모든 감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4) 진리를 꿰뚫어 알고, [각각의] 단계를 이해하여,
모든 집착의 제거로 번뇌가 버려짐을 확실하게 본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375) [질문자] “존귀하신 스승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비구는,
스스로 절제하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할 것입니다.”

4) 수행 일반 사항

우리가 사성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수행법을 부지런히 닦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지혜를 계발하여 우리의 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지혜의 힘으로 욕탐과 성냄을 제거하여 갈애를 소멸시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온과 평화를 이루고자 함일 것이다. 이러한 길을 가는 수행자는, 항상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계송들을 모아보았다.

☞ ‘수행 일반 사항’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4경 <까시 바라드와자 경>

(77) [세존] “믿음이 씨앗이고,
고행[감각기관 제에이 비[雨]이며,
지혜는 내 명에와 쟁기이다.
부끄러움[慚, 히리는 쟁기 자루이며,
마음[마노]은 명에의 끈,
사띠는 쟁기 날과 [소몰이] 막대이다.

(78) 몸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며, 배에 알맞게 음식의 양을 절제하고,
진리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며, 온화함이 명에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79) 노력은, 내 집을 진 황소로, 속박에서 평온으로 나를 인도해준다.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된다.

(80) 이 발갈이는 이와 같이 이루어져 불사(不死)의 열매를 거두며,
이와 같이 발갈이를 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184) [세존] “믿음으로써 거센 물결을 건너며,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바다를 건넌다.
노력으로써 괴로움을 극복하며,
지혜로서 완전히 청정해진다.

(186) 열반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라한의 가르침을 믿고,
방일하지 않으며 주의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 제2품 9경 <계행이란 무엇인가 경>

(329) 이해가 되는 내용은 훌륭히 설해진 말씀의 핵심이며,
삼매는, 배우고 이해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방일하면 배움도 지혜도 자라나지 않는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54) 그는 이익을 기대하여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며,
언음이 없을지라도 초조하거나 성내지 않는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갈애로 인하여 맛을 탐착하지 않는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73) 충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띠를 지닌 수행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적절하게 하되,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8) [아지따] “이 세상에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배움 중에 있는 많은 학인들도 있습니다.

현명하신 존자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여쭙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39) [세존]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마음이 혼탁해져서도 안 된다.

모든 담마법례에 숙달하여,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제2절 수행법

불교의 수행 방법과 수행 방향에 대하여 부처님께서서는 경전에 방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법을 해 놓으셨다. 수행법을 일컫는 대표적인 용어들로는 ‘팔정도’, ‘계·정·혜’, ‘37조도품’ 등이 있는데 이들 여러 수행법들은 결국은 모두 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에 포괄된다.

여기에 수록하는 수행법들은 본서 제1부 2장의 ‘팔정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경들과 계송들을 모아서 그 수행 방법의 내용과 명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 1) 보시 수행
- 2) 인욕 수행
- 3) 자애 수행
- 4) 부정관, 시체관 수행
- 5) 지각을 닦음
- 6) 감각기관 단속

1) 보시 수행

‘보시’는 ‘베푸는 것’을 말하며 불교의 중요한 실천 덕목 중의 하나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보시를 통해 우리 마음에 끼어있는 인색과 탐욕의 때를 씻어 낼 수 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 베푸셨던 점진적 설법들 가운데 ‘보시’는 늘 첫 번째 덕목의 주제로 가장 먼저 다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 계행, 선과 악, 업과 과보 등을 설하시고 나서 대중의 마음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성제를 설하셨다.

비록 보시 수행이 팔정도의 여덟 항목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보시는 ‘나에게’가 아닌 ‘남에게’ 베푸는 행위로서 이는 팔정도의 ‘바른 사유’ 항목에 있는 ‘탐욕이 없는 사유’의 실천행이 됨을 숙고할 때,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발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맹정진으로 반드시 닦아야 할 거룩한 덕목이리라.

‘보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긴 아래 세 개의 경전을 모아 보았다.

* 다섯 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다. 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고 ②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③ 좋은 명성이 따르고 ④ 재가자의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善處) 천상에 태어난다.

AN5:35 <보시의 이익 경>

* 다섯 가지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① 손님으로 온 자에게 ② 길 떠나는 자에게 ③ 병자에게 ④ 흉년이 들었을 때 ⑤ 승원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가장 좋은 과일을 계를 갖춘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AN5:36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 경>

* 개인에게 하는 보시가 승가에 하는 보시보다 그 과보가 더 크다고 하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에 대한 네 가지 보시의

☞ ‘보시 수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둘

- 1) 제3품 4경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
- 2) 제3품 5경 <마가 경>

◎ 제3품 4경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국의 순다리까 강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순다리까 바라드와자가 불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까 하고 주위를 살피다, 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둘러쓰고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발자국 소리에 세존께서 머리에 들렀던 것을 벗자, 바라문은 ‘이분은 머리를 깎은 분이네, 이분은 삭발한 분이네.’하며 되돌아가려다가, ‘설사 머리를 깎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바라문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출신을 물어보자.’라고 생각하며 세존께 출신이 무엇인지를 여쭙었다. 세존께서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에게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455) “나는 바라문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며,
 평민도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나는 여러 세인(世人)들의 씨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두루 유행하오.

(456) 나는 집도 없이, 가사를 걸치고, 머리를 깎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유행하오.
바라문이며, 내게 가문을 묻는 것은 합당치 않소.”

(458) [순다리끼] “이 세상에서 선인들, 왕족들, 바라문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신들에게 갖가지 공물을 바칩니까?”
[세존] “궁극에 도달하여 최상의 앎을 성취한 사람이,
제사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물을 받는다면,
그 공물을 올린 사람에게 그 제사는
좋은 공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오.”

(459) [순다리끼] “확실히 저의 제사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앎을 얻으신 당신과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과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남은 제사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460) [세존] “그렇다면 바라문이며,
그대는 유익함을 구해 왔으니 가까이 다가와서 물으시오.
아마도 그대는 여기에서, 욕심이 없고 성냄이 없고
구하는 바가 없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것이오.”

(461) [순다리끼]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제사를 좋아하고 제사 올리기를 원하지만,
어디에 공물을 바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니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세존] “그럼 바라문이며, 귀를 기울이시오.
내 그대에게 설하리라.

(462) 태어난 가문을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숲에서 일어나듯이, 천한 집에서 태어난 자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제함이 확고하면,
지혜로운 성인이 되는 것이오.

(463) 진리에 의해 자제하고, 모든 감관을 절제하며,
지혜에 통달하여, 청정한 삶을 성취한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464) 모든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집 없이 살아가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베틀의 북처럼 곧고 올바른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465) 욕망에서 벗어나고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달이 라후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속박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466) 집착하는 일이 없이,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다 버리고 세상을 유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467) 모든 감각적 쾌락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태어남과 죽음의 끝을 알고, 열반을 성취하여,
호수의 물처럼 맑고 시원한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69) 속이거나 교만하지 않고,
탐욕에서 벗어나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일이 없으며,
욕심과 성냄이 없이, 마음은 평화로워
근심의 때를 씻어버린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1) 삼매에 들어 거센 물결을 건너고,
최상의 탁월한 견해로서 진리를 알며,
번뇌를 소멸하여 최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2) 존재에 대한 번뇌와 거친 말은 부서져서 없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소.
그는 최상의 지혜에 통달하고 모든 것에서 해탈하였으니,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3) 집착을 뛰어 넘어 집착이 없고,
자만에 매인 자들 사이에서 자만에 매이지 않고,
괴로움에 대하여 그 영역과 토대를 꿰뚫어 아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4)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벗어남을 보며,
남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알려진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날]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7) 자기에게서 ‘자아’를 보지 않으며,
[마음에 집중되고 올바르고 확립되어 충동이 없고,
마음에 황무지가 없고 의혹이 없는 여래는
공양을 받을 만하오.]”

(479) [순다리께] “당신과 같은 위없는 지혜를 가진 분을 만났으니,
저의 공양은 참다운 공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 앞에 몸소 모습을 나타내신 범천이십니다.
세존께서는 저의 이것을 받아주소서.
세존이시여, 저의 현과를 받아주소서.”

(480) [세존] “시를 씹어 얻은 것을 먹는 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소.
이는 바르게 보는 자들의 도리가 아니오.
시를 씹어서 얻은 것을, 붓다들은 거절하오.
바라문이여, 일에는 법도가 있으니,
이것이 그들의 행동 방식이오.

(481) 완전한 분, 위대한 선인, 번뇌가 부서지고,
후회가 소멸된 분에게는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대접하시오.
그분은 공덕을 바라는 이들에게 복받이기 때문이오.”

(482) [순다리께] “세존이시여,
누가 저와 같은 사람의 보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제사 지낼 때에 누구를 찾아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니 가르쳐주소서.”

(483) [세존] “걱정이 없고, 마음이 혼란하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고, 게으름을 몰아낸 사람,

(484) 한계의 끝을 제거하고, 태어남과 죽음을 잘 알며,
성인의 덕성을 몸에 갖춘, 그러한 성인이 제사 때 찾아오면,

(485) 눈살을 찌푸리지 말고, 그에게 합장하여 예배하시오.
음식과 음료로 그를 공양하시오.
이러한 보시는 뜻을 이루게 하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리니!”

(486) [순다리까]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께서는
공양 받아 마땅하시며, 최상의 복된 밭이며,
온 세상의 보시를 받으실 분이옵니다.
존자님께 베푼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 바라문 순다리까 바라드와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마치 넘
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이어서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형색을 보리라’하고 어둠 속에
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
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존자 고타마님에게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
[담매에 귀의하며, 또한 비구들의 모임[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고타마 존
자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 바라드와지는 세존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

그는, '태어남은 이제 다하고, 청정범행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다 해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알았다. 그리하여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존자는 성인(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 제3품 5경 <마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깃자꾸따 산(영취산)에 계셨다.

그때 마가라는 바라문 학인(學人)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후 한쪽에 물러앉았다. 한쪽에 앉은 바라문 학인 마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 고타마시여, 저는 베푸는 자, 아낌없이 주는 자, 관대한 자이고, 베풀에 헌신적입니다. 저는 바르게 재물을 구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바르게 얻거나 바르게 취득한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여덟 사람, 아홉 사람, 열 사람에게도 주며, 스무 사람, 서른 사람, 마흔 사람, 쉰 사람에게도 주며, 백 사람에게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제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치면 많은 공덕을 얻게 됩니까?”

“바라문 학인이여, 그대가 참으로 그렇게 주고 그렇게 바친다면 많은 공덕을 얻게 되리라. 학인이여, 누구나 베푸는 자, 아낌없이 주는 자, 관대한 자, 베풀에 헌신적인 자로서, 바르게 얻거나 바르게 취득한 재물을 한 사람 내지는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주면 많은 공덕을 얻게 되리라.”

이에 바라문 학인 마가는 세존께 계승으로 여쭙었다.

(489) [마가] “재가자로서, 아낌없이 주는 자, 관대한 자,
베꽃에 헌신적인 자로서, 공덕을 원하고 공덕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를 준다면,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공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90) [세존] “참으로 집착하는 일 없이 세상을 유행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완전히 성취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공양해야 하오.

(494) 위선이나 독단이 없고, 탐욕을 떠나고,
‘내 것’이라는 지각을 갖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공양해야 하오.

(495) 참으로 갈애에 사로잡히지 않고,
[윤회의 거센 물결을 건너고,
‘내 것’이라는 지각없이 세상을 유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499) 평안을 얻어,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 태어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1) 자기 자신을 섬의지체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유행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2) ‘이것이 마지막 생존이며,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3) 최상의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고,
사띠를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알맞은 때에 공양을 올리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을 공양해야 하오.”

(504) [마가]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저에게, ‘공양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선 이 이치를 있는 그대로 여실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선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05) 보시를 구하는 자에게 보시하는 사람,
공덕을 원하고 공덕을 구하여,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물을 베풀어 제사를 지내는데,
완전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506) [세존] “마가여, 제사를 지내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면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오.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제사가 그 토대이기 때문이오.
여기에 굳건히 머물면, 자신의 사악함을 버리게 되오.

(507)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고, 사악함을 몰아내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고, 밤낮으로 방일하지 않아,
온 사방에 [자애의 마음]을 한량없이 가득 채우오.”

(508) [마가] “누가 청정해지고, 누가 해탈하고,
누가 묶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에 의하여 사람들은
범천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까? 성인이시여,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오늘 저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범천이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당신은 범천과 같은 분이십니다.
빛을 발하는 분이시여, 어떻게 하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509) [세존] “마가여, [위 507 계송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성공적인 제사를 지내면, 그는,
‘공양 받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 [목표] 성취할 것이오.
이처럼 올바른 제사를 지내고,
바르게 헌신적으로 베푸는 자는,
범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고 나는 말하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라문 학인 마가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경이롭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이어서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형색을 보리라’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취 주듯이, 존자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존자 고타마님에게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담매]에 귀의하며, 또한 비구들의 모임[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하오니 고타마 존자님께서 저를 재가의 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 ‘보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2품 1경 <보배 경>

(227) 선한 분들이 찬양하는,

네 쌍으로 이루어진 여덟 무리의 사람들[四雙八輩]이 있다.

이들은 ‘바른길로 잘 가신 분[善逝]’의 제자들로서 공양 받을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공양 올린 사람은 큰 결실을 얻으리라.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 제3품 7경 <셀라 경>

(569) 달은 여러 별 가운데서 으뜸이고,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며,

공덕을 바라고 공양 올리는 사람들에게

승가는 [그중에서] 으뜸이니라.”

2) 인욕 수행

인욕 수행이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러한 역경을 참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행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워하고 화를 내고 증오한다. 그리고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즐거운 요소들을 추구하게 된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적의의 잠재성향'을 쌓는 것이 되고, 즐거운 요소들을 찾는 것은 '탐욕의 잠재성향'을 쌓는 것이다. '적의의 잠재성향'과 '탐욕의 잠재성향'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이 장애물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우리는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한 인욕하지 않으면(못하면) 반드시 갈애를 일으키고 갈애가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사성제와 십이 연기법의 진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괴롭고 싫어하는 역경을 만나더라도 이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들을 참아내야 하는가? 아래에 수록한 계송들에서 그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인욕 수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42) 네 방향에 [속해] 있고,
적의가 없고, 얻은 것은 무엇이든 만족하며,
여러 장애들을 잘 참아내고,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52)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갈증, 바람과 뜨거운 햇볕,
쇠파리와 뱀,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참아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10경 <알라와까 경>

(189) [세존] “만일 이 세상에서,
진리, 자제(自制), 베품(보시), 그리고 인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널리 사문들과 바라문들에게 물어보라.”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66) 인내하고, 온화하며,
수행자들을 만나고,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02)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든지 공경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설을 듣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 성내지 말며,
공경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64) 슬기로우며, 사띠를 지니고 절제된 행위를 하는 비구는,
다섯 가지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즉 쇠파리, 날벌레[모기 등], 뱀, 사람과 마주침,
네 발 가진 짐승들이다.

(965) 이교도들이 문제를 일으켜 괴롭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선(善)함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장애들도 모두 이겨내야 한다.

(966) 질병을 만나고 굶주림에 처하더라도 참아내야 하며,
추위와 무더위도 견뎌내야 한다.
저 집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머물러야 한다.

(968) 분노와 교만이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 그것들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또 유쾌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모두 견뎌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을 정복해야 한다.

(969) 지혜를 앞에 세우고, 선(善)함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여러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외딴곳에 거처하면서 겪는 불만을 참아야 하고,
비탄의 원인이 되는 네 가지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970)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어젯밤 나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오늘 밥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집 없이 유행하며 배우는 중에 있는 수행자(有學는,
이러한 비탄을 야기하는 걱정들을 몰아내야 한다.

3) 자애(慈愛) 수행 [사무량심(四無量心) 수행]

자애란, ‘나’가 아닌 ‘남’이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숭고한 마음으로
서, 이러한 자애의 마음을 계발하여 자신에 내재 되어 있는 탐욕, 성냄, 인
색, 질투 등의 해로운 마음을 정화 시켜 나가는 수행을 ‘자애 수행’이라 한다.
우리의 내면에 위와 같은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괴로운 상태에 머물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성제의 진리이다.

자애 수행의 이익과 결실을 경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한 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부지런히 닦으면,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이 아닌 [존재들에
좋아하고, 천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의 해침을 받지 않고,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아지고, 노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
고, 설령 더 높은 경지를 통달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A11:16 <자애 경>

또 다른 경전(M21 <톱의 비유 경>)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어
떤 비난, 수모, 해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닦아야 한다
고 가르치신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악담을 내뱉지 않
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

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의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또한 자애 수행을 닦으면 ‘적의(성냄의 잠재성향)이 제거되어 여러 수행들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며,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

자애 수행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에 수록하는 원전 제1품 8경 〈자애 경〉에서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재를 참고하거나 선협자의 조력과 지도를 받으면 쉽게 익힐 수 있으리라 본다.

☞ 자애 수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1품 8경 〈자애 경〉

◎ 제1품 8경 〈자애 경〉

(143) 누구든지 착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여,
평정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유능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며 온유하고 상냥하며 겸손하자.

(144) 만족할 줄 알고 남이 돕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감각기관 고요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르며,
세간 일에 애착하거나 탐욕을 내지 말자.

(145) 현자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사소한 허물도 짓지 말며,

그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146) 생명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길거나 짧거나 중간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크거나 작거나,

(147)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난 것이거나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기를!

(148) 서로서로 남을 속이지 않고,
어디서건 누구이건 남을 경멸하지 않으며,
분노나 악한 생각 품어서도 안 되나니
다른 이의 괴로움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기를!

(149)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다해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한량없는 자애 마음 펼치기를!

(150) 온 세상에도 한량없는 자애 마음 펼쳐가서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 없이
증오심도 원한심도 넘어서기를!

(151) 걸어가건, 서서 있건, 앉아 있건, 누워 있건
깨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이런 자애 마음 알아차려 확고하게 유지하길!
여기 이런 것을 성스러운 삶이라고 부처님이 설하셨네.

(152) 샷된 견해 갖지 않고,
계행들을 잘 지키며 통찰력을 구축하면,
감각적인 욕망에 집착함이 제거되어,
실로 두 번 다시 윤회하는 태중에 들지 않으리.

☞ ‘자애 수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73) 자애·평정·연민·같이 기뻐함(사무량심)에 의한
해탈을 때맞추어 닦고, 모든 세상과 어떤 다툼도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생명 있는 것을 해치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자비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 제3품 5경 <마가 경>

(507) [세존]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고, 사악함을 몰아내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고, 밤낮으로 방일하지 않아,
온 사방에 [자애의 마음] 한량없이 가득 채우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67)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약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모든 생물을,
자애의 마음으로 채워서 대하라.
마음이 혼란함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것이 '악마의 패거리'라고 알아,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

(972) 눈은 아래로 뜨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며,
선정[수행]에 전념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삼매를 개발하여 평정을 닦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후회하는 마음을 없애고,
생각하려는 경향[성향]을 잘라내야 한다.

4) 부정관, 시체관 수행

'부정관' 수행은, [이 몸을 포함하여 형성된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그 본질이 아름답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어 알아서 그것들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없애 나가는 수행을 말한다. 따라서 부정관을 닦으면 '탐욕의 잠재 성향'이 제거되어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과 갈애를 덜 일으키고 일어나는 갈애에 끌려가지 않고 갈애를 잘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시체관' 수행은, 공동묘지에 버려져 있는 썩어가고 변해가는 사람의 시체를 단계별로 계속 관찰함으로써 '이 [자신의] 몸도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 하리라'는 각성과 함께 이 몸의 무상함과 부질없음을 꿰뚫어 알아, 이 몸이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는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수행법을 말한다.

'부정관, 시체관' 수행에 관하여는, 경전 D22 <대념처 경>의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와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에 그 수행법이 자세하게 기술되

어 있다.

또한 본서 제1부 2장의 제7절 ‘바른 사띠’에 수록되어 있는 ‘1) 몸 관찰’ 항목 (페이지 138)에 있는 경과 계송들이 ‘부정관, 시체관’과 중복으로 연관되어 있으니 참조 바란다.

☞ ‘부정관, 시체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11경 <승리 경>

(199) 그리고 머릿속의 빈 곳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자는 무명(無明)에 끌리어,

이 몸을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안다.

(200) 죽어서 눕혀지면, 몸은 부풀어 오르고 검푸르게 되며,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3) ‘저 죽은 시체도 이 살아있는 몸과 같았고,
이 살아있는 몸도 저 죽은 시체처럼 될 것이다’라고 알아,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205) 더럽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두 발 가진 이 몸을,
사람들은 소중히 가꾼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41) 욕망에 연결된 아름다운 감각 대상의

표상[모양, 니뭇때]을 취하지 말고,
‘부정(不淨)한 것’이라고 마음을 닦되,
마음이 한 곳으로 잘 집중되도록 하라.

5) ‘지각[산나, 憊]을 닦음’ 수행

갈애의 소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명으로 덮여있는 기존의 잘못된 사고와 지각의 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통찰지혜를 얻고 이 지혜의 힘으로, [현상을 보느] 잘못된 지각을 올바른 지각으로 바꾸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내용과 연관된 대표적인 경전 하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질병이라고 보고, 두려움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갈애를 제거하였다. 갈애가 제거되면 집착이 제거되고, 집착이 제거되면 괴로움이 제거되며, 괴로움이 제거되면 태어남·늙음·죽음·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질망으로부터 해탈한다.” SN12:66 <명상 경>

경전에는, 닦아야 할 지각의 종류를 몇 가지로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곱 가지의 지각을 닦음’에 대한 내용(A7:46 <인식 경>)을 기준하여 원전을 살펴보겠다. 즉 ① 무상하다는 지각 ② 괴로움이라는 지각 ③ 무아라는 지각 ④ 죽음에 대한 지각 ⑤ 음식에 혐오하는 지각 ⑥ 일체 세간은 즐길 것이 아니라는 지각 ⑦ 부정하다는 지각이다. 위 일곱 가지 항목과 연관된 원전의 경과 계송들의 내용이 워낙 완벽한 것 같아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부연하는 설명은 생략한다.

☞ ① ‘무상하다는 지각’과 연관된 계송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57)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일시적이며 변하는 것은
그 본성이 원래 허망하기 때문이다.

• 제4품 6경 <늡음 경>

(805) 사람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소유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겪는다. 그러나 영원한 소유란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
집에서 안주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라.

☞ ② ‘괴로움이라는 지각’과 연관된 계송들

‘괴로움이라는 지각’과 연관된 내용들은, 본서 제1부 1장 1절 ‘괴로움[고성 제]’(페이지 42)의 계송들에 자세하게 서술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하여 수록하지 않는다.

☞ ③ ‘무아라는 지각’과 연관된 계송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42) 표상이 없는[無相] 경지를 닦아라.

아만(我慢)의 잠재적 성향을 버려라.

아만을 그치면, 고요한 평온 속에서 살아가리라.”

• 제2품 13경 <올바른 유행(遊行) 경>

(364) 집착의 대상[우빠디에는 어떤 실체도 없음을 알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함과 탐욕을 버리고,

의존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이 세상을 바르게 유행하리라.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756) [세존] “보라! 신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명색(名色, 마음과 몸)’에 집착되어 있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승 경>

(777)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물이 말라 가는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취하지 말고,

존재들에 대한 집착을 만들지 말라.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16) [세존] “지혜로운 자는,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희론적 개념의 뿌리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갈애들이라도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상 사뭇을 지니고서 자신을 수련하여야 한다.

(951)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는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 상기 ①무상, ②고, ③ 무아 모두에 관련된 경 하나

◎ 제4품 6경 <늡음 경>

(804) 아! 참으로 짧구나, 인간의 생명이여.
백 년도 못 살고 죽으니.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늡어서 죽는 것을.

(805) 사람은 ‘내 것’이라고 여기며 소유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겪는다. 그러나 영원한 소유란 어디에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
집에서 안주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라.

(806)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죽음으로써 잃게 된다.
이와 같이 알아서, 현명한 나의 제지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무엇을 취해서는 안 된다.

(809) '내 것'이라고 애착하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슬픔과 한탄과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온'을 보는 성인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유행한 것이다.

(811) 성인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유쾌한 것' 혹은 '불쾌한 것'으로 분별하여
취하는 일이 없다. 마치 물이 잎에 달라붙지 않듯이,
그에게는 비탄이나 인색함이 달라붙지 않는다.

(812) 연잎에 물방울이 달라붙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지각한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813) 청정해진 사람은, 사물을,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에 의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것에 의해 청정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하거나 하지 않는다.

☞ ④ '죽음에 대한 지각'에 연관된 계송들

• 1품 3경 <무소의 뿔 경>

(74)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결박의 족쇄들을 부수고, 목숨이 끊어져 없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3품 8경 <화살 경>

(574) 죽기 마련인 인간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세상에서 얼마를 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간의 삶은 비참하고 짧으며 괴로움으로 묶여있다.

(575) 태어난 존재들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진실로, 살아있는 존재들의 운명은 이러하다.

(590) 그러므로 아라한의 말씀을 듣고,

비탄해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죽어 떠나간 사람을 보고서는,

‘나로서는 그를 다시 되돌릴 수 없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 제4품 6경 <늙음 경>

(804) 아! 참으로 짧구나, 인간의 생명이여.

백 년도 못 살고 죽으니.

오래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것을.

☞ ⑤ ‘음식에 혐오하는 지각’에 연관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65) 맛에 탐닉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부양할 사람 없이, 문전마다 [가리지 말고] 차례로

탁발하며, 이집 저집에 마음이 묶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707)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적게 원하고, 욕심이 없어야 한다.

원함의 갈애에서 벗어나면 욕망이 없어지고 평온하게 된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54) 그는 이익을 기대하여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며,
얻음이 없을지라도 초조하거나 성내지 않는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갈애로 인하여 맛을 탐착하지 않는다.

• 제4품 14경 <서두름 경>

(922) [세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 없이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

세간의 저속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

맛에 탐착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가져서는 안 된다.”

☞ ⑥ ‘일체 세간은 즐길 것이 아니라는 지각’에 연관된 계송들

• 제1품 1경 <뺨 경>

(9) 너무 앞서 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덧없다.’라는 것을 아는 비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버린다.
뱀이 낚고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듯.

• 제1품 3경 <무소의 빨 경>

(59) 세상에 있는 유희나 즐거움, 감각적 쾌락에는
만족이 없는 줄을 알아, 이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꾸밈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5품 16경 <모가라자의 질문>

(1118) [모가라자] “그래서 저는, 빼어난 통찰을 가지신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죽음의 왕이 그를 보지 못합니까?”

(1119) [세존] “모가라자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을 빈 것[空]으로 보라.
그리고 [내가 있다는] 자아의 견해를 뿌리 뽑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 ⑦ ‘부정하다는 지각’에 연관된 계송들

‘부정하다는 지각’에 연관된 계송들은 앞의 ‘4) 부정관, 시체관 수행’에 수록
된 계송들(페이지 299)과 동일하다.

6) 감각기관 단속

‘무엇이 일체인가?’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서는 “12처(또는 18계)이다.”라고 하셨다. 12처란 우리들의 여섯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마노(마음)와 이들의 여섯 감각대상인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담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오직 이 12처의 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일 뿐, 이것 이외의 다른 요소나 존재의 개입 또는 작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다.

또한 12처는 갈애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바로 그곳이며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장소 또한 여기임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이 여섯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고 잘 길들이고 잘 단속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못하면 반드시 말과 몸과 마음으로(신·구·의로)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을 짓는 한 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사성제와 십이 연기법의 가르침이시다. 반대로,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면 ‘갈애’를 잘 단속하게 되어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이 감소되고 매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여섯 감각기관을 올바르게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행인지를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는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을 잘 살펴 괴로움 없는 삶이 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

☞ ‘감각기관 단속’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1품 3경 <무소의 뿔 경>

(63) 눈은 아래로 뜨고, 주의 깊게 걷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마음을 지켜 보호하며,
번뇌가 흘러나오거나, 번뇌의 불에 타는 일 없이,
무소의 빨처럼 혼자서 가라.

• 제1품 12경 <성인 경>

(214) 남들이 거센 말을 퍼붓더라도,
목욕장에 서 있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 제2품 2경 <비린내 경>

(250) 감각기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관을 잘 다스리며, 진리에 굳건히 서서,
정직함과 온화함을 기뻐하며 유행하라.
집착을 떠나,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이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다.”

• 제2품 11경 <라홀라 경>

(337) [세존]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집을 떠났다면,
사랑스럽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과
그 대상들을 버리고,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340) 계율의 항목을 지키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절제하며,
몸에 대하여 사띠가 확립되게 하라.

[윤회하는] 세상을 참으로 싫어하여 떠나라.”

• 제2품 14경 <담미까 경>

(387) 갖가지 모양과 소리와 맛과 냄새와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정한 시간에 탁발을 위하여 마을에 들어가라.

• 제3품 1경 <출가 경>

(413) [아난다] 그분은 모든 감각을 제어하여 잘 다스리고,
'분명한 앞[삼빠잔네]'와 사띠를 지니고서,
차레로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에 발우를 채웠습니다.

• 제3품 6경 <사비야 경>

(516) 모든 세상에서, 안과 밖으로, 자신의 감각기관을 잘 길들여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죽을 때에 대해 잘 준비되고 잘 수련된 사람,
그를 '절제된 분'이라 하오.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697)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예견이
지극히 청정했던 [아시띠선인]의 가르침에 따라,
날라가는 많은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감각기관을 수호하면서, 승리자를 기다리며 살았다.

• 제4품 1경 <감각적 쾌락 경>

(768)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적 쾌락을 피하는 사람은,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애착[갈레]을 극복한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송 경>

(778)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고,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의 작용(觸, 觸)을 잘 알아서,
탐내지 않으며, 스스로 책망할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 제4품 16경 <사리뿔따 경>

(974) 또한 세상에는 다섯 가지 티끌이 있으니,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띠를 지니고 자신을 닦아 나가야 한다.
그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

(975)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 마음을 잘 해탈시켜,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적합한 때에 담마를 올바르게 깊이 살피고,
마음을 통일시켜 어둠(무명)을 걷어내어야 한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s roof and railing against a misty background. The roof is dark and silhouetted against a bright, hazy sky. The railing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contemplative.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 제3부
괴로움 넘어 행복으로

제3부 괴로움 넘어 행복으로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듯이,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되는 하나의 개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일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서의 마지막인 제3부의 제목을 ‘괴로움 넘어 행복으로’라고 이름 하였다.

앞에서 여러 번 기술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佛敎)은 한 마디로 ‘사성제’이며, 사성제의 내용은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라는 오직 한 가지 주제로 모아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탐욕과 갈애를 여의고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에 태어나고 중국에는 괴로움이 완전히 종식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시 한 번 도달하게 된다.

여기 제3부에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줄 보배와 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의 경과 계송들을 소중히 모아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여 엮어 보았다.

제1장 세간과 출세간

제2장 범부와 범부의 삶

제3장 성인과 성인의 삶

제4장 피안으로 가는 길

제1장

세간과 출세간

세간은, ‘번뇌가 있고 취착이 있어 선처(인간계와 천상계로 굴러 향하는 것)’를 말하며, 출세간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켜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세간과 출세간은,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상당히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

부처님께서서는, 설법을 듣는 상대에 따라, 세간적인 내용과 출세간적인 내용을 잘 조화시켜 설법을 하셨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의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두 가지의 견해 즉 ‘세간적 바른 견해’와 ‘출세간적 바른 견해’이다.

* 출세간적 바른 견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요소인 성스러운 바른 견해로서, 성스러운 제자가 가지고 있는 통찰지, 통찰지의 기능, 통찰지의 힘, 법을 고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釋法覺支), 도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세간적 바른 견해: 번뇌에 물들 수 있고 공덕의 편에 있으며 재생의 근거

를 가져오는 바른 견해로서, ‘보시가 있고 공물이 있으며 재계가 있고, 선행과 악행이 있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보가 있으며,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으며, 부모가 있고, 중생의 태어남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있다.’라고 아는 것을 세간적 바른 견해라 한다. MN117〈위대한마흔가지 경〉

이제 원전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내용과 연관된 경과 계송들을 살펴보자.

☞ ‘세간과 출세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하나
제1품 2경〈다니야 경〉

◎ 제1품 2경 〈다니야 경〉

(18) 소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 강기슭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비를 내리소서.”

(19) [세존] “나는 성냄을 짓지 않고, 마음의 황무지는 사라졌다.

마히 강기슭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내 움막은 [무명의] 덮개가 없고, [탐욕의] 불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20) [다니야]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늪가에 우거진 풀을 뜯어 먹으며 거닐고,
비가 내려도 그들은 건디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비를 내리소서.”

(21) [세존] “나는 잘 엮어진 뗏목을 만들어서,
거센 물결을 극복하여 강을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 뗏목은 필요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22) [다니아]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지만 항상 내 마음에 듭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악한 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비를 내리소서.”

(23) [세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고, 해탈되어 있다.
오랫동안 잘 닦이고 잘 길들여져 있으며,
나에게는 그 어떤 악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24) [다니아] “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와 함께 살며 모두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악한 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비를 내리소서.”

(25)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유행한다.

[그래서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28) [다니아]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文邪葍)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송아지도 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비를 내리옵소서.”

(29) [세존] “황소처럼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악취 나는 덩굴풀을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는 모태(母胎)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내리시게.”

(30) 갑자기 엄청난 구름이,

낮은 지대와 높은 곳을 가득 채우면서 비를 뿌렸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31) “우리는 ‘존귀하신 분(世尊)’을 만나 뵙고 실로 얻은 바가 큼니다.

눈(통찰지혜)을 지니신 분이시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歸依)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성인이시여.

(32)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길로 잘 가신 분(善逝)’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그 너머로 가서

괴로움을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33) 악마 빠빠만[마리]이 말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집착의 대상[우빠데]’이 있어 사람은 기뻐하므로,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것이 없다.”

(34) [세존]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자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은 슬픔을 가져오므로,
‘집착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다.”

☞ ‘세간과 출세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2품 4경 <큰 축복 경>

(261) 많이 배우고, 바른 기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며, 선한 말로 의미 있게 말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2)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3)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척을 보살피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천신들과 마라와 범천의 세계에서,
사문들과 바라문들과 천신들과 인간들 속에서,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거룩한 분들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759) “형상, 소리, 맛, 냄새, 감촉, 현상[法],
이들[여섯 감각 대상]은,
‘이것들이 있다’[‘이것들은…이다’]라고 말하는 한,
모두가 갖고 싶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 된다.

(760) 이런 것들을 천신이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762)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는 것을
거룩한 분들은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을
거룩한 분들은 ‘행복’이라고 안다.
깨닫기 어려운 이 진리를 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제2장

범부와 범부의 삶

‘어리석고 들음 없는 자’를 범부(凡夫)라고 하는데 아래 경전에 범부에 대한 정의가 잘 묘사되어 있다.

*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오온을 ‘나’라고 관찰하고, 오온의 속박에 묶이고, [이 언덕을 보지 못하고 저 언덕을 보지 못하고, 속박되어 늙고 속박되어 죽고, 속박되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SN22:117 <속박 경>

즉 범부는 어리석음[무명에 덮이어서 진리(사성제)를 모르고, 이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담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오온에 지배당하고 갈애에 지배당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경전의 주석서에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선한 범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선한 범부’는 아직 수다원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교학과 수행을 공부하며 수다원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범부’란 어떤 사람이며 ‘범부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 수록한 원전의 경과 계송들에서 우리는 그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범부와 범부의 삶’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셋

- 1) 제1품 6경 <파멸 경>
- 2)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 3) 제2품 2경 <비린내 경>

◎ 제1품 6경 <파멸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뻬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수려한 어떤 천신이 밤중이 지나서 제따 숲을 두루 비추며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가까이 와서는 세존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섰다. 한쪽에 물러서서 그 천신은 세존께 시로써 여쭙었다.

(91) “저희는 파멸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따마께 여쭙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인지
존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왔습니다.”

(92) [세존]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담마를 사랑하는 자는 번영하고,

담마를 싫어하는 자는 파멸한다.

(94)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좋아하며,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겨 따르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96) 졸음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고,
애써서 노력하는 일이 없이 게으르고, 걸핏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98)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고 쇠약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00)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그 외의 탁발 수행자를 속인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02) 많은 재산과 황금과 식량이 풍부한 자가,
좋은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04) 사회적 지위, 재산, 가문을 뺏내고,
자기의 친척을 멸시하는 자,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06) 주색에 빠지고 도박을 즐기며,
버는 것마다 낭비해 버리는 자,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08)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어울리며, 남의 아내와 가까이하는 자,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10) 한창때가 지난 남자가,
땀바루 열매처럼 불룩한 가슴을 가진 여자를 데려와서,
그녀로 인한 질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12) 술에 중독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또는 그와 같은 성향의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문이다.

(114) 왕족 가문에 태어났지만, 재산은 적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파멸의 문이다.

(115) 현명하고 고귀하며 통찰력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음을 잘 살펴서,
행복한 세계로 나아간다.”

◎ 제1품 7경 <천한 사람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왓티의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뻘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
때 세존께서는 아침에 발우와 가사를 걸치고 탁발하러 사왓티에 들어가셨

다. 그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의 집에는 제식용 불이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있었다.

세존께서는 사왓티에서, 어떤 집도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탁발하면서,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존께 말했다.

“까까중아 거기 있어라. 엉터리 사문아 거기 멈춰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바라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소?”

“고따마여, 저는 천한 사람도,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천한 사람과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라문이여 주의 깊게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하리라.”

“네, 존자님.”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116) [세존] “화를 잘 내며 원한을 품고, 흉악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17) 한 번 태어나는 것이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생명 있는 것을 해치고, 살아있는 존재들에 자비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18) 마을이나 거리를 파괴하고 약탈하며,
사람들에게 압제자로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19) 마을에 있거나 숲속에 있을 때, 남의 소유물을 나의 것이라 하며,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0) 실제로 빛이 있는데도, 갇아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진 빛이 없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1)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탐내어
길 가는 자를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2)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거나 남,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3)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로 사랑하여,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4) 자기는 재산이 많은 데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5)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시어머니나 장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6) 상대방이 자기에겐 유익한 충고를 구할 때,
해로운 것을 가르쳐 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7)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일은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28) 남의 집에 가서는 성찬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손님이 왔을 때에는 후히 대접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1)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이끌려,
사소한 물건을 탐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2)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3) 남을 화나게 하고, 인색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탐욕스럽고, 교활하게 속이고, 악을 행하면서

부끄러움[히레]과 두려움[옷땀]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4) 붓다를 비방하고,
그의 제자인 방랑 수행자나 재가자를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라.

(135)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그는 천신의 세계를 포함한 이 세상에서 도둑인 사람으로,
그야말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내가 그대에게 설명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천한 사람들이라 불린다.

(136)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며,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137) 나의 실례를 들겠으니,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도록 하라.
나는 [전생에 불가촉천민인 백정의 아들로서,
'마땅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138) 마땅가는 실로 얻기 어려운 가장 높은 명예를 얻었다.
많은 왕족들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기 위해 모여들었다.

(139) 그는, 더러움이 없는 위대한 길, 신들의 길에 올라가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벗어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이르렀다.

그의 천한 태생은,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

(140) 베다 독송자의 집안에 태어나 베다의 성전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악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141) 그들은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서는 나쁜 곳에 태어난다. 태생이, 그들이 비난을 받거나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142) 태어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며, 행위에 의해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바라문 악기가 바라드와자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재가 신자가 된다.]

◎ 제2품 2경 <비린내 경>

[바라문 몇사와 과거불인 깃사빠 붓다와의 대화]

(239) [몇사 바라문] “야생 수수, 풀씨, 야생 콩, 녹색 잎, 뿌리, 덩굴 열매 등을, 선량한 사람으로부터 바르게 얻어먹는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240) 그러나 잘 준비되고 잘 요리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입맛 다시며 즐긴다면,
깻사빠여, 그것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241) 깻사빠여, 범천의 친족인 당신은,
잘 요리된 새[태]의 고기와 맛있는 밥을 즐기면서도,
‘비린 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깻사빠여,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242) [깻사빠 붓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리고 때리고 자르며 결박하는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사기와 기만, 위선, 남의 아내를 가까이하는 것,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肉食)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3) 이 세상에서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탐내고,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또 허무론(虛無論)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뒤틀려 있고, 완고한 자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4) 난폭하고 잔인하며, 등 뒤에서 남을 헐담하고,
친구를 배반하며, 자비가 없고, 교만하며,
인색하여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없는 자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5) 성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속이고,
질투, 허풍, 지극히 오만함, 저열한 사람들과의 사귄,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6) 악행을 일삼고, 빛을 갠지 않으며, 중상하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며, 정의를 가장하고,
이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아주 비열한 자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7)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또한 그들을 해치려고 애쓰며,
계행을 지키지 않고, 난폭하고 무례한 자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8)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 탐욕스럽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항상 [그런 일에] 여념이 없는 자들은,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러, 머리를 거꾸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249)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 나체, 삭발이나 결발을 하거나, 먼지를 뒤집어쓰거나,
사슴의 가죽을 입는 것, 불의 신을 섬기는 것,
또는 세상에서 불사(不死)를 얻기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고행들,
진언, 제물 제사, 계절에 따라 행하는 고행들, 이 모두는,
의혹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250) 감각기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관을 잘 다스리며, 진리에 굳건히 서서,
정직함과 온화함을 기뻐하며 유행하라.
집착을 떠나,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이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다.”

(251) [송출자] “이와 같이 존귀하신 분께서는
되풀이해서 이 뜻을 말씀하셨다.
성전에 통달한 바라문 뜻사는 이것을 이해하였다.
비린 것을 떠났고, 집착이 없으며,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성인께서는
여러 가지 계승으로써 이를 설법하셨다.

(252)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쯔사빠] 붓다의 말씀을 듣고,
[뜻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여래(如來)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하기를 청원하였다.”

☞ ‘범부와 범부의 삶’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승들

• 제4품 2경 <동굴에 대한 여덟 계승 경>

(772) [자신의] 동굴에 집착하고,
온갖 [해로운] 것들로 뒤덮여 있고, 미혹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멀리 벗어남’과는 거리가 멀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버리기란 어렵다.

(774)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열중하는 사람들은,
미혹하게 되고 인색하게 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든다.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면 슬픔으로 비탄해 한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777) ‘내 것’이라고 집착하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물이 말라 가는 개울에서 허덕이는 물고기와 같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취하지 말고,
존재들에 대한 집착을 만들지 말라.

• 제4품 4경 <청정에 대한 여덟 계승 경>

(791) 이전 것을 버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동요하는 마음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집착을 뛰어넘을 수 없다.
마치 나뭇가지를 붙잡았다가 놓아 버리는 원숭이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붙잡았다가 놓아 버린다.

• 제4품 7경 <멋사 멧떼이야 경>

(816) 지금까지는 혼자 순결하게 살다가
나중에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는, 길에서 벗어난 수레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한 범부라 부른다.

(817) 지금껏 그가 지녔던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된다.
이러한 일을 잘 보고, 성행위를 버리도록 자신을 수련해야 한다.

제3장

성인과 성인의 삶

‘범부’와 대비되는 용어가 ‘성인’이다.

범부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 일정 수준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의 종성(種姓, 고프라부)이 성인의 종성으로 바뀌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다.

성인을 흔히 ‘4쌍8배(四雙八輩)’라 칭하는데, 깨달음에 도달한(과(果)에 도달한) 네 부류의 사람인 수다원(소따빠띠, 예류자), 사다함(사까다가미, 일래자), 아나함(아나가미, 불환자), 아라한(아라한뜨, 응공)과, 그 과(果)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도(道)의 단계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한다.

경전에서는, 범부를 묶고 있는 족쇄의 종류를 아래의 열 가지로 나누고, 이들 열 가지의 족쇄에서 얼마만큼 자유스러워 졌는지 그 정도에 따라 성인을 분류하고 있다. 열 가지 족쇄란 ① 유신견 ② 의심 ③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④ 감각적 욕망 ⑤ 악의(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⑥ 색계에 대한 탐욕 ⑦ 무색계에 대한 탐욕 ⑧ 아만 ⑨ 들뜸 ⑩ 무명(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을 말한다.

수다원은 상기 ①②③의 족쇄가 완전히 없어진 분이며, 사다함은 ①②③의 족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④⑤의 족쇄가 현저히 얽어지신 분이며, 아나함은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모두 제거하신 분이며, 아라한은 다섯 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마저 모두 제거하여 열반에 이르신 분이다.

수다원은 최대 일곱 번까지 인간계에 윤회하고(여덟 번째의 태어남은 없으며), 사다함은 한 번만 인간계로 태어나며, 아나함은 인간계로 돌아오는 일 없이 바로 천상계에서 아라한이 되며, 아라한은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 윤회가 종식되신 분이다.

☞ ‘사쌍팔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2품 1경 〈보배 경〉

(227) 선한 분들이 찬양하는,

네 쌍으로 이루어진 여덟 무리의 사람들(四雙八輩)이 있다.

이들은 ‘바른길로 잘 가신 분(善逝)’의 제자들로서 공양받을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공양 올린 사람은 큰 결실을 얻으리라.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8) 확고한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고따마의 가르침에 따라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고, 불사(不死)에 뛰어들어, 평온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29)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속 깊이 묻히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선량한 사람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0) 심오한 지혜를 가진 분이
잘 설해 놓으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설사 그들이 자주 방일하더라도, 여덟 번째의 존재를 받지 않는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1) [그가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세 가지가 버려진다. 즉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릇된 견해,
의심, 그리고 계행과 준수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버려진다.
그는 네 가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여섯 가지 큰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232) 설사 그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한 행을 하였더라도, 그는 이를 감출 수 없다.
궁극(窮極)의 경지를 본 사람은 이를 감출 수 없다고 한다.
이 훌륭한 보배는 승가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 제3품 12경 <두 가지 관찰 경>

“비구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고 굳건하게 머무는 비구에게는,
두 가지 결실 중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든가(아라한,
아니면, 집착이 남아 있더라도 [윤회의 세상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아나함)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수록하는 원전의 경들과 계송들에는, 성인이란 어떤 분이신지 성인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성인과 성인의 삶’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경, 셋

- 1) 제1품 12경 <성인 경>
- 2) 제3품 11경 <날라까 경>
- 3)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 제1품 12경 <성인 경>

(207) 친밀함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처에서 더러운 먼지가 일어난다.
거처도 없고 친밀함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聖人)의 통찰이다.

(208) 이미 일어난 것[번뇌]은 뿌리째 잘라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여 키우지 않는다면,
그를 ‘홀로 사는 성인’이라 한다.

저 위대한 선인(仙人)은 평안의 경지를 본 것이다.

(209) 그는 [번뇌]의 토양을 철저히 알고,
그 씨앗을 부수고, 그것에 물기를 공급하여 키우지 않는다.
생명의 끝을 보고 사려를 버린 그 성인은,
참으로, [무엇이라고] 헤아려지지 않는다.

(210) 모든 존재[육계, 색계, 무색계의] 처소를 잘 알아,
그들 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으며,
피안에 도달하여 탐욕을 떠났고 욕심이 없으며,
더 이상 구하는 바가 없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인이다.

(211)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알며,
매우 지혜롭고, 여러 사물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며,
일체를 버리고 갈애를 부수어 해탈한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2) 지혜의 힘이 있고, 계행과 덕행을 잘 갖추고,
마음이 집중되고, 선정(禪定)을 즐기며, 사띠를 지니고,
집착이 없고, [마음의] 황무지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3) 혼자 살며, 방일하지 않으며,

비난과 칭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4) 남들이 거센 말을 퍼붓더라도,
목욕장에서 있는 기둥처럼 흔들림 없고, 탐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5) [베틀의] 북처럼 울곧게 자신의 내면을 확립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알아
모든 악한 행위에 언더리를 내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6) 자제(自制)하여 악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젊을 때나 중년이 되어서나 성인은 자신을 절제한다.
그는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며, 남을 헐뜯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7) 음식 그릇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부터,
또는 중간 것부터, 또는 남은 것으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그것에 대해 칭찬하지도 욕하지도 않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8) 성행위를 끊고 살아가며, 젊은 시절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술에 취함과 망일에서 벗어나 해탈한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19) 세상을 잘 알고 궁극의 진리를 보며,
거센 물결과 바다를 건넌 사람,
속박을 끊고, 집착하지 않으며,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
지혜로운 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220) 양자[재가자와 성인]는 같지 않아, 거처와 생활양식이 매우 다르다.
재가자는 아내를 부양하지만, 성인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재가자는 살아있는 생명체 해치는 것을 삼가기 어렵지만,
성인은 삼가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호한다.

(221) 하늘을 나는, 목이 푸른 공작새가
백조(白鳥)의 빠름을 따라잡을 수 없듯이,
재가자는, 세상을 멀리하고 숲속에서 수행하는 비구,
그 성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 제3품 11경 <날라까 경>

※이 경의 전반부(계송 번호679-698)는, 그 내용의 분류상 본서 제2부 제1장 제1절 '부처님에 관한 내용' 중 1) 탄생(페이지 157)에 수록하였고, 계송 번호 698부터는 그 내용이 '성인의 삶'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수록하였다.

(697) 자비로운 마음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예견이
지극히 청정했던 [아시따선인의 가르침에 따라,
날라까는 많은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감각기관을 수호하면서, 승리자를 기다리며 살았다.

(698)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따 선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날라까는] 그분께 가서, 인간 가운데 으뜸가는 성인을 보고 기뻐하며,
'성인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여쭙었다.

(699) [날라까] “아시따가 들려준 말이 진실임을 잘 알았습니다.
고따마시여, 모든 현상들의 피안에 도달하신 분께 여쭙니다.

(700) 저는 집 없는 삶을 찾아, 탁발에 의지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
성인이시여, '성인의 삶과 최상의 길'을 여쭙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701) [세존] “그대에게 '성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이니,
마음읽 굳게 하고, 확고히 하라!

(702)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먹든지 공경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라.
욕설을 먹더라도 마음을 잘 지켜 성내지 말며,
공경을 받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703) 숲에서 일어나는 불꽃처럼,
여러 가지 높고 낮은 인상[생개]들이 일어난다.
부너자는 수행자를 유혹하려 한다.
부너자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704) 성행위를 끊고, 온갖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허약한 것이든 강건한 것이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적대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705) '내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그렇고,
저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자신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살아있는 것들]을 죽여서도 안 되고,
또한 남들이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706) 보통 사람들이 집착하는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길]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이 지옥을 벗어나리라.

(707) 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음식을 절제하고,
적게 원하고, 욕심이 없어야 한다.
원함의 갈애에서 벗어나면 욕망이 없어지고 평온하게 된다.

(708) 탁발을 마치고 숲으로 가서 나무 아래 앉아야 한다.

(709) 선정에 전념하는 성실한 수행자는 숲속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하면서

스스로 더없이 만족해야 한다.

(710) 밤이 지나면, [탁발을 위해] 마을로 가야 한다.
초대를 받거나, 사람들이 공양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너무 반겨서는 안 된다.

(711) 그리고 마을에 이르러서는
이집 저집 서둘러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음식을 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암시적으로] 제안하는 말을 꺼내서도 안 된다.

(712) ‘언어서 좋다’, ‘언지 못했지만 괜찮다’라고
두 가지 경우를 공평하게 생각하고,
나무 아래 그 자리로 돌아온다.

(713) 발우를 손에 들고 탁발하는 그는
병어리는 아닌데 병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공양물이 적다고 비웃지 말고
시주한 사람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714)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수행자의 길에 대하여 나는 말하였다.
두 번 거듭해서 피안에 이르지 못하지만,
단번에 이르지도 못한다.

(715) 집착이 없고, [윤회의] 흐름을 끊은 비구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아야 할 일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다.”

(716) 세존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면도 칼의 칼날을 다루듯이,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누르고,

그리고 배[복부에 집중하여 힘써 자신을 다스려라.

(717) 마음이 침체 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함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야 한다.

(718) 홀로 앉아 수행하는 수행자의 삶을 배워 익혀야 한다.

홀로 있어 즐거울 수 있다면,

그러한 홀로 있음은 ‘성인의 삶’이라고 불린다.

(719) 그렇게 하면, 그는 시방[은 세생을 비추리라.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또한 감각적 쾌락을 버린 수행자들로부터,

갈채의 소리를 들으면,

나의 제자는 오히려 더욱더

겸손함과 믿음을 닦아야[개발해야 한다.

(720) 이것을, 개울물과 골짜기와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여 이해하라.

작은 개울물은 소리 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721)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물이 반쯤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다.

(722) 사문이 말을 많이 할 때는,
그것이 의미가 깊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는 알고서 담마를 가르치고, 알고서 말을 많이 한다.

(723) 그러나 스스로 알면서도 자제하며,
스스로 알면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인은, 성인의 삶을 누릴 만하고,
그런 성인은, 성인의 삶을 성취한 것이다.”

◎ 제4품 10경 <죽기 전에 경>

(848) [질문자] “어떻게 보고, 어떤 계행을 지키는 사람을,
‘평온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따마시여, ‘위없이 훌륭한 분’에 대하여 여쭙으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849) [세존] “죽기 전에 갈애를 없애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선호할 것이 없다.

(850) 화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말을 함에 절제할 줄 아는 진정한 성인이다.

(851) 그는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과거를 슬퍼하지도 않는다.
감각기관의 접촉들로부터 ‘멀리 벗어남’을 보아,
여러 견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다.

(852) 홀로 지내며, 거짓이 없고,
무엇을 획책하거나 욕심내지 않으며, 갈망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며, 무모하지 않고, 공손하며,
남을 중상하지 않는다.

(853) 즐김에 빠지지 않고, 거만으로 우쭐대지 않으며,
부드럽고 총명하며, 어떤 것을 쉽게 믿는 일도 없지만,
냉정하게 반박하는 일도 없다.

(854) 그는 이익을 기대하여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며,
언음이 없을지라도 초조하거나 성내지 않는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갈애로 인하여 맛을 탐착하지 않는다.

(855)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사뭇을 지니고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동등하다’거나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거만의 우쭐댐이 없다.

(856) 그에게는 ‘의존함’이 없다.
답마를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존재에 대한 갈애도,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도 없다.

(857) 감각적 쾌락에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평온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에게는 더 이상 업매임이 없으며,
이미 모든 집착을 뛰어넘었다.

(858) 그는 자식도 가축도 논밭도 재산도 없다.
그에게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859) 그는, 범부나 사문 또는 바라문들이
그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에 관심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말들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861)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며 취하지 않고,
무엇이 없다 하여 애태우지도 않고,
어떤 일들에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평온한 분’이라 불린다.”

☞ ‘성인과 성인의 삶’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계송들

• 제4품 5경 〈최상에 관한 여덟 계송 경〉

(800) 그는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며,
지식에 조차도 특별히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로 분열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일이 없고,
결코 어떤 견해에도 빠지지 않는다.

(802) 그는 이 세상에서 본 것, 배운 것, 또는 지각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소한 개념도 만들지 않는다.
어떠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성인을,
이 세상에서 어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겠는가.

• 제4품 6경 <늪음 경>

(811) 성인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유쾌한 것’ 혹은 ‘불쾌한 것’으로 분별하여
취하는 일이 없다.
그에게는 비탄이나 인색함이 달라붙지 않는다,
마치 물이 잎에 달라붙지 않듯이.

(812) 연잎에 물방울이 달라붙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배우고 지각한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

• 제4품 9경 <마간디아야 경>

(843) 그런 거룩한 분이 무엇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며,
누구와 논쟁을 하겠는가?
‘동등하다’거나 ‘동등하지 않다’거나 하는 분별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와 논쟁을 벌이겠는가?

• 제4품 13경 <큰 전열 경>

(912) 성인은, 이 세상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산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집착함 없이, 평화롭게 머문다.

(914) 그는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으로부터,
또한 모든 현상들로부터 초연해있다.
성인은 모든 짐을 내려놓았고 해탈하였다.
그는 [정신적] 허구에 빠지지 않고,
그만두어야 할 일도 없으며, 갈망할 것도 없다.

• 제4품 15경 <폭력을 쓰는 사람 경>

(950) 명색[정신과 물질에 대하여
'내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참으로 세상에서 앓을 것이 없다.

(951) '이것은 내 것이다'
또는 '이것은 남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는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으므로,
내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제4장

피안으로 가는 길

괴로움은 없고 행복함이 있는 곳(언덕을 ‘피안(彼岸, 저 언덕)’이라고 부르며, 행복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피안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 본서의 마지막 장인 <피안으로 가는 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탄식·고통·절망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함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사성제의 가르침이며, 본서에 수록한 원전의 경들과 계송들의 내용들 역시 모두가 사성세로 귀결됨은 물론이다. 또한 필자가 설명한 내용들 역시 ‘괴로움이 없는 행복의 저 언덕’ 즉 피안으로 가고자 함에 그 초점을 맞추었고 각 장과 절의 배열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배치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불교의 최초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숫따니빠따의 마지막 품인 제5품 <피안

으로 가는 길>에 수록된 열여덟 개의 경들에는, 마지막 품답게, 부처님의 주옥과 같은 심오한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서 한 편의 서사시처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으며, 16명의 수행자[바라핀들의 질문에 일일이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심 어린 설법내용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의 심금을 울려 우리로 하여금 피안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제5품 <피안으로 가는 길>

◎ 제5품 1경 <서시(序詩) 경>

(976) 베다 성전에 통달한 한 바라문[바와리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를 열망하면서,
꼬살라 국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다.

(977) 그는 앗사까 지방과 알라까 지방의 경계에 있는
고다와리의 강변에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

(978) 그 강변 가까이에 커다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바와리는 큰 제사를 지냈다.

(979) 바와리가 제사를 끝내고 자기 거처로 돌아왔을 때,
마침 어떤 바라문 한 사람이 찾아왔다.

(980) 그의 발은 붓고 목은 타고, 치아는 더럽고, 머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바와리에게 다가와서
금화 오백 냥을 구걸하였다.

(981) 바와리는 그를 보자, 앉을 자리를 권하고,
그의 안부와 건강을 묻고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982)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미 모두 다
베풀어 주었소. 바라문이며, 이해해 주시오.
내게는 금화 오백 냥이 없습니다.”

(983) “내가 구걸하는데도 당신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레 후에 당신의 머리는 부서져 일곱 조각이 날 것이요.”

(984) 사기꾼은 주문을 외우며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 말을 듣고 바와리는 낙담하였다.

(985) 그는 근심의 화살을 맞아, 음식도 먹지 않고
야위어 갔다. 더욱이 이런 마음 상태이다 보니,
그는 수행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986) 그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한 천신이 바와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987) “재물을 탐내는 그 사기꾼은, ‘머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는 ‘머리’나,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988) [바와리] “그럼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989) [천신]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없습니다.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
이것은 승리자가 통찰한 것입니다.”

(990) [바와리]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누가,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신이며, 그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991) [천신] “이미 [수넨] 전에, 까빨라왔투 출신인,
세상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옥까까왕의 후예이고
사까족의 아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992) 바라문이며, 그분은 참으로 ‘온전히 깨달으신 분’
으로서, 모든 현상에 통달해 있습니다.
모든神通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해로운 불선법(不善法)을 부수어서,
‘재생의 근거(우빠디)가 완전히 소멸한 경지로 해탈하였습니다.

(993) 붓다,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눈 있는 분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분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994) ‘온전히 깨달은 분’이란 말을 듣고 바와리는
고무되었다. 근심은 가벼워졌고 커다란 기쁨이 넘쳐났다.

(995) 기뻐하고, 고무되고, 환희심이 생긴 바와리는 천신에게 물었다.
“세상의 구원자는, 어느 마을, 어느 도시, 또는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온전히 깨달으신 분,
인간 가운데 위없는 분께 예경 드리고자 합니다.”

(996) [천신] “승리자는 꼬살라국의 사왓티에 계십니다.
광대한 지혜를 갖추신 분,
뛰어나고 폭넓은 지성을 갖추신 분께서는 그곳에 머무십니다.
사까족의 아들이고, 누구와도 견줄 바가 없고, 모든 번뇌에서 떠나시고,
사람 중에 황소인 그분은, 머리가 부서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997) 그래서 바와리는, 베다에 통달한 그의 제자 바라문들에게 말하였다.
“바라문 학인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알리노니, 내 말을 들어보라.

(998) ‘온전히 깨달으신 분’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다.
너희들은 어서 사왓티로 가서 인간 가운데 위없는 그분을 뵈어라.”

(999) [바와리의 제자들] “그러면 스승이시여,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붓다’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00) [바와리]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베다 성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한 서른두 가지 특징들이 완전하게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다.

(1001) 몸에 [그런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을 뿐, 세 번째 길은 없다.

(1002) 만약 그가 집에 머문다면, 이 천하를 정복하리라. 폭력이나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바른 법으로 통치하리라.

(1003) 그러나 집을 나와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면, 그는, 능가할 자 없는 분, 아라한으로서, 덮개를 제거한, 붓다가 된다.

(1004) 나의 태생과 가문, 몸의 특징과, 베다 진언과 제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하여, 오직 마음속으로만 그에게 물어보라.

(1005) 만약 그가 걸림 없이 꿰뚫어 보는 ‘깨달은 분’ 이라면, 마음속으로 물은 질문에 말로써 대답할 것이다.”

(1006) 바와리의 말을 듣고 제자인 16명의 바라문들, 아지따, 뗏사 뗏페이야, 뽀나까, 뗏따구,

(1007) 도따까, 우빠시와, 난다, 헤마까,
또테이야, 깎빠, 지혜로운 자뚜간니,

(1008) 바드라우다, 우다야, 뽀살라 바라문,
현자 모가라자, 그리고 위대한 선인 뽕기야,

(1009) 그들은 저마다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으며,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선정에 들어 희열을 누리는 수행자들이며,
슬기로운 자들이며, 전생에 닦은 공덕의 훈습(薰習)으로
향기를 발하는 사람들이었다.

(1010) 모두 타래 머리를 하고, 가죽 옷을 걸친 그들은,
바와리에게 예를 갖추 절하고,
그를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 북쪽을 향해서 떠났다.

(1011) 알라까국의 빠뎃타나로, 다음은 마히사띠로,
그리고 옷제니, 고넛다, 웨디사, 와나사라는 도시로,

(1012) 또한 꼬삼비, 사께따, 그리고 최고의 도시 사왓티,
세따위야, 까뽀라왓투, 꾸시나라 도시로 들어갔다.

(1013) 그리고 빠와 도시와 보가 도시로, 웨살리로,
마가다 (라자가해) 도시로 가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빠사나까 탐묘에 이르렀다.

(1014)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찾듯이,

상인이 큰 이익을 구하듯이, 더위에 지친 자가 나무 그늘을 찾듯이,
그들은 서둘러 [거룩한 스승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갔다.

(1015)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 대중 앞에서,
숲속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법을 설하고 계셨다.

(1016) 아지따는, 빛을 비추는 현란한 태양 같고,
가득 찬 보름달 같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 붓다를 보았다.

(1017) 그리고 그의 몸에 완벽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한쪽에 서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다.

(1018) [아지따] ‘그의 태생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가문과 [모습의] 특징을 말씀해 보십시오.
베다 성전에 대한 그의 완벽함과,
그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1019) [세존] “나이는 120세이고, 이름은 바와리이고,
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는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해 있소.

(1020) 어휘론과 의례의 규칙들과 함께,
특징들과 역사에 통달해 있으며,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그 자신의 가르침에 있어서 완벽함에 도달해 있소.”

(1021) [아지따] ‘갈애를 끊어 버리신 분,
인간 가운데 위없는 분이시여,

바와리가 가진 모든 특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의심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주십시오.’

(1022) [세존] “그는 혀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덮을 수
있고, 그의 양미간에는 털 타래가 있고, 음부는 덮이어서
감추어져 있소. 바라문 학인이여, 이렇게 아시오.”

(1023) 질문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붓다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여 합장하고 생각하였다.

(1024) ‘천신일까? 범천일까?
혹은 수자(Sujā)의 남편인 제석천[인드라]일까?
마음속으로만 그런 질문들을 하였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대답을 하신 것일까?’
모두들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1025) [아지따] “바와리는,
‘머리’와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 주십시오, 선인이시여.”

(1026) [세존] “무명(無明)이 ‘머리’인 줄 아시오.
믿음과 사띠와 삼매와 열의[찬다]와 노력을 갖춘
명지(明智)가, ‘머리를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1027) 그러자 그 바라문 학인은 큰 감동으로 고양되어,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였다.

(1028) [아지따] “존자님이시여, 바와리 바라문은
그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몹시 기쁜 마음으로 환희하며,
당신의 두 발에 예경 올립니다.
통찰력을 갖추신 분이시여.”

(1029) [세존] “바라문 바와리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오!
그대도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오!
오래오래 사시오, 바라문 학인이여!

(1030) 바와리나 그대,
혹은 다른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들이라도,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물어시오.”

(1031) 온전히 깨달으신 분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으로,
아지따는 앉아서 합장하고, 여래께 첫 번째 질문을 하였다.

◎ 제5품 2경 <아지따의 질문>

(1032) [아지따] “세상은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왜 빛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1033) [세존] “아지따여,
세상은 무명으로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방일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
갈망이 세상을 더럽힌다고 나는 말하며,
괴로움이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다.”

(1034) [아지따]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하여 흐름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1035) [세존] “아지따여, 이 세상에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도,
그 흐름들을 막는 방법은 ‘사띠’이다.
또한 그 흐름들을 제어하는 것 역시 ‘사띠’라고 나는 말한다.
흐름은 ‘지혜[뵤냐]’에 의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

(1036) [아지따] “존자님, 지혜와 사띠, 그리고 명색,
이것을 여쭙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것은 [작용에] 종식됩니까?”

(1037) [세존] “아지따여, 그대가 질문한 이 물음,
‘어디에서 명색이 남김없이 종식되는가?’에 답하리라.
식[識, 윈나나]이 소멸될 때, 그때에 이것은 종식된다.”

(1038) [아지따] “이 세상에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배움 중에 있는 많은 학인들도 있습니다.
현명하신 존자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여쭙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39) [세존] “감각적 쾌락을 탐해서는 안 되며,
마음이 혼탁해져서도 안 된다.
모든 담마법리에 숙달하여, 비구는,
사띠를 지니고서 유행해야 한다.”

◎ 제5품 3경 <뗏사 뗏떼이야의 질문>

(1040) [뗏사 뗏떼이야]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쪽 끝을 잘 알아, 지혜로써,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대한 사람이라 부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갈애를 초월하였습니까?”

(1041) [세존] “뗏떼이야여,
감각적 쾌락의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삶을 지키며,
갈애에서 떠나고, 항상 사띠를 지니며,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하여 열반에 도달한 비구,
그에게는 동요가 없다.

(1042) 그는 양쪽 끝을 곧바로 잘 알고, 지혜로써,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를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갈애를 초월해 있다.”

◎ 제5품 4경 <뵈나까의 질문>

(1043) [뵈나까] “[욕망의 충동이 없으시고,
근본을 통찰하신 분께 여쭙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선인들과 평민, 왕족, 바라문들은 무슨 까닭으로
이 세상에서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문사오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44) [세존] “뵈나까여, 이 세상에서 널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많은 선인, 평민, 왕족, 바라문들,
이들은 존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늑어감에 속박되어 제사를 지냈다.”

(1045) [뵈나까] “많은 선인, 평민, 왕족, 바라문들,
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일에 방일함 없이
정성스레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태어남과 늑음을 뛰어넘은 것입니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문사오니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1046) [세존] “뵈나까여,
그들은, 원하고, 찬양하고, 갈망하며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이득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갈망한다.
제사에 헌신하고, 존재에 대한 욕망에 집착한 그들은,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1047) [뿐나까] “만일 제사에 헌신하는 자들이
제사에 의해서도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존자님, 신과 인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했습니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48) [세존] “뿐나까여,
세상에 있는 높고 낮은(멀고 가까운) 모든 것들을 통찰하여,
세상 어디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하고,
연기(피워) 없이, 고뇌 없이, 어떤 원함도 없는 사람,
그는 태어남과 늙음을 초월했다고 나는 말한다.”

◎ 제5품 5경 <멧따구의 질문>

(1049) [멧따구]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혜에 통달하신 분이요,
자신을 잘 다스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형태의 괴로움들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1050) [세존] “멧따구여,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물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형태의 괴로움들은 집착을 인연으로 생겨난다.

(1051) 집착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하여 괴로움에 다가선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발단이며 발생 원인임을 통찰하여,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1052) [멧따구] “우리가 물은 바를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을 묻사오니 이것을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현자들은 거센 물결을 건넵니까?
어떻게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건넵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저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53) [세존] “멧따구여,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 아닌,
바로 이번 생에 보게 된 이 진리를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것이다.”

(1054) [멧따구] “위대한 선인이시여,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최상의 가르침에,
저는 그지없이 기쁩니다.”

(1055) [세존] “멧따구여,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에 대한 즐김과 애착을 몰아내라.
[그러하면] 식(識, 원나)은 존재 속에 머물지 않으리라.

(1056) 이와 같이 머물고, 사띠를 지니고,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남과 늙음, 슬픔과 비탄을 건너서,
바로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리라.”

(1057) [멧따구] “위대한 선인의 말씀들을 듣고 저는 기쁩니다.
고따마시여, 집착에서 벗어난 경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분께서는 확실히 괴로움을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계십니다.

(1058) 성인이시여, 당신께서 꾸준히 가르치시는 그들도
또한 괴로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시여, 당신께 나아가 예경 드립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께서는 확실히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059) [세존] “지혜에 통달한 자로 알려지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과 존재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는 확실히 이 거센 흐름을 건넜고, 피안에 이르렀고,

마음의 황무지가 없고, 어떤 의혹도 없다.

(1060)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한 자로서,
여러 형태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갈애가 없고, 고뇌도 없고, 원함도 없으며,
태어남과 늙음을 벗어났다고 나는 말한다.”

◎ 제5품 6경 <도따까의 질문>

(1061) [도따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저 자신의 열반을 위해,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1062) [세존] “그렇다면, 도따까여, 열심히 노력하라.
사려 깊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서 사띠를 지니도록 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는 자신의 열반을 위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1063) [도따까] “저는, 신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유행하는 바라문을 봅니다.
널리 보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예경 드립니다.
저를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까(석개)시여.”

(1064) [세존] “도따까여, 나는,

이 세상에서 의혹으로 고뇌하는 어떤 사람도,
그를 벗어나게 하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으뜸가는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대는 거센 물결을 건너게 되리라.”

(1065) [도따까] “성인이시여, 연민을 베풀어,
‘멀리 벗어나남’에 대한 가르침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디에도 걸림 없는 허공처럼,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집착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1066) [세존] “도따까여,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 아닌,
바로 이번 생에 보게 된, ‘평온’에 관해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라.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것이다.”

(1067) [도따까] “위대한 선인이시여,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최상의 ‘평온’에 대한 가르침에, 저는 그지없이 기쁩니다.”

(1068) [세존] “도따까여, 위로 아래로 그리고 중간으로,
그대가 분명하게 아는[인식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세상에서의 묶임[속박이라고 알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키지 말라.”

◎ 제5품 7경 <우빠시와의 질문>

(1069) [우빠시와] “사까시여, 저는 아무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엄청난 거센 물결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에 의지하면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는지 그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시여.”

(1070) [세존] “우빠시와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통찰하며, 사띠를 지니고서, ‘없다’에 의지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라.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밤낮없이 갈애의 소멸을 살펴보라.”

(1071) [우빠시와]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서, ‘지각으로부터 위없이 해탈한 상태’에서 해탈한 사람,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까?”

(1072) [세존] “우빠시와여,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각으로부터 위없이 해탈한 상태’에서 해탈한 사람,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리라.”

(1073) [우빠시와] “널리 보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만약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많은 세월동안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는 그곳에서 해탈하여 고요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의식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1074) [세존] “우빠시와여,
마치 거센 바람의 힘에 의해 꺼져버린 불꽃은,
소멸되어서, [무엇이래 헤아려지지 못하듯,
정신적 무리로부터 해탈한 성인은,
소멸되어서, [무엇이래 헤아려지지 못한다.”

(1075) [우빠시와] “그러면 소멸해 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원래대로 영원히 있는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진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076) [세존] “우빠시와여,
소멸해 버린 자에게는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그를,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모든 현상들이 끊어지면,
모든 언어의 길도 또한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 제5품 8경 <난다의 질문>

(1077) [난다] “세상에는 성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1078) [세존] “난다여, 통달한 사람은,
견해로나 학문으로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적하게 살고,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성인이라고 나는 말한다.”

(1079) [난다] “대게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행이나 준수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과연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것입니까?
존경하는 존자님,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080) [세존] “난다여, 대게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계행이나 준수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절제하며 산다 할지라도,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1081) [난다] “대개 그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행이나 준수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인이시여, 만일 당신께서,
‘그들은 아직도 거센 물결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신들과 인간의 세계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82) [세존] “난다여, 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모두 다
생과 늙음에 간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들을 버리고,
또한 계행과 준수들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갈애를 두루 통달하여 번뇌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거센 물결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1083) [난다] “위대한 선인의 말씀에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고따마시여, 집착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들을 버리고,
또한 계행과 준수들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갈애를 두루 통달하여 번뇌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거센 물결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 제5품 9경 <헤마까의 질문>

(1084) [헤마까] “고따마의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 어떤 누구라도, ‘이전에는 이러했다, 미래에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제게 설명해 준 것들은 모두, 전하여 들은 것에 불과했고, 사유를 혼란시킬 뿐이었습니다.

(1085) 저는 그들의 말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시여, 갈애를 뿌리 뽑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사띠를 지니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86) [세존] “헤마까여, 이 세상에서, 본 것, 들은 것, 감지된 것, 지각된 것들과, 또한 즐겁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 이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없앤 것, 이것이 영원한 열반의 경지이다.

(1087) 이것을 철저히 잘 이해하여,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평온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은 것이다.”

◎ 제5품 10경 <또테이아의 질문>

(1088) [또테이야] “어떤 감각적 욕망도
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갈애도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의 해탈은 어떤 것입니까?”

(1089) [세존] “또테이야여,
어떤 감각적 욕망도 그의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갈애도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 더 이상의 해탈은 없다.”

(1090) [또테이야] “그는 원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는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체하는 것입니까?
사까여, 제가 알 수 있도록 성인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통찰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여.”

(1091) [세존] “그에게는 원함이 없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 지혜로운 체하는 것이 아니다.
또테이야여, 성인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알라.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감각적 쾌락과 존재에 집착하지 않는다.”

◎ 제5장 11경 <깎빠의 질문>

(1092) [깎빠] “아주 위험한 홍수가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존자님,
의지할 수 있는 ‘섬[피난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섬에 대해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1093) [세존] “깎빠여, 아주 위험한 홍수가 일어나
거센 물결이 밀려올 때, 그 물결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섬’에 대하여 그대에게 말해 주리라.

(1094)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지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섬’이다.
나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종식이다.

(1095) 이것을 철저히 잘 이해하여, 사띠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 [갈애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그들은 악마[마라]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며,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 제5품 12경 <자뚜간니의 질문>

(1096) [자뚜간니] “저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없는
영웅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거센 흐름을 건너고 욕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여쭙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평온의 경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그것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97) 존귀하신 분께서는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들을 극복하십니다,
마치 빛나는 태양이 그 빛으로 대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여,
지혜가 적은 저에게 담마를 설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태어남과 늙음의 이 세상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1098) [세존] “자뚜간니여, ‘버림[포기]’을 안온으로 보아,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버리도록 하라.
그대에게는, 어떤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도록 하라.

(1099) 과거에 속한 것은 말려 없애고,
미래에 오는 것은 어떤 것도 주워 담지 말라.
중간[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온하리라.

(1100) 바라문이여,
명색에 대한 탐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지배 속으로 [끌레가게 되는,
그런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5품 13경 <바드라우다의 질문>

(1101) [바드라우다] “집을 떠나신 분,
갈애를 끊으신 분, 충동이 없으신 분, 즐거움을 버리신 분,
거센 물결을 건너신 분, 해탈하신 분,
정신적 허구를 버리신 분, 뛰어나게 지혜로우신 분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여기를 떠날 것입니다.

(1102) 영웅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물(事物)의 이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이 답마진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03) [세존] “바드라우다여,
위나 아래나 또는 중간 어느 곳에서나,
갖고[얻고 싶어 하는 갈애를 제거하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바로 그것에 의해서 악마[마래가 그를 뒤쫓게 된다.

(110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꿰뚫어 알고,
사띠에 머무는 비구는,
일체의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얻는 것에 빠져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죽음의 영역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관찰하면서.”

◎ 제5품 14경 <우다야의 질문>

(1105) [우다야] “갈망 없이, 좌선 수행하시는 분,
해야 할 일을 다 해 마치신 분, 번뇌가 없으신 분,
모든 현상의 그 너머로 가신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무명을 부숨’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말씀해 주십시오.”

(1106) [세존] “우다야여, 두 가지의 버림,
즉 감각적 욕망과 고뇌, 이 두 가지를 버리고,
그리고 해태를 쫓아 버리고, 회한을 품지 말며,

(1107) 평정심과 사띠에 의해 청정해지고,
담마에 대한 탐구에 의해서 나아가면,
이것이 ‘지혜에 의한 해탈’이고,
‘무명을 부숨’이라고 나는 말한다.”

(1108) [우다야] “세상은 무엇에 의해 속박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버림으로써 ‘열반’이라고 말해집니까?”

(1109) [세존] “세상은 즐거움[즐김]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생각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갈애를 버림으로써 ‘열반’이라고 말해진다.”

(1110) [우다이] “어떻게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면,
식[識, 윈나네이] 멈추어집니까?
그것을 존귀하신 분께 묻고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1111) [세존] “안으로나 밖으로나,
느낌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사띠를 지니고 유행하는 자에게, 식은 멈추어진다.”

◎ 제5품 15경 <뵘살라의 질문>

(1112) [뵘살라] “과거 생[전생]을 설명하시고,
동요가 없고, 의혹을 끊고,
모든 현상의 그 너머로 가신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1113) 사까시여, 물질에 대한 지각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 무리[신체]를 완전히 버리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무소유체] 사람의 앎은 어떤 것인지 여쭙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인도 됩니까?”

(1114) [세존] “뵘살라여,
식이 머무는[識住] 모든 곳들을 잘 아는 여래는,
그가 머무르고 있는 상태와,
그가 해탈하였다는 것과,
그가 그것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115)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생겨날 때 그 근원을 알아,
‘그것에 의한 즐거움은 속박이다’라고 곧바로 안다.
그렇게 완전히 이해한 그는,
그것을 통찰하게 되고 그 본질을 보게 된다.
이것이, 고귀한 삶을 살아온 바라문의 참된 지혜이다.”

◎ 제5품 16경 <모가라자의 질문>

(1116) [모가라자] “저는 사까께 두 번이나 물었지만,
지혜를 갖추신 분은 저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인은 세 번째에는 대답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1117) 이 세상과 저 세상, 신과 함께 있는 범천의 세상,
이러한 세상들에 대한 당신의 견해, 명망이 높은 고타마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저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8) 그래서 저는, 뻐어난 통찰을 가지신 분께 묻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죽음의 왕이 그를 보지 못합니까?”

(1119) [세존] “모가라자여, 항상 사띠를 지니고서,
세상을 빈 것(空)으로 보라.
그리고 내가 있다는 자아의 견해를 뿌리 뽑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한다.”

◎ 제5품 17경 <뽕기야의 질문>

(1120) [뽕기야] “저는, 늙고 기력도 없고 용모도 바랬습니다.
눈은 잘 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기로(岐路)에서 헤매다가 이대로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1121) [세존] “뽕기야여,
물질(신체)로 인하여 병들어 고통받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방일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뽕기야여,
그대는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방일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하라.”

(1122) [뽕기야] “네 방향과 그 사이의 네 방향,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열 방향(十方)의 세계에서,
당신에 의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감지되지 않고,
또 지각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늙음을 버리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설하여 주십시오.”

(1123) [세존] “뽕기야여,
사람들이 갈애에 빠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늙음에 짓눌려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러므로 뽕기야여,
그대는 방일하지 말고, 다시는 새로운 존재로 돌아오지 않기 위하여,
갈애를 버리도록 하라.”

◎ 제5품 18경 <피안으로 가는 길 경>

이것이, 존귀하신 분께서 마가다국의 빠사나까 탐묘에 머무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열여섯 명의 바라문들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그분께서는 그들^[바와리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들을 각각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대답하셨다.

만약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르침을 알고, 그것에 따라 실천 수행한다면, 늙음과 죽음을 벗어나 피안에 이를 것이다. 이 가르침들은 피안으로 인도하므로, 이 법문을,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 부른다.

(1124) 아지따, 뗏사 멧떼이야, 뽀나까, 멧따구,
도따까, 우빠시와, 난다, 그리고 헤마까,

(1125) 또테이야와 깎빠, 지혜로운 자뚜깐니, 바드라우다, 우다야,
뽀살라 바라문, 현자 모가라자, 그리고 위대한 선인 뽕기야.

(1126) 이들은 훌륭한 덕행을 갖추신 성인, 붓다에게 나아갔다.
심오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붓다에게 다가갔다.

(1127)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붓다께서는 진리에 따라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셨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성인의 대답을 듣고,
바라문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1128) 눈^[통찰]을 갖추신 분, 태양의 후예인
붓다에 의해 만족한 그들은,

빼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았다.

(1129) 그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그 가르침 따라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에 이를 것이다.

(1130) 최상의 으뜸가는 길을 닦는다면,
그는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것이다.
그 길은 피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부른다.

(1131) 뽕기야가 [바와리에게] 말했다.
“제가 ‘피안으로 가는 길’을 암송하겠습니다.
더러운 티끌이 없고, 광대한 지혜를 갖추신 분께서는,
스스로 본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없고, [번뇌의 숲이 없어진] 분께서
어찌 허망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132) 더러움과 어리석음을 버리신 분,
교만과 거짓을 버리신 분의 훌륭한 말씀을 저는 찬탄하겠습니다.

(1133)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 깨달으신 분,
널리 보는 눈을 지니신 분, 세상의 궁극에 도달하신 분,
모든 존재를 뛰어넘으신 분, 번뇌가 없으신 분,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 ‘붓다’라고 불리기에 마땅하신 분,
바라문[바와리]이시여, 저는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1134) 마치 새가 엉성한 덩불을 떠나 열매가 풍성한 숲에 깃들이듯이,
저 또한 소견이 좁은 사람들을 떠나서,
마치 넓은 바다에 도달한 백조와 같습니다.

(1135) 고탐마의 가르침 이전의 옛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려했다, 미래에는 이룰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해 준 것들은 모두 전해 들은 바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모두 저에게 사유의 혼란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1136) 암흑을 몰아내시고 홀로 앉아, 빛나는 분,
빛을 비추어주시는 분,
고따마는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고따마는 광대한 앎을 지니신 분입니다.

(1137) 갈애의 소멸, 그리고 고뇌 없음에 대하여,
바로 직접 볼 수 있고 그 즉시 효과가 있는,
[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에게 견줄 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1138) [바와리] “뺱기야여, 그대는,
광대한 지혜를 가진 고탐마, 광대한 앎을 지닌 고탐마 곁에서
어떻게 잠시라도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가?

(1139) 갈애의 소멸, 그리고 고뇌 없음에 대하여,
바로 직접 볼 수 있고 그 즉시 효과가 있는,
[그] 진리를 그대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에게 견줄 자는 아무 데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1140) [뽕기야] “바라문이지여, 저는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고타마,
광대한 앎을 지니신 고타마,
그분 곁을 잠시라도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1141) 갈애의 소멸, 그리고 고뇌 없음에 대하여,
바로 직접 볼 수 있고 그 즉시 효과가 있는,
[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에게 견줄 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1142) 바라문이지여, 저는 방일하지 않고 밤낮으로,
마치 눈으로 보듯이, 저의 마음으로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분을 떠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143) 저의 믿음과 희열, 그리고 마음[마뇌]의 사띠는
고타마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광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어느 쪽으로 가시거나,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예경 올립니다.

(1144) 저는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곳으로 갑니다.
바라문이지여, 저의 마음은 그분과 하나로 맺어져 있습니다.


(1145) 저는 더러운 흙탕물에 누워 허우적거리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거센 물결을 건너고 번뇌에서 벗어난,
온전히 깨달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1146) [붓대] “왁칼리가 믿음을 내었고,
바드라우다와 알라위 고타마가 믿음을 내었듯이,
그와 같이 그대도 믿음을 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뺱기야여,
그대는 죽음의 영역 그 너머로 갈 것이다.”

(1147) [뺱기야] “저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분은,
가린 덮개를 걷어내시고, 재치가 있으시며,
마음의 황무지가 없으신 분입니다.

(1148) 그분은,
신(神)들에 대하여 바로 잘 아시고,
높은 것과 낮은 것들 모두를 다 아셨습니다.
스승께서는 의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1149)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도 건줄 수 없는 경지, 확실히 저는 그 경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게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된 사람으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the dark silhouett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s roof with tiled eaves on the right side. The background is a bright, hazy landscape with mist or clouds, creating a soft, atmospheric effect.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image.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따 | 부록
원전의 경을 본서에서 찾기

부록

원전의 경을 본서에서 찾기

원전의 경 이름 옆에 있는 괄호안 숫자는 원전의 계송 번호이고, 그 우측에 있는 숫자가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 페이지이다.

제1품 뱀 품

1. 뱀 경(1~17)	...	52
2. 다니야 경(18~34)	...	317
3. 무소의 뿔 경(35~75)	...	239
4. 까시 바라드와자 경(76~82)	...	170
5. 쫘다 경(83~90)	...	247
6. 파멸 경(91~115)	...	323
7. 천한 사람 경(116~142)	...	325
8. 자애 경(143~152)	...	296
9. 헤마와따 경(153~180)	...	82
10. 알라와까 경(181~192)	...	71
11. 승리 경(193~206)	...	138
12. 성인 경(207~221)	...	338

제2품 소(小) 품

1. 보배 경(222~238)	...	233
2. 비린내 경(239~252)	...	330
3. 부끄러움 경(253~257)	...	261
4. 큰 축복 경(258~269)	...	248
5. 수짚로마 경(270~273)	...	46
6. 올바른 삶 경(274~283)	...	270
7. 바라문의 삶 경(284~315)	...	173
8. 나룻배 경(316~323)	...	250
9. 계행이란 무엇인가 경(324~330)	...	86
10. 용맹정진 경(331~334)	...	123
11. 라홀라 경(335~342)	...	272
12. 왕기사 경(343~358)	...	56
13. 올바른 유행 경(359~375)	...	273
14. 담미까 경(376~404)	...	264

제3품 대(大) 품

1. 출가 경(405~424)	...	162
2. 정진 경(425~449)	...	165
3. 잘 설해진 말씀 경(450~454)	...	112
4.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경(455~486)	...	281
5. 마가 경(487~509)	...	287
6. 사미야 경(510~547)	...	180
7. 쉐라 경(548~573)	...	191
8. 화살 경(574~593)	...	43, 74

9. 와셋타 경(594~656)	...	204
10. 꼬갈리아 경(657~678)	...	207
11. 날라까 경(679~723)	...	157, 341
12. 두 가지 관찰 경(724~765)	...	21

제4품 여덟 계송 품

1. 감각적 쾌락 경(766~771)	...	36
2. 동굴에 대한 여덟 계송 경(772~779)	...	37
3. 사악한 생각에 대한 여덟 계송 경(780~787)	...	89
4. 청정에 대한 여덟 계송 경(788~795)	...	91
5. 최상에 대한 여덟 계송 경(796~803)	...	92
6. 늡음 경(804~813)	...	304
7. 덧사 메페이야 경(814~823)	...	116
8. 빠수라 경(824~834)	...	94
9. 마간디아 경(835~847)	...	96
10. 죽기 전에 경(848~861)	...	346
11. 말다툼과 논쟁 경(862~877)	...	219
12. 작은 전열 경(878~894)	...	99
13. 큰 전열 경(895~914)	...	103
14. 서두름 경(915~934)	...	252
15. 폭력을 쓰는 사람 경(935~954)	...	39
16. 사리뵏따 경(955~975)	...	256

제5품 피안으로 가는 길 품

1. 서시(976~1031)	...	352
2. 아지따의 질문(1032~1039)	...	360
3. 뗏사메떼이아의 질문(1040~1042)	...	362
4. 뽀나까의 질문(1043~1048)	...	363
5. 뗏따구의 질문(1049~1060)	...	364
6. 도따까의 질문(1061~1068)	...	367
7. 우빠시와의 질문(1069~1076)	...	368
8. 난다의 질문(1077~1083)	...	370
9. 헤마까의 질문(1084~1087)	...	373
10. 또테이아의 질문(1088~1091)	...	373
11. 갑빠의 질문(1092~1095)	...	374
12. 자뚜간니의 질문(1096~1100)	...	375
13. 바드라우다의 질문(1101~1104)	...	377
14. 우다야의 질문(1105~1111)	...	378
15. 뽀살라의 질문(1112~1115)	...	379
16. 모가라자의 질문(1116~1119)	...	380
17. 뽕기야의 질문(1120~1123)	...	381
18. 피안으로 가는 길 경(1124~1149)	...	382

사성제로 정리한 숫따니빠다

1판 1쇄 발행 : 불기 2567년(2023년) 11월 18일

편역 : 비구 자공 까윗사라

발행처 : 아리아승원

펴낸곳 : 도서출판 사람과나무

등록/제531-2006-15호(2006년 11월 29일)

주소/52723 진주시 강남로201번길 3(3층)


전화/055-752-8290

홈페이지/ <http://www.manandtree.kr>

© 자공 까윗사라, 2023

ISBN 979-11-90578-32-5 03220

전자책 ISBN 979-11-90578-56-1 05220

배포처 :  (사단법인) 붓다와함께·아리아승원

주소/경남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51-41

전화/055-883-4840, 010-7189-6402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아리아승원

*잘못된 책은 바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되는 하나의 개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이리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일 것이고 이 의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모두 다 ‘사성제[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하나의 주제에 모아져 있고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에 관한 내용들 역시 모두 사성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성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 그 길을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머리말〉 중에서



값 28,000원
